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공 백

I. 서론

1. 연구 목적

소외청소년이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처한 정신적·육체적 혹은 주변환경적·경제적 여건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약자 혹은 소외계층으로 취급되는 집단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요보호청소년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소외영역에 따라 교육적 소외, 복지적 소외, 정신·신체적 소외, 사회·심리적 소외 청소년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청소년의 복지적 차원에서 복지대상 문제별로 나누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학대·유기 청소년, 가출·비행 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장애청소년, 빈곤가정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청소년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43-49).

이와 같은 소외청소년들도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정책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소외청소년들이 정책적인 소외대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때, 심각한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복지정책 수립의 기본전제는 복지대상자의 욕구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복지대상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욕구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복지적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소비를 미덕으로 인식하고 생활하는 일반청소년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충족되지 않은 새로운 욕구에 대한 주장과 표현이 강한 반면, 심신이 허약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소외청소년들은 오히려 자신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 표현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예 욕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부류의 소외청소년 중 소년원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¹⁾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이 일반청소년과는 다르게 갖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소년원 보호 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효율적인 교정복지정책 수립과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소년원 보호 소년이 자신의 내적인 욕구(needs)를 표출하고 실현하지 못하여 직면하게 되는 위기상황과 일탈행동의 지속 및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비행 및 범죄청소년의 복지욕구는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둘째, 현행 소년원 보호 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체계는 어떠하며, 그 정책적 혹은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소년원 보호 소년의 보편적 욕구는 어떠하며, 특히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그들은 어떠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가?

넷째, 범죄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사법 정책의 효율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1) 소년원에 수용되어 의무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보호 소년” 혹은 “소년원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청소년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소외 및 소외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하고, 아울러 본 연구의 중점 대상인 비행청소년 및 소년원 보호소년의 법률적 정의를 고찰한다. “alienation” 혹은 “anomie”의 어원을 갖고 있는 소외의 개념을 프롬(E. Fromm), 헤겔(Hegel)과 마르크스(Marx)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소외현상을 ‘구조적 소외(structural alienation)’와 인간적 소외(mental alienation)’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처럼 “소외”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에 따라 “소외청소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고찰한다. 또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을 포괄하는 ‘비행소년’의 법률적 의미를 개괄한다.

한편, Maslow²⁾, Murray³⁾, Marshall 등이 정립한 욕구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욕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복지에서 욕구가 갖는 함축적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중 청소년복지의 성격과 특성을 고찰하고,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이념을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 2) 잘 알려진바대로, A H Maslow는 인간의 동기이론에서 행동동기로서 욕구들이 발현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The psych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The safety needs), 애정의 욕구(The love needs), 자아존중의 욕구(The este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The needs for self-realization) 등 다섯단계로 분류하고, 욕구는 최하로부터 최상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 3) H A Murray는 그의 양극이론에서, 인간의 인성 맨 아래쪽에는 욕구(needs)와 억압(press)의 상반되는 요인이 있는데, 이 두가지가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인간의 성격(Personality)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H A Murray, 1938 10, 김현수, 1993.18에서 재인용).

2) 소년원 보호 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본 연구의 중점 대상인 소년원 보호 소년에 대한 각종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의 소년원 보호 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를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에 대하여 수감인원, 비행전력, 재범율 등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의 소년원의 현황과 그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제시한다.

한편, 현재 범죄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처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소년원 보호 소년의 사회복지 및 재활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3) 소년원 보호 소년의 복지욕구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향후 소년원 보호 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소년원 보호 소년의 복지욕구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청소년은 현재 전국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생으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심리를 비롯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구와 개개인의 문제점 극복과 사회복지 및 재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그들만의 특수욕구에 대해 조사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은 심층면접조사로 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소년원에서 지도와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1,036명을 적정 비율로 추출하여 전문교사의 지휘 하에 실시하고, 심층면접은 조사대상자와 이미 라포(rappo)가 형성되어 있는 소년원에 재직중인 전문교사를 활용하여 조사진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최대화한다.

4) 소년원생을 위한 교정복지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직중인 학과 및 직업훈련 교사, 상담교사 등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교정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소년원생들의 안정된 사후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다.

5) 새로운 한국 교정사업의 방향 제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현장전문가의 의견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소년원생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소년원생의 재범방지와 갇생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방안과 안정된 사후정착을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소외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의 개념과 복지욕구에 관한 이론 고찰
- 소년원 보호 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및 제도에 관한 현황 분석

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조사대상

- 전국 소년원 보호 소년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소년원 보호 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2) 조사내용

○ 설문조사

- 목적 :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희망하는 교육분야, 소년원생 개개인의 문제상황, 재활을 위한 개인적 노력,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정도 및 복지욕구에 대한 설문 조사
- 조사영역 : 교육, 취업·진로, 지역사회, 경제적 자립, 건강·의료, 개인·심리, 여가·문화 등 복지서비스 내용

○ 면접조사

- 목적 및 조사영역 : 소년원의 생활 및 교육에 관한 의견 및 개선방안, 개개인의 문제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지원에 대한 욕구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 조사영역 : 교육내용 및 방식에 대한 평가, 소년원 생활규칙 및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 개개인의 문제나 고민, 퇴원 후의 진로 및 계획 추진을 위한 지원 등

3)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대상

- 소년원에 재직중인 현장 전문가 30명

(2) 조사내용

- 현행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소년원 보호 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교정복지 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조사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및 절차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절차
○ 소외청소년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문헌연구 소외 및 소외청소년의 개념에 관한 학설 및 이론 고찰 다양한 욕구이론 고찰, 사회복지와 욕구, 청소년복지와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이념 고찰
○ 소년원 보호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료분석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소년원생에 대한 각종 현황 제시 현행의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 · 복지사법 정책의 개념 도입
○ 소년원생의 생활세계와 복지욕구에 관한 설문 및 면접조사	○ 조사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실시 - 전국 소년원 수용 청소년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소년원 수용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 효율적인 교정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 조사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재직 현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
○ 새로운 한국 교정사업의 방향 제시	○ 자료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년원생의 재범방지와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모색

4.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소외청소년 중 소년원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사결과는 소외청소년 관련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년원생의 복지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회통합 방향이 모색될 것이며, 소년원생을 위한 정부주도 혹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공 백

II. 소외청소년과 사회복지대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소외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의 개념정의
2. 욕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공 백

II. 소외청소년과 사회복지대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소외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의 개념 정의

1) 소외의 어원적 의미

소외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외란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외의 사전적 의미는 ①다른 상대방에게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이고 ②그 용어는 한 '개인의 소원함(estrangement)'과 관련되며, ③'정신적 혼란'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⁴⁾. 즉, 법률적 의미에서 소외란 보통 매도나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소유권의 이양(transfer of ownership)을 말하며, 일상 용어에서 소외란 흔히 이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멀어지는 상태인 인간관계의 소원(interpersonal estrangement)을 의미하며, 정신의학에서 소외란 정상으로부터 벗어나감을, 즉 정신이상(mental disorder)을 뜻한다.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소외란 인간의 특성, 관계, 행위들이 인간과 독립되어 있으면서,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물들의 특성과 행위로 전화되는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안형관, 1992:94-95).

어원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소외라고 표현되는 alienation; aliene; Entfremdung⁵⁾ 등의 용어는, 중세의 영어나 독일어, 혹은 고대 불어나 라틴어 가운데서 그 어원과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소외는 영어의

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Springfield, mass, Meriam, 1968(Frank Johnson, Alienation, p.29 참조)

5) 독일어로 "소외"를 의미하는 Entfremdung은 사물이나 상황, 인간, 사회집단간의 관계가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을 뜻한다(Fuchs-Heinritz u.a. 1994:168)

Alienation 혹은 Estrangement로 소외하다(alienate), 즉 낯설게 하다 혹은 타인의 것으로 만들다란 동사에서 명사화 한 것이다. 그러나 소외의 개념은 소외라는 용어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부 독일 철학자들에게 소외란 자기 소외를 뜻하기도 하는데, Hegel과 Marx 의해 지칭된 자기소외(self-estrangement)란 스스로가 그 자신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의미한다(상계서, 1992:96). Fromm은 마르크스의 관점에 기초하여 소외개념에 사회학적 의미를 보충하였다. Fromm이 정의하는 자기로부터의 소외란 자신의 자기와의 관계상실(반병일, 1999:11)을 말하며, 인간정신의 자기분리이고 자기부정이다. 인간이 진정한 인격체로서 자기를 잃고, 자기가 지닌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자기로 알게되며, 이러한 기능적 자아가 무력감과 무의미⁶⁾, 허탈상태에 빠지게 되면 점차 사회로부터 기피하고 도피하고 싶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아노미적 현상을 Fromm은 자기소외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외의 개념은 근대의 성립을 중심으로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사용된 소외의 개념은 정신병자나 정신적 혼란을 의미하는 반면, 근대 이후 소외의 개념은 상품의 양도(讓渡), 혹은 원초적 자유의 양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외의 개념은 근대 사회의 성립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산업혁명과 도시화를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소외의 개념은 한층 다양화되었으며, 소외의 대상과 주체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계층도 주관적으로 소외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 객관적으로 보아 전혀 소외계층에 속하지 않는 대상이 스스로 소외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등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소외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게

6) Mannheim에 따르면, 이러한 무의미성은 “기능적 합리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실질적 합리성”이 쇠퇴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반병일, 1999:13). 예를 들어 사회목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조직을 강화하면 할수록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통찰력 있게 대처할 행위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되었다. 소외의 개념은 인간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현대사회의 특성과 청소년 소외

소외는 현대사회의 인간을 탐구하는데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온 개념이다. 현대사회를 구조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핵심개념이며,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사회현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출발이기도 하다. 장진호는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소외”와 “인간적 소외”(장진호, 1980:43)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기술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눈부신 사회 문화적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업화·산업화된 사회생활과 문화적·사회적 구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괴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Seeman은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이나 구조에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 들거나, 거대한 조직체 속에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중문화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박승위, 1992:212) 등 고독감이나 거부 및 거절의 감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수용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고립’론은 Durkheim의 아노미 개념과도 유사한 것으로 소속집단으로부터의 분리나 집단기준으로부터 고립된 상황으로 이러한 양상은 흔히 노인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소수인종 구성인 및 장애자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최소영, 1987:15). 이러한 소외현상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인간화와 물개성화 혹은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하며,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불량화 혹은 부적응 현상과도 맥을 함께 하고 있다(이건인, 1993:29). 가치체계가 혼란되고 불확실성과 무질

서, 사회적 혼란이 만연되는 아노미적 현상에서 사회규범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힘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여 부정적·일탈적 감정을 갖게 된다.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사회적 아노미 현상에서 비롯되는 무력감과 자기소외를 드는 이유도 이러한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산업사회는 대중화라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관계, 즉 타인과의 관계성(Relatedness) 결핍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인간적 소외”는 현대인의 고독한 감정을 의미한다. 즉, 타인과의 연대성 결핍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립되는 느낌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장영실, 1985:16). 또한, 조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마저 기계적으로 비인격화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은 Seeman이 말하는 “사회적 소외”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인간소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회구성원으로서 방향감각의 상실을 들 수 있다(한완상, 1980:44).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어진 역할과 과제를 수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본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이다. 소비지향적 대중문화의 물결에 쉽게 동요하고, 자극적·감각적 향락문화에 심취하는 청소년의 특성은 이러한 측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덕적 판단이 흐려지고, 정당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성취하기 힘든 욕구가 높아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적·일탈적 성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가치체계의 혼란, 무기력, 고립 등 소외현상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 역할구조에 흡수되지 못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무질서한 심적 방황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현상으로 무단결석, 학업중단, 가출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비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소외현상은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청소년 소외도 그 예외는 아니며, 성인과 달리 청소년기의 발달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더 많은 부작용과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심층적인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3) 소외청소년의 개념 및 비행청소년의 법률적 개념 정의

(1) 소외청소년의 개념

인간소외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때, 소외는 인간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현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소외에 대한 논의도 인간소외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소외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주관적 현상인가 객관적 현상인가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Seeman이 정의하는 소외의 개념 중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그룹으로, 그들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혼란과 갈등으로 인하여 소외를 인식하는 집단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청소년 소외와는 달리,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어지는 소외 청소년은 주관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외청소년이란 개인이 처한 정신적·육체적 결함 혹은 주변환경적·경제적 여건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약자 혹은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집단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관적 현상과 객관적 현상에 대한 충돌의 문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사회가 복지수혜의 대상자로 지정하여 소외계층으로 일반화하였을 뿐이지, 정작 본인 스스로는 인간소외 현상에서 나타나는 무력감이나 상실감 혹은 자기소외 문제를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불합리한 객

관화로 소외집단으로 취급될 뿐이지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소외계층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서는 인간소외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요인들을 갖추고 있어 소외집단이란 인식이 강하지만, 외부로부터는 전혀 소외계층으로 취급되는 않는 부류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외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집단, 예를 들어 복지대상 문제별로 나누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학대·유기 청소년, 가출·비행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장애청소년, 빈곤가정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청소년 등 요보호청소년을 소외청소년 집단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2) 비행청소년의 법률적 개념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비행청소년은 구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사회적 규범이나 교칙 등을 위반한 불량한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한 범인이 청소년일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의 비행 청소년은 성인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음주와 흡연,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소년법 제 4조에 의하면 비행소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II-1> 비행소년의 법률적 정의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저지른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됨
촉법소년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은 지지 않음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1.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함 3. 범죄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성벽이 있음

출처 : 박병식 외, 1999:105

이상과 같은 분류에서 비행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한 것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경우를 보면, 연령에만 구분이 있을 뿐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규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행위를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현재적·가시적인 행위보다는 잠재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라는 규정을 보면 비행행위보다는 비행자가 중심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역시 비행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행소년이 되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하는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된 비행의 개념은 비행행위와 비행자 양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즉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인 반면,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24-25).

비행소년은 조기에 발견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은 성장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두번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소년은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행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년을 선도하고 보호자에게 조언하여 비행성향이 초기단계에서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행을 저질

러 경찰이나 법원에 불려다니게 되면 열등감과 자아의식으로 인생을 포기하여 진정한 범죄인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비행소년을 '진성(眞性) 비행소년'과 '가성(假性) 비행소년'으로 구별하여, 비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한때의 실수에 불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적절한 관용을 베풀 경우 재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성 비행소년에게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도하고 있다.

(3) 소년원 보호 소년의 의미

법적으로 규정된 비행소년 중 형벌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이 가정법원 소년부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6호와 7호의 보호처분을 받게되면, 소년원으로 송치되어 6호 처분일 경우 6개월 동안, 7호 처분일 경우 1년 간 의무적 보호를 받게된다. 이처럼 범죄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6호와 7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의무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을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보호 소년” 혹은 “소년원생”이라 지칭하기로 하며,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소년원은 범죄소년을 벌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교정을 위한 처우를 행하는 넓은 의미의 (재)교육기관이다. 즉, 소년원 처우는 교정교육을 행하는 시설로서 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따라서 소년원 수용은 교정교육의 한 수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으로 이해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소년원의 명칭을 전환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영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특성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고, 그 성과도 괄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III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 복지욕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욕구의 유형 및 대표적 이론

(1) 욕구의 유형

욕구는 발생원인과 내용, 충족방법, 분야 등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대표적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욕구의 개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욕구(慾求)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욕구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개인적 욕구에는 인간의 신체적, 물질적, 금전적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욕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회적 욕구는 소득, 보건, 교육, 주택과 같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충족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들, 예를 들어 스포츠, 예술, 문화, 레크레이션 등의 이차적 욕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처럼 욕구란 단순히 특정한 서비스를 통한 '결핍상태보충'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현재상태의 개선'을 위한 요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미영, 2000:12).

(2) 개인적 욕구론

개인적 욕구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인간의 동기이론에서 욕구단계이론을 내세운 Maslow와 인성이론을 주창한 Murray를 들 수 있다.

Maslow는 인간의 동기이론에서 행동의 동기으로써 욕구들이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로 분류하였다. 각 욕구는 위계적 순서를 이루고 있어서 하위욕구에서 상위욕구로 이동하며, 동기부여는 상위욕구가 충족되기 전 하위수준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데(강명숙, 1999:17-18), 첫째,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므로 항상 무엇을 원하게 되고, 원하는 한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새로운 욕구의 실현을 꾀하게 된다. 둘째, 이미 충족된 욕구는 인간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만이 행동의 동기가 되며, 셋째로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를 이루어 그 중요성에 따라 계층화할 수 있는데, 욕구의 위계에서 상위 욕구일수록 충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Maslow는 욕구의 단계 서열에 예외가 있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이인정, 1995:251-252), 즉 욕구서열이 일반성을 가지나 이 서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식을 해가며 자기의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는 사람 등은 이 욕구의 서열에 따르지 않는 예이다.

Murray가 정립한 인성(人性)이론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욕구(need)와 억압(press)의 양극이론이다. Murray는 인간의 인성 밑바닥에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요인이 존재하며, 이것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인간의 인성특성(personality)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욕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유형화 하고 있다(박운용, 2000:16-19).

먼저, 욕구는 일차적 욕구와 이차적 욕구로 구분되는데, 장기 발생적 욕구에 해당하는 일차적 욕구는 신체적 만족과 연관되며, 심리 발생적 욕구에 해당하는 이차적 욕구는 일차적 욕구에서 유래되는 것이지만 신체적 만족과는 결함이 없다. 또한, 외적 욕구와 내적 욕구로 구분하여 외적욕구는 표현된 욕구로 내적 욕구는 잠재되어 있는 욕구로 보았다. 그 외, 발생적 욕구와 반응적 욕구로 구분하고, 발생적 욕구는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결과로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욕구이며, 반응적 욕구는 어떤 사상의 결과나 그에 대한 반응으로 환기되는 욕구를 의미한다.

(3) 사회적 욕구론

Marshall은 사회적 욕구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로, 사회보장, 의료보장, 개별 사회적 서비스, 주택보장,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교육보장 같은 6개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정책의 범주 속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가 학자의 상이한 견해에 따라 조금씩 달리 구성되어 있지만 대체로 사회보장, 의료보장, 직업보장, 개별 사회적 서비스 및 주택 서비스가 중심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요약하면 인간의 욕구들 중에서 기본적인 욕구로 1차 제한을 한 뒤 사회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2차 제한을 가한 결과가 최종적인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욕구가 된다(강재택, 1993:18).

사회적 욕구란 모든 사람들이 생존, 성장,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요건들인데, 성규탁(1993:144-145)은 다음을 일반적인 사회적 욕구로 보고 있다.

- ①적절한 소득과 경제적 기회(고용, 소득유지, 소비자 보호)
- ②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환경조건(음식, 영양, 의복, 주거, 교통, 안전, 사범)
- ③적절한 보건(공중보건, 의료, 정신건강, 재활)
- ④적절한 지식과 기능(교육, 도서관, 특수교육)
- ⑤적절한 개인적 및 사회적 적응 및 개발(가족 상담 및 가족지원, 아동 보호, 가족계획, 위기개입, 휴양, 집단의 복지활동, 문화 및 종교활동)
- ⑥적절한 사회조직체를 통한 충족(지역사회 및 정치적 조직, 인간 및 경제적 개발, 조사연구)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개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비롯하여 성장과 충족을 위한 이차적인 욕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개인이 원하는 욕구의 수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들이 모두 실현된다고 해서 개인의 모든 욕구가 충

족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태와 그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표 등은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욕구가 사회에 얼마나 잘 반영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 되는데, 이는 욕구에 대한 측정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년원생에 대한 욕구측정도 소년원생과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까지도 포함해야 하는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욕구가 나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와 욕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욕구(needs)란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desire)이라고 할 수 있다(이가옥 외, 1990:11). 욕구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욕구는 생물학적 차원의 결핍과 성장과 충족을 위한 2차 적인 요구(demand)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에서 욕구에 관한 논의는 생존적 차원의 기본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욕구를 설정하는 문제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는데,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이 기본욕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정도에 대한 판단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간주했다(박승희, 2000:47) 그러나 정책대상자 개인의 기대와 욕구의 반영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한 전제조건이다.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자신의 판단이나 바람과는 무관하게 외부의 권력과 통제(이혁구, 1994:342-365)에 의해 결정된다면,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에는 위험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에서는 전문가가 판단한 욕구보다는 대상자의 바람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욕구이론에서 욕구는 많이 충족시키면 시킬수록 정책

실현이라는 목표에 근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승희, 2000:47). 이것은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Maslow의 욕구단계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차적인 기본욕구에 해당하는 생리적 욕구라는 저 단계의 욕구로부터 자아실현이라는 고 단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욕구는 충족의 크기에 따라 다른 차원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단계론은 욕구가 많이 충족되면 될수록 인간은 더 행복하다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할 때,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은 항상 부족하여 결핍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욕구의 결핍상태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을 제거하여 기쁨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사회복지정책의 욕구이론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욕구의 충족이 많을수록 좋지만,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욕구 충족에 한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최저 한계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출발은 생존의 보장이며, 이러한 저 단계의 욕구로부터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고 단계의 욕구 실현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1) 청소년복지의 성격과 특성

청소년복지는 모든 청소년이 심신이 불완전한 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며, 복지서비스는 정상적인 삶을 위한 건전한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4-6).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을 둘러싼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왜곡된 사회화를 바로잡아 청소년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기존의 문제청소년 혹은 요

보호청소년에 대한 치료나 교정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긍정적 환경의 조성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한 환경의 개선과 사회문화적 환경 및 교육환경의 개선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왜곡된 사회화를 막고 정상적인 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의 특성별로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직청소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비행청소년과 불우청소년을 위한 교정사회사업 및 시설보호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청소년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파악된다(조홍식, 1999:5). 그러나 청소년복지는 아직까지 그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아동복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비록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할지라도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아동복지가 가정의 기능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청소년복지는 가정의 기능강화와 함께 청소년기의 발달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개별적 지원이 아동복지에 비해 한층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는 정책의 방향과 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효율적인 정책 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 욕구의 기본적 특징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욕구가 생성되고 있고, 욕구의 사회적 성격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최경구 외, 1995:10). 새로운 욕구의 출현으로 새로운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현대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욕구의 양상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본적 욕구수준의 상승, 공동체 해체에 따른 새로운 귀속감의 추구,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된다

(김상균, 1987:17-27). 또한, 청소년육구의 사회적 성격이 증대되고 있는데, 사회적 육구의 주요 발생원인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있으므로 육구의 해결방법도 주로 사회적 수단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육구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질서의 부당함은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기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 같은 청소년 육구의 특성은 객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며, 청소년복지도 결핍과 불만족의 상태를 육구충족과 만족으로 돌려놓는 정상화 개념뿐만 아니라,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차원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적 개념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이념의 정립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집단, 예를 들어 복지대상 문제별로 나누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학대·유기 청소년, 가출·비행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장애청소년, 빈곤가정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청소년 등 요보호청소년을 소외청소년 집단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소년원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원생을 본 연구의 중점대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결핍이나 육구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인간이 원하는 육구의 수준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소외청소년들도 문제별 대상집단에 따라 그 집단이 처해 있는 객관적·주관적 문제상황이 다르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지원 육구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비행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이 처해있는 문제상황에는 차이가 있고, 각자가 원하는 육구의 수준도 다르다. 인간의 기본적인 육구에 해당

하는 최저생활의 보장이란 측면에서도 개인이 추구하는 바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를 소년원생의 복지욕구에 한정하기로 한다. 복지정책대상으로서의 소년원생은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와 자신이 처해있는 문제상황과 그 해결을 위한 그들만의 특수욕구를 갖고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앞서 고찰한 욕구이론을 기초로 일반욕구와 특수욕구로 구분하고, 이를 욕구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초생존권 보장이라는 일차적 욕구에 정책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소년원생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은 재범방지와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능력의 신장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욕구의 개념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우려는 개인의 욕망을 의미한다면, 소년원생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심리적 결핍은 매우 큰 것으로 이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은 한층 폭 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때, 소년원 보호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이들의 재범방지와 완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귀착되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이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적 일탈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규범적 통합”(normative integration)과 “체제적 통합”(systematic integration)의 상이한 통합 양식이 대립해 왔다(최경구 외, 1995:15). 규범적 통합이 사회적 규범의 강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라면 체제적 통합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계층 간의 불평등을 물질적 재분배를 통해 해소하려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의 통합 방식을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적용해 볼 때, 규범적 통합방식이 개인의 사회화를 비롯하여 가족과 같은 기존 제도의 전통적 기능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체제적 통합방

식은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과 같은 적극적 분배의 방식을 취한다.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소외청소년을 위한 복지이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다르다. 특히, 경제적·사회심리적 결핍이 큰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는 법과 제도, 형벌의 강화를 통한 규범적 통합보다는 이들의 상대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안정된 사후정착을 위한 무상교육실시, 취업알선 및 주거공간의 제공 등 사회보장제도적 차원의 체제적 통합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공 백

III. 소년원 보호소년에 대한 현행 복지정책

1. 소년원의 의의와 보호처분의 종류
2. 소년의 수용인원과 비행현황
3. 소년원의 교정교육
4. 보호소년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정책 방향
5. 제언 : 소년사법과 복지사법

공 백

III. 소년원 보호소년에 대한 현행 복지정책

1. 소년원의 의의와 보호처분의 종류

1) 소년원이란

소년원이라 하면 높은 담이 둘러쳐 있는 시설에 소년을 수용하여 엄격한 훈련을 과하고 벌을 주는 곳이라는 인상을 갖기 쉽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년원을 소년교도소와 구별하지 못하여 소년원에 송치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은 비행소년을 별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을 위한 처우를 행하는 넓은 의미의 (재)교육기관이다. 즉, 소년원 처우는 교정교육을 행하는 시설로서 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행형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따라서 소년원에의 수용은 교정교육의 한 수단이다. 하지만 소년원의 성격을 교육·복지기관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비행소년의 건전육성 즉 비행소년의 개선·갱생, 사회복귀와 아울러 일반시민을 범죄·비행의 위협으로부터 방위한다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猪瀬愼一郎/森田明/佐伯仁志 編, 2001:395).

2) 보호처분의 종류와 실태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가 범죄소년(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

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으로서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린다(소년법 제4조 제1항).

1995년 1월 5일 개정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 7가지가 있다(소년법 제32조 1항).

1.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2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3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4호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5호처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6호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7호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호처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며, 7호처분은 소년의 자유에 대한 강제적 제약정도가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비행사실과 비행경력을 감안하여 교정이 용이한 소년은 7~12개월, 교정이 곤란한 소년은 13~18개월, 강력·상습 비행자나 교정이 극히 곤란한 소년은 18개월 이상으로 각각 분류하고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재비행 예측결과를 적용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을 상향하거나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용기간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는 것은 소년의 개선가능성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소년원에 송치되는 6호처분과 7호처분은 각각 1천명에서 2

천명 사이이며, 1999년의 경우 6호처분은 1,621명, 7호처분은 1,194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III-1>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1995-1999년)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불 처 분	심 리 불 개 시	기 타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995	29,677	28,641	4,732	11,518	8,982	675	42	1,671	1,021	322	656	58
1996	32,697	30,992	5,431	12,241	9,599	604	82	1,881	1,154	647	953	105
1997	39,639	37,559	6,892	12,595	14,017	653	43	2,214	1,145	650	1,304	126
1998	39,300	37,081	6,708	12,719	13,712	851	10	1,884	1,197	897	1,250	72
1999	36,460	32,348	6,688	10,677	11,234	920	14	1,621	1,194	1,848	2,118	146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57 참조

주: 1호처분과 2호 또는 3호처분이 병합된 경우, 1호처분에서 제외
2호 및 3호처분 인원은 1호처분이 병합된 인원을 포함

3) 소년원의 분류

소년원법은 분류수용과 교정교육상 소년원을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 및 특별소년원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제4조). 교과교육소년원은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수용하여 교육시키며, 직업훈련소년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훈련시키고, 여자소년원은 보호소년 중 여자를 수용하며, 특별소년원은 강력·상습·재입원·문제유발 소년 등 범죄적 경향이 현저하거나 성격 또는 행동의 장애로 인하여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과 심리치료를 행한다. 이밖에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종합소년원도 있으며, 같은 소년원에서도 원생의 연령, 비행의 질, 입원횟수, 공범

유무, 교육정도 등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있다. 현재 소년원은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11개의 소년원과 1개의 지원(서울소년원 대덕지원)이 있다.

<표 III-2> 소년원의 분류와 특성

기능	대상 소년원	교육 내용	대상자
교과교육소년원	서울·대구·춘천 충주·전주·청주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수업	· 문맹소년 · 14세미만 소년 · 학업계속 소년
직업훈련소년원	부산·광주·대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 무의탁 소년 · 18-19세 소년 · 취업희망소년
종합소년원	제주	교과교육, 직업훈련 병행	· 학업계속소년 · 취업희망소년
특별소년원	대덕	직업훈련, 심리치료	강력, 상습, 재입원, 문제유발 소년
여자소년원	안양	교과교육, 직업훈련 병행	여자소년 전원

2. 소년의 수용인원과 비행현황

1) 수용인원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신수용(新收容)인원을 보면 남자소년과 여자소년 공히 96년과 97년에 급증하여 최고에 달한 후 9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여자소년의 경우 1993년까지 100명을 되지 않았으나 94년과 95년에 100명대로 증가하였고, 96년과 97년에는 거의 300명에 육박하였지만 98년과 99년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96년에 3,462명으로 최고에 달하였으나 1997년 이후 급속히 감소한 후 약간씩 줄고 있다.

<표 III-3> 소년원의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1990-1999)

구분 연도	신 수 용 인 원			1 일평균 수용인원
	계	남자	여자	
1990	1,932	1,864	68	2,525
1991	1,945	1,879	66	2,657
1992	2,104	2,010	94	2,703
1993	2,652	2,553	99	3,008
1994	3,192	3,061	131	2,149
1995	2,718	2,552	166	2,304
1996	3,660	3,382	278	3,462
1997	4,185	3,889	296	2,782
1998	3,520	3,317	203	2,684
1999	3,108	2,904	204	2,427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I-68 참조

2) 연령별 비행내용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공통적으로 16~17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14~15세, 18~19세, 14세 미만의 순이다. 1999년도의 경우에도 16~17세가 38.3%, 14~15세(27.5%), 18~19세(18.1%), 14세 미만(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소년보호사건의 죄명별 접수인원을 보면, 총 36,757명 중 절도가 13,115명(35.7%),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이 11,475명(31.2%)으로 두 죄명만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4> 보호소년의 연령층별 인원 (1990-1999)

연령 연도	계 (%)	14세 미만 (%)	14~15세 (%)	16~17세 (%)	18~19세 (%)
1990	18,418 (100)	2,268 (12.3)	5,146 (27.9)	7,031 (38.2)	3,973 (21.6)
1991	18,977 (100)	2,572 (13.6)	4,900 (25.8)	7,042 (37.1)	4,463 (23.5)
1992	20,140 (100)	3,236 (16.1)	5,505 (27.3)	6,484 (32.2)	4,915 (24.4)
1993	26,903 (100)	4,796 (17.8)	7,358 (27.4)	8,336 (31.0)	6,413 (23.8)
1994	25,671 (100)	4,295 (16.7)	7,320 (28.5)	8,336 (32.5)	5,720 (22.3)
1995	28,641 (100)	4,831 (16.9)	9,048 (31.6)	9,511 (33.2)	5,251 (18.3)
1996	30,992 (100)	5,605 (18.1)	10,136 (32.7)	10,381 (33.5)	4,870 (15.7)
1997	37,559 (100)	6,729 (17.9)	11,838 (31.5)	13,534 (36.1)	5,458 (14.5)
1998	37,081 (100)	6,264 (16.9)	12,158 (32.8)	12,867 (34.7)	5,792 (15.6)
1999	32,348 (100)	5,222 (16.1)	8,886 (27.5)	12,386 (38.3)	5,854 (18.1)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46 참조

주 연령은 범죄행위시의 연령

소년원에 신수용된 소년의 비행내용도 마찬가지로, 1998년과 1999년의 경우 절도가 가장 많고, 상해·폭행, 강도, 약물사용, 음란(강도, 강간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고, 18세 이상 20세 미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소년보호사건의 주요 죄명별 접수인원 (1999년)

위반죄명	인원
상해	601
폭행	847
강간	508
주거침입	621
절도	13,115
강도	1,328
교통사고특례법	688
도로교통법	1,1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130
특가법	1,853
폭력행위처벌법	11,475
기타	2,462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도표 II-16 참조

<표 III-6> 소년원생의 연령층별 비행내용 (1998-1999)

연령층	연도	계	절도	음란	약물 사용	상해 폭행	협박 공갈	강도	기타
계	1998	3,520	1,760	137	344	749	21	389	120
	1999	3,108	1,491	163	227	589	26	340	272
14세 미만	1998	134	101	2	13	14	1	2	1
	1999	58	39	2	5	8	-	2	2
14-16세	1998	797	474	23	75	143	2	61	19
	1999	637	365	18	39	110	5	44	56
16-18세	1998	1,724	830	85	182	358	9	193	67
	1999	1,578	769	99	112	291	11	172	124
18-20세	1998	838	345	26	74	226	8	128	31
	1999	815	313	44	68	177	10	121	82
20세 이상	1998	27	10	1	-	8	1	5	2
	1999	20	5	-	3	3	-	1	8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I-69 참조

주. 음란은 강도, 강간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3) 학력

학력별로 보면 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학력은 전체의 60%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력 이하의 분포가 감소하는 추세는 전체적으로 진학률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대학교 학력까지도 소년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

<표 III-7> 소년원생의 학력별 인원 (1990-1999)

구분 연도	계	불취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1990	1,932 (100)	13 (0.7)	305 (15.8)	1,038 (53.7)	576 (29.8)	-
1991	1,945 (100)	3 (0.2)	273 (14.0)	1,050 (54.0)	619 (31.8)	-
1992	2,104 (100)	8 (0.4)	282 (13.4)	1,204 (57.2)	610 (29.0)	-
1993	2,652 (100)	4 (0.2)	315 (11.9)	1,515 (57.1)	818 (30.8)	-
1994	3,192 (100)	7 (0.2)	331 (10.4)	1,853 (58.0)	999 (31.3)	2 (0.1)
1995	2,718 (100)	5 (0.2)	260 (9.6)	1,776 (65.3)	676 (24.9)	1 (0.0)
1996	3,660 (100)	9 (0.2)	324 (8.9)	2,358 (64.4)	965 (26.4)	4 (0.1)
1997	4,185 (100)	21 (0.5)	480 (11.5)	2,573 (61.5)	1,110 (26.5)	1 (0.0)
1998	3,520 (100)	4 (0.1)	150 (4.3)	2,196 (62.4)	1,166 (33.1)	4 (0.1)
1999	3,108 (100)	2 (0.1)	146 (4.7)	1,867 (60.0)	1,082 (34.8)	11 (0.4)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I-70 참조

4) 직업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압도적으로 많아 1990년에는 42.0%였던 것이 1999년에는 66.9%까지 달하고 있다. 또한 1993년까지는 직공의 비율이

20%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 이후 학생의 비율이 직공의 비율보다 많아져 1999년에는 15.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소년원생의 직업별 인원 (1990-1999년)

연도	구분	계 (%)	학생 (%)	농업 (%)	상업 (%)	직공 (%)	노동 (%)	무직 (%)	기타 (%)
1990		1,932 (100)	270 (14.0)	14 (0.7)	5 (0.3)	406 (21.0)	44 (2.3)	811 (42.0)	382 (19.7)
1991		1,945 (100)	341 (17.5)	13 (0.7)	22 (1.1)	355 (18.3)	89 (4.6)	720 (37.0)	405 (20.8)
1992		2,104 (100)	397 (18.9)	25 (1.2)	30 (1.4)	443 (21.1)	77 (3.7)	724 (34.4)	408 (19.3)
1993		2,652 (100)	342 (12.9)	21 (0.8)	5 (0.2)	526 (19.8)	42 (1.6)	1,070 (40.3)	646 (24.4)
1994		3,192 (100)	470 (14.7)	14 (0.4)	214 (6.7)	370 (11.6)	162 (5.1)	1,619 (50.7)	343 (10.8)
1995		2,718 (100)	372 (13.7)	8 (0.3)	115 (4.2)	248 (9.1)	74 (2.7)	1,630 (60.0)	271 (10.0)
1996		3,660 (100)	397 (10.8)	21 (0.6)	193 (5.3)	204 (5.6)	85 (2.3)	2,311 (63.1)	449 (12.3)
1997		4,185 (100)	589 (14.0)	20 (0.5)	252 (6.0)	280 (6.7)	141 (3.4)	2,327 (55.6)	576 (13.7)
1998		3,520 (100)	482 (13.7)	7 (0.1)	256 (7.3)	171 (4.9)	101 (2.9)	2,124 (60.3)	379 (10.8)
1999		3,108 (100)	480 (15.4)	9 (0.3)	149 (4.8)	86 (2.8)	41 (1.3)	2,079 (66.9)	264 (8.5)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I-71 참조

3. 소년원의 교정교육

1) 교정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 순화,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해서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소년원법 제28조) 하는 데에 있으며, 소년원에 있어서의 처우는 “보호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민주국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소년원법 제5조) 하는 것에 있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연합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도 시설내처우의 목적을 “시설에 수용된 소년의 훈련과 처우의 목적은 소년이 사회에 나가 건설적이고도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해 케어, 보호, 교육, 직업훈련을 소년에게 부여하는 것이다”(26.1)고 규정하면서, “소년이 교육상의 불이익을 받아 시설에서 나오는 일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과교육,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하도록 부처간 및 부서간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26.7)고 하고 있다.

소년원의 교육과정은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기까지 입원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표 III-9> 소년원의 단계별 교육내용

교육단계	기간	내 용
제1단계 (입원자 교육)	10일	분류조사, 생활규범 지도, 기초적인 교육과 훈련, 기타 시설적응 오리엔테이션
제2단계 (기본 교육)	단기 중기 장기	교과교육, 직업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제3단계	10일	신상정리, 퇴원후 문제협의 등 진로상담, 사회 시설 견학, 종합평가 및 사후지도 계획수립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I-74 참조

① 입원자교육 단계

10일간에 걸쳐 분류조사와 병행하여 생활규범지도, 정신교육, 체육훈련 및 심성훈련 등 기초교육과 훈련, 기타 시설적응에 필요한 생활 안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각오와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소년원 생활을 보다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② 기본교육 단계

소년원의 교정교육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단기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교육,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 과정의 교과교육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왜곡된 행동의 변용과 인격적 성장을 돕는 생활지도, 보호소년의 개성 및 특기 개발을 위한 특별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여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교정목적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고 있다.

③ 사회복귀교육 단계

퇴원에정자의 신상정리, 퇴원 후 문제협의 및 진로상담과 퇴원 후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로써 그 기간은 10일이다.

2) 생활지도

생활지도는 교정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지도영역으로, 소년이 지닌 왜곡된 성향과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생활현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지도영역은 기초적인 일상생활지도부터 전문적인 교정치료와 진로지도, 사후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입원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을 비롯하여 공중도덕, 기본예절, 사회규범 등을 익히도록 지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년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북돋우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치회 등 광범위한 집단지도를 하며, 나아가 소년의 정서순화와 인간성장을 돕기 위해 독서, 영화감상, 레크레이션 등을 지도하고 있다. 생활지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 소년원의 생활지도

구 분	내 용
행사지도	조회, 기념행사, 외부인사 초청강연, 지역사회행사 참여
학예지도	작품전시회, 웅변대회, 백일장, 독후감 발표회, 서예, 회화, 학교문화 예술 발표
정서지도	영화, 라디오, TV, 원내방송, 연극, 음악회, 레크레이션
상당지도	학업, 건강, 진로, 가정, 인간관계 등 적응지도
건강지도	운동경기, 신체검사, 체력검사, 목욕, 이발, 세탁, 방역
훈련지도	교련, 소년대 훈련, 정신수양(야영훈련)
종교지도	총집교회(總集敎誨), 신앙지도, 종교의식 거행
원외지도	소풍, 유적지 조사, 산업시설 견학, 노력봉사
기 타	자치회, 원내신문 발간, 면회, 통신, 외출, 포상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p 363 참조

3) 교과교육

보호소년에 대한 교과교육은 학업의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법무부보호국, 1998 840~841). 보호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경력과 상호관계 등을 조사하고, 본인 및 보호자 등을 면담하여 학업의지 여부를 확인하며 재학증명서나 생활기록부 등에 의한 학력관계 확인 등으로 분류심사 자료를 작성한다. 그리고 원장이 소년의 신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우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결정한다.

소년원에서의 교과교육은 원생간의 학력 차가 심하고 연령도 12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과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III-11> 전국소년원의 종류와 특징

기능	대상소년원	교육과정	대상자
교과교육소년원	서울 대구 춘천 충주 전주 청주	교육법에 의한 초등 학교, 중학교 및 고등 학교 과정 수업	교육법에 의한 초등 학교, 중학교 및 고등 학교 과정 수업
직업훈련소년원	부산 광주 대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무의탁소년 취업희망소년
여자소년원	안양	교과교육, 직업훈련 병행	전국소년원의 여자소년 전원
특별소년원	대덕	직업훈련, 심리치료	전국소년원의 강력, 상습, 재입원, 문제유 발소년
종합소년원	제주	교과교육, 직업훈련 병행	학업계속소년 취업희망소년
학 교 명 칭			
고봉정보통신중 고등학교(서울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읍내정보통신중 고등학교(대구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원촌정보산업학교(대전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	
미평중 고등학교(청주소년원)		대덕정보산업학교(대덕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계명정보통신학교(충주소년원)		한길정보산업학교(제주소년원)	

출처 : 법무부 미발간 자료, 2001 참조

이에 교과교육소년원으로 초등학교 11개 소년원, 중학교 8개 소년원 (서울·대구·안양·춘천·충주·전주·청주·제주), 고등학교 4개 소년원 (서울·대구·전주·청주)을 지정하고 있다(소년원법시행령 제81조 1항). 교과교육소년원과 특별소년원 및 종합소년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교과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주 38시간 이내의 시간을 수업하며, 각급 학교 학령 초과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교과교육소년원으로 지정된 소년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규정하여 학교교육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소년원법 제29조 2항).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원생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며(소년원법 제29조 4항), 이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원생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며, 교육과정 이수 중에 중도 퇴원하는 원생에게는 일반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 수용 중에도 휴학 중 입원한 소년이나 매년초 신규로 입학한 소년에게는 입학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통학을 허용하고 있다.

4) 직업훈련교육

소년의 대부분은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 확립되지 못하고 무위도식 하거나 빈번한 전직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비행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호소년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업관의 확립과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사회에의 적응능력을 함양케 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소년은 그 연령과 경력으로 보아 일반인에 비하여 직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적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퇴원 후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원의 직업훈련은 사회적응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년원의 직업훈련이 본격화된 것은 1973년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안양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소를 병설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점차 전국의 소년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 광주, 대전, 충주 소년원을 직업훈련소년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실시된다(소년원법 제35조 1항) 소년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을 하게 할 수 있다(소년원법 제37조 1항). 통근취업대상 산업체는 직업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기능을 숙련시킬 수 있고 장래의 직업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소년원법시행령 제105조). 통근취업을 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된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14세 이상으로 연령, 경력, 적성,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소년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분류 배치한다. 훈련시간은 1일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하고, 이론 및 실습시간의 배정은 30대 70으로 한다(법무부보호국, 1998:917-919). <표 III-12>는 2000년 범죄백서에 실린 소년원의 직업훈련과정이다.

<표 III-12> 소년원의 직업훈련과정

훈련종별	훈련기간	훈련시간	자격취득	직 종
기준훈련	6월 ~12월	주 38시간	기능사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전기공사, 건축배관, 선반, 양복봉제, 건축목공, 특수용접, 프레스공형, 미용, 기계자수, 굴삭기·지게차 운전
기준외 훈련	6월	주 38시간	기능사	화훼재배, 정보처리(워드)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표 III-77 참조

주. 기준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훈련을 말하고, 기준외 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않은 훈련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보호소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 실시를 위해 멀티미디어 어학실습실을 설치하는 한편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소년원 등 전국 5개 소년원에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어학실습실과 컴퓨터 실습실을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종합정보

처리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0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소년원이 정보화특성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원생들의 선호도가 낮고 취업이 어려운 기계 자수, 건축목공, 양장봉제 등 사양직종을 폐지하고 컴퓨터 산업디자인, 전산응용 건축제도, PC 수리, 피부미용 등 첨단 신수요 직종의 훈련과정을 신설해 21세기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제주일보 2000년 3월 4일자).

소년원법시행령은 “소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훈련기준에 따라 직업훈련 직종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동 제100조)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원 직업훈련 직종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어학과 정보통신 분야에 중점을 두자, 보호소년이 영어응변대회에 입상하거나 IT 관련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스스로 퇴원을 연기·포기하고, 퇴원한 보호소년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국제연합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은 “모든 소년은 장래의 고용을 준비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에 대해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동 제42조)고 규정하면서 “적절한 직업선택과 시설운영상의 요구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소년은 종사하길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희망직업과 직업훈련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소년원의 직업훈련 내용의 변화는 개혁으로서 크게 평가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소년원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대한 성공사례는 다음의 신문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소년원생이 전국 영어올림대회서 첫 수상

법무부는 1일 미평고교(청주소년원) 소속 류모(18)군이 지난달 29일 유네스코 대전·충남협회 주최로 열린 제5회 전국 청소년 외국어발표대회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류군은 이에따라 소년원생 가운데 전국 영어올림대회 첫 수상자가 됐다.

류군이 입상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소년보호 교육기관에 멀티미디어 어학실을 설치하고 원어민교사 27명을 확보, 실용영어 위주로 교육방법을 바꾼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97년 유해화학물질 흡입 혐의로 적발돼 중학교를 그만둔 류군은 춘천소년원에 있을 때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데 이어 지난해 2월 다시 특수절도 혐의로 청주소년원에 들어와 같은해 7월 고졸검정고시에 합격, 올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류군은 "처음에는 영어가 너무 어려웠으나 소년원에서의 영어올림대회나 영어연극 등 실용영어 중심 교육으로 차차 자신감이 붙게 됐다"면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류군은 처녀출전에서 외국어고나 인문계고 학생들과 경쟁해 당당히 2등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오는 30일 전국의 소년보호 교육기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올림대회를 개최하는 등 영어 및 컴퓨터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1년 5월1일자>

재소자 자격증 위해 출원포기 잇따라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해 8월 충주소년원에 들어간 중학 중퇴생 손모(17)군이 이달 초 출원(出院)을 앞두고 소년원측에 한 요청이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시험을 볼 때까지 더 머물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희망대로 다음달말까지 출원을 늦춘 손군은 컴퓨터와 함께 고입 검정고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

1999년 3월 1년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갔던 추모(19)군. 그는 컴퓨터특별반에 편성된 뒤 출원을 석달 연기하며 인터넷 정보검색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세개나 땀다. 지난해말 사회로 돌아온 그는 그 덕에 지금 컴퓨터학원 강사가 됐다.

법무부가 1999년 9월 소년원 교육을 일반 중·고교 교과목 중심에서 컴퓨터, 영어 회화 등 실용 위주로 방향을 바꾼 뒤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뒤 사회로 돌아가겠다는 신청이 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법무부 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출원 연기신청을 한 소년원생은 모두 1백65명. ▶서울소년원 27명▶대구소년원 18명▶부산소년원 16명 등이다.

지난해 9월 전국 12개 소년원에 컴퓨터애니메이션, PC수리, 컴퓨터그래픽 등 고급과정이 생긴 뒤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거나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더욱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6개월 미만의 보호처분을 받은 원생들의 경우 "쓸만한 자격증을 따려면 6개월은 너무 짧다"고 하소연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년원측도 과거 몸이 아픈 경우에만 적용하던 출원연기를 석달 정도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 12개 소년원에서 진행 중인 주 40시간의 실용교육은 외국어 강사 25명과 대학교수급 컴퓨터 강사 1백98명이 맡고 있다.

이처럼 소년원 교육이 '관찮은 수준'으로 알려지자 최근엔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세명이 스스로 소년원행을 택한 사례도 생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성화교육 위주로 편제를 바꾼 뒤 대학 진학 36명, 취업 5백65명 등 이전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2001년 3월 27일자>

소년원생에 IT분야 창업교육 실시 ... 서울중기청-법무부

서울중소기업청(청장 정규창)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6월12일까지 한 달간 전국 11개 소년원을 순회하며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IT)분야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창업교육은 14일 안양소년원을 시작으로 16일 춘천, 18일 충주, 22일 대덕, 24일 대전, 25일 청주, 6월1일 광주, 6월4일 대구, 6월8일 전주 부산, 6월12일 제주에서 각각 실시한다. 이 교육은 소년원생들이 출원한 뒤 젊은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 정보기술(IT) 및 소호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들이 출원한 후 1대1 창업상담을 실시,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인큐베이터 입주도 앞선해주기로 했다.

<hackersnews 2001년 5월 12일자>

소년원생 7명, 30일 벤처 창업식 가져

문제가로만 여겨졌던 소년원생 7명이 당당하게 벤처기업인으로 변신해 화제다.

법무부는 30일 경기도 안양시 금강벤처텔에서 소년원 재학생과 퇴원생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바인텍 창업식을 갖고 '소년원 출신 벤처1호'의 달을 올렸다. 44평 공간에 꾸며진 회사는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개발, PC수리, 전자출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미 5건의 수주를 받아 이날창업식이 있기 전부터 제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사업초기인 만큼 회계나 인사 등 관리행정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외주시키고 향후 전략적 기술 제휴 등으로 사업규모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인으로 변신한 10대들은 그동안 소년원에서 실용영어, 컴퓨터 등 특성화교육을 충실히 받아왔다. 각종 경시대회 수상을 비롯해 IT(정보통신) 관련 자격증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내달 중순 퇴원 예정인 바인텍 대표 정백상씨(18)는 전국 중고생 PC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했고 컴퓨터관련 자격증만 4개 가지고 있을 정도다.

바인텍은 탄생하기까지 추진부서인 법무부는 물론 주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왔다.

소년보호직 공무원 복지재단인 '소년보호장학복지회'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총5000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했고 일부 독지가는 기기와 자재 등을 무상 제공했다. 특히 이들 소년원생 7명에게는 각각 2%의 주식이 제공됐으며 향후 스톡옵션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또다른 소년원생들을 이곳에 취업시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고 제2, 제3의 소년원생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업식에 나온 경씨의 김모씨(50)는 "소년원 퇴원후 아들의진로문제에 걱정이 많았는데 벤처업체 사장이 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아들이 그간 도와준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ckersnews 2001년 5월 31일자>

5)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소년원 교육의 혁신과 성공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년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들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현재의 교정교육과 생활지도 프로그램들이 원생들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로 현행의 특성화 교육은 기존 소년원 교육을 혁신한 점에서는 성과가 크나 단기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질적으로 심화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셋째로 가시적인 성과 및 실적위주의 교육에 집착하게 되어 원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심성훈련교육에는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넷째로 프로그램들에의 참여가 원생들의 자발성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집단적 처우중심의 교육이라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소년원법시행령 제15조는 "교정처우계획을 본인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자기 교정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시행령 제39조에서는 "원장은 보호소년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율성의 조장이 교정교육의 기본임을 규

정하고 있다. 소년원의 처우는 비록 강제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보호소년 스스로가 자기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정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 자기개선의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타율적인 성향의 교정은 그 성과가 있는 듯이 보이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행동의 교정이 아니므로 외부의 압력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소년이 사회부적응의 원인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려는 개선의 욕을 굳게 하는 한편, 장점을 신장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 강하고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보호소년 각자가 본질적으로 독자적이며 자유스러운 존재로서 자기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의 의지로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임을 깊이 자각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소년원처우의 원리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보호소년 개개인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화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원생들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들의 관심과 흥미, 요구 등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호 소년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정책 방향

1) 소년원 수용의 회피와 사회내처우의 도입

개선가능성이 풍부한 소년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내에서의 자력갱생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기존의 사회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원을 비롯한 시설내처우는 채택처분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비행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목적은 종전의 환경으로부터 소년을 분리시킴으로써 갱생을 돕는 데에 있지만, 소년은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하여 통상의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통학하던 학교생활이 중단되고 친구를 일시적으로 잃는 등

사회내에서의 생활이 중단되는 것은 소년에게 큰 불이익이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경쟁에 불이익을 받는 낙인효과와, 시설의 다른 소년으로부터 범죄수법을 전수받거나 퇴원 후에 나쁜 친구를 만나 비행성이 더 높아지는 등 시설수용에 의한 폐해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비행·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원같은 시설내 처우보다는 지역사회로 돌려보내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사회내처우를 적극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내처우는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 두어 교정처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현재 다른 유럽국가와 일본에서 이를 도입,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범죄인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를 형사사법에 제도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기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이제상, 1995).

2) 소년원의 자리매김과 교육기관적 성격의 주지

소년원 수용과 같은 시설내처우를 회피하고 사회내처우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년원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으로서 기피해야 할 것이다.

소년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구금하는 사법기관으로 보는 관점과 교정처우를 행하는 교육·복지기관적 성격으로 보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 수용은 사법으로만 순화시킬 수 없으며, 그렇다고 교육만으로도 순화시킬 수 없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며, 따라서 소년원은 사법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진 기관인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인식은 소년원을 소년교도소로 오해하고 소년원이 가진 교육적 기능을 몰이해하는 경향이 많으며, 소년사법의 전문가 중에서도 소년원 수용의 역기능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당해 소년의 갱생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엄격한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교사와 인간적인 정을 나눔으로써 갱생의 길로 전환하는 소년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소년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수용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낳으며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년사법 관계자들은 소년원이 가지는 교육기관적 성격을 올바르게 주지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년원에 들어가면 비행소년들만 있으니까 더욱 아이가 나빠질 거라고 걱정하는 부모가 있다. (하지만) 병자들만 있으니까 병이 옮길 것이라고 해서 입원하지 않는 병자가 있을까? 병원은 살균 소독하여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이다. 물론 병원에 갔다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소년원에서도 고관 몰래 나쁜 일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원은 그것을 뛰어넘어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소년에게 깨우치는 시설이다.소년원을 나온 소년 10명 중 3명이 또다시 나쁜 일을 하지만, 나쁜 일을 하면 다시 들어가면 될 것이다. 두 세번 들어가면 대부분의 소년은 좋아진다. 병원도 수 차례나 입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菊地明, 2000:147-148).

3) 개별처우의 강화

집단으로 행하는 지도만으로 생활지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므로, 개별지도, 즉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지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집단지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되돌아오는 것은 개인인 것이다.

과거 범죄자는 시민의 대립자로서 단죄나 처벌의 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제도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나 범죄자를 「個의 확립」

「個의 자립」을 촉진시키는 지원의 대상으로 보기까지 발달하여 왔다. 이는 국가와 그 구성원인 시민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범죄자를 기본권을 가진 「인간」이라고 본질적으로 인정함을 표명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소년원법 제39조는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율성의 조장과 자기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과 자기문제 해결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교정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 스스로 사회부적응의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개선의욕을 굳게하는 한편, 장점을 신장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 강하고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자율성의 조장은 집단처우에 있어서는 한계를 떨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년에게 보다 개별적인 처우를 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소년원법시행령 제15조 2항은 “개별교정처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보호소년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며, 개별교정처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 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자기 교정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자율성과 개별처우 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규율과 규칙이 자세하고 많으며 암기사항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자신이 왜 소년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자발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없다. 소년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교정교육과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소년의 자발성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집단적 처우중심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소년원의 획일적 처우는 국제준칙의 규정에 위반된다(澤登俊雄/比較少年法研究會, 1991:141).

소년은 각자가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직 성장과정에 있다. 따라서 소년의 수요에 적합한 개별처우가 행해져야 하며,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개별적으로 처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원, 예산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행소년의 교육에 그만큼의 자원을 투입할 용의가 있는지,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4)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개인주의의 팽배와 경쟁사회의 격화로 인하여 비행청소년을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이며, 남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녀의 문제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비행청소년의 갇힘은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의 협력에 의한 프로그램이 처우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도 검증되고 있다. 미국은 청소년범죄자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낙인을 지우지 않고 필요한 통제가 가능한 절차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의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청소년범죄자들을 전통적 사법제도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청소년 봉사기관으로 청소년봉사국을 설치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을 집 가까이서 비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세토(瀬戸)소년원에서는 세토(瀬戸)가 도자기 명산지임을 이용하여 원생들에게 요업(窯業)교육을 시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것도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5) 계속적인 교육기회의 부여

소년원의 교과교육은 단지 졸업장의 취득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 이후 계속적으로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를 소년에게 부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국제연합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제38조는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에 있는 모든 소년은 자신의 니즈와 능력에 적절하고 사회복귀의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교육은 석방 후 소년이 계속해서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소년구금시설 밖의 지역사회 내의 학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교사에 의해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을 퇴원하여 사회에 복귀한 이후 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년원에서의 교과교육 도중에 중도 퇴원하는 원생들에게 일반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년원 수용기간의 공백을 극복하고 학교 수업에 적응할 수 있는 소년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를 퇴원한 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단기처우에 대한 교육방침의 정립

현행 교정교육은 생활지도, 교과교육, 직업훈련의 세가지를 기둥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소년을 육성시킬 것을 이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부모의 입장에서 소년을 육성한다는 이른바 국친사상(國親思想)에 뿌리를 둔 것이다.

그러나 수용기간이 짧은 단기처우의 경우에는 육성 중시의 교육사상에

서 생활교육에 중점을 두는 훈련 중시의 사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행 교정교육은 소년의 지적능력, 노동능력의 향상 등 전인격의 발달로 비행성을 해소할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간이 짧은 단기처우의 경우에는 실시되는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이 기껏 보수교육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처우에 있어서는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지도 및 도덕의식의 함양에 중점을 두는 훈련형 교육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처우 과정은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퇴원한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소년에게 교육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시로 입·퇴원하기 때문에 적절한 집단형성이나 그에 따른 집단지도, 집단을 이용한 훈련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단기처우 과정은 정신적인 훈계나 비행에 대한 징계로 호를 위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낮은 연령과 자질·능력의 부족 등 훈련적응능력이 부족한 소년에게 단기라고는 하지만 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처우를 받는 소년에게 사회의 요구수준과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대상자의 선택과 적절한 교육방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훈련이 징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충실이 단기처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守屋克彦, 1998:215-216).

7) 자원봉사자의 활용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많은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교정공무원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등 전문인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년들에게 시대적 변화에 따른 비행요인을 제거해 주는 한편, 지역사회에 비행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고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원 봉사자의 활용은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카운슬링 분야와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 등에서 큰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발명요령강의 소년원생 호응 좋아

"앞으로 계속해서 소년원생들에게 '발명하는 요령'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대한변리사회 서상욱 회장은 지난달 29일 안양소년원(경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 원생 130명을 대상으로 가진 '발명하는 요령'에 대한 강의를 통해 "원생들로부터 호응도가 너무 좋아 앞으로 이 같은 교육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대한변리사회 소속 조철현 변리사가 맡았다. 조 변리사가 2시간동안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발명 아이디어 발상기법', '산업재산권제도의 소개' 등을 사례중심으로 강의, 원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조 변리사의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가슴 조이며 지켜보던 서 회장의 근심은 결국 안도의 웃음으로 변했다. 서 회장은 "발명, 특허, 그러면 우선 너무 딱딱하게 보여 소년원생들이 강의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무척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첫 교육에서 예상외로 소년원생들의 관심과 열기로 고심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따라서 서 회장은 오는 31일 있을 예정인 서울소년원에서의 교육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면서 사회봉사활동과 기술개발인구저변확대 차원에서 원생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변리사회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강의 교재와 강의 방법 등을 연구해 원생들을 교육할 경우 이들의 숨은 재능을 발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며 "변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2001년 7월 5일자>

8) 외국인소년의 처우과정의 신설 및 정비

에킨대 일본은 1993년 법무부 훈령(法務省矯教第1183號 法務省矯正局長依命通達 「『少年院の運営について』の一部のかいせいについて」)에 의해 외국인소년의 처우과정을 신설하였다. 일본에서는 우리의 소년분류심사원에 해당하는 소년감별소에 수용되는 외국인소년이 매년 약 300명에 달하며, 외국인소년의 소년원송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도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이는 머지 않아 소년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소년의 처우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첫째로, 먼저 퇴원후의 생활설계에 따른 처우과정의 충실화이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교정처우의 목적은 원활한 사회복귀에 있다. 소년이 퇴원후 계속 국내에 「장기체재」할 것인가, 「강제퇴거」될 것인가에 따라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은 달라진다. 자국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모국어를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최소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도 이해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정직원의 노력에 달려있지만, 향후 「코스」별로 유형화하여 조직적이고도 집중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성적평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외국인소년이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가 “풍속습관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년 자신의 문제성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존중”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정직원이 외국어를 습득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갖고서 인권과 문제에 대해 인식을 깊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교정직원의 국제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내용의 충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조직적이고도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정은 직원과 수용자의 심적인 연결을 소중히 하고 대상자에게 공정하면서도 부모의 입장에서 지도·원조하는 처우풍토였다. 또한 소년교정은 집단생활을 전통적인 교육원리로 해오고 있으나, 다양한 국적의 소년이 과연 집단생활에 적응할 것인지, 그렇다면 개별처우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인지, 언어로 나타내지 않는 묵시적인 이해와 처우가 통용될는지 등 문제를 낳는다. 그러나 교정직원 개개인의 인간성(사랑)은 물론, 말하자면 「조직적인 성의」가 소년과 교정직원(시설)의 신뢰관계를 쌓는다. 「교육」뿐만 아니라 「처우」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5. 제언 : 소년사법과 복지사법

1) 사법과 사회복지

사법은 본래 「법규를 적용하여 어떤 사건의 적법·위법 또는 이를 규정하는 권리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쟁송(爭訟)을 해결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사법적 해결은 사회의 논리를 밑바탕에 갖고 있는 해결이며, 구체적인 해결은 국가의 권위 내지 실력을 배경으로 한 수직관계가 되기 쉽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적인 해결·완화는 개인의 객관적 필요(needs)나 자기결정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논리를 밑바탕으로 한 해결이기 때문에 수평관계가 된다. 이렇듯 양자는 일견 물과 기름의 관계이며 그 관계를 논하는 것까지도 논외라고 보기 쉽다.

2) 규범적 해결과 실체적 해결

사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는 국가와 개인의 분쟁인 범죄사건(비행사건)을 보면 일목요연하다. 비행은 소년에 의한 국가의 행위규범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해 범죄(비행)사건으로 보고 사법활동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그 사법과정에서 단지 행위의 외형이나 법적 평가에 기초하여 그에 걸 맞는 일정한 제재가 집행되었다 하더라도(규범적 해결), 그것만으로 그 비행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소년법은 소년사법이 모든 소년의 건전육성 사업의 일환임을 천명하고 있으며(소년법 제1조), 비행문제를 해결·완화시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오늘날 비행문제의 해결·완화는 교육 내지 사회복지사업의 과제이지만, 일단 사건화된 이상 사법을 떠나서 추진할 수는 없다. 이렇듯 양자의 관계는 내적·상호적이다.

문제의 해결·완화가 사법의 과제로서 제기될 때, 사법은 법의 정신에 따른 법적·규범적 해결을 기본임무로 함과 동시에, 그 규범적 해결이 사회적 사실로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자체의 해결·완화, 즉 문제의 실체적 해결과 일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유연한 절차를 창출한다. 이는 실체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면서 「실체적 해결」이 법의 정신에 따른 것임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규범적 해결」은 「실체적 해결」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상호작용적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사법과 복지」에서 「사법복지」로의 전진이다(山口幸男 「司法福祉の發展」 6-7).

3) 사법복지에 대한 이해 필요

소년원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송치처분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소년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적 치료조치로서 범죄의 책임을 묻는 형벌이나 범죄방지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교교육이나 보호적 상황의 개선을 의도하는 복지적 조치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소년사법 과정에서 규범적 해결과 함께 사회복지를 보충하거나 결합하여 사법과정의 동태성 속에서 전개되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실체적 해결·완화를 꾀할 수 있는 복지적 시책, 즉 「사법복지」가 요구되는 시대에 있다.

현행 소년법은 모든 소년의 심신을 건강한 소년으로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법원을 중추로 하여 보호·교정·복지·교육기관 등과의 팀웍에 의한 인간적·과학적 문제해결에의 노력과, 시민이 이 사업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는 법의 기본구조는 그야말로 사법복지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소추기관의 권한·책임의 한정과 소년의 자유권 보장 등을 포함한 「사법주의」

「전건송치주의」 「교육·복지주의」 「시민참가」 등은 이러한 기본구조의 특색을 표현한 것이다. 물론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법의 정신에 따른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사법복지는 단순한 범죄억제·범죄통제를 근저적 가치로 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법에 대해 과제를 제기하는 각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이 갈구하는 문제해결·완화를 달성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발달해 온 종합적 사업이다. 국민이 모든 사법과정에서 진정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이것이야말로 사법에 요구되고 있는 휴머니즘이자 가치일 것이다. 소년사법도 그 예외가 아니다(山口幸男 「司法福祉の發展」 14-16).

현재 일본의 사회복지·아동복지 학과를 둔 대학이나 학부에서는 「사법복지론」 과목이 정규 교과목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복지」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입장이며, 특히 법률가·법학자의 경우에는 복지적인 관점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도 법률가·법학자가 사법복지의 이론적·경험적 축적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 복지학자로서 사법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법적 이해가 훨씬 앞서 있다(前野育三 「司法福祉論と少年法」 18-19). 향후 우리도 사법복지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이해를 깊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 백

IV. 소년원 보호소년의 생활세계와 복지욕구

1. 설문조사 결과분석
2. 면접조사
3. 전문가 의견조사

공 백

IV. 소년원 보호 소년의 생활세계와 복지욕구

향후 소년원 수용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소년원 보호 소년의 복지욕구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재 전국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생활실태와 심리를 비롯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구와 개인의 문제점 극복과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들만의 특수욕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설문조사는 소년원 교사의 지휘 하에 실시하고, 심층면접은 조사대상자와 이미 라포(rappo)가 형성되어 있는 소년원에 재직중인 전문교사를 활용하여 조사진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최대화하였다.

한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직중인 학과 및 직업훈련 교사, 상담교사 등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교정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범죄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설계 및 복구욕구 영역

(1) 조사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생 현원 2,150명 중 49%에 해당하는 1,056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소년원별로 50%를 할당하였다. 전국의 12개 소년원 중 여자 소년원은 유일하게

안양소년원 뿐이었으므로 현원 114명 가운데 6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여자의 응답비율이 6%에 못 미치는 것이 본 조사의 한계임을 밝혀둔다.

<표 IV-1> 소년원별 조사대상 인원

총인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안양	춘천	충주	제주
2,150	282	285	271	208	230	213	179	75	114	126	90	77
1,056	143	143	133	103	113	103	83	33	63	63	43	33

(2) 조사내용

본 조사의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복지욕구의 영역을 교육·진로, 지역 사회, 경제, 개인심리 및 가정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소년원에서의 학과교육, 검정고시, 취업 및 직업훈련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욕구와 보건·의료, 자원봉사,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 등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를 소년원생의 특수욕구로 보았고,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욕구와 여가·문화, 또래집단, 자아 등 개인심리적 욕구를 일반적으로 갖을 수 있는 보편적 욕구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법무부 관련 공무원 및 소년원 재직 교사 등 현장 전문가와 관련학과 교수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의 조사 영역 및 세부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표 IV-2> 복지욕구 조사 영역 및 세부 설문영역

복지욕구 영역		설문영역	세부 설문영역
		일반문항	- 성별 - 연령 - 학력 - 소년원 입원기간 - 입원 전 직업 - 부모 - 입원경위 (죄명, 처분 및 심판, 소년원 수용에 대한 의견, 재범예측)
		특수욕구	-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 희망 교육분야 - 필요한 교육내용 - 소년원 교육에 대한 의견 - 교사에 대한 욕구 - 학과교육 이해도
	교육·진로	취업 및 직업훈련 욕구	- 소년원 직업교육에 대한 의견 - 희망 직업훈련 - 직업훈련교육과 적성 - 취업가능성 및 취업의 장애 - 직업교육의 필요성 - 퇴원 후 진로 및 희망분야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 희망 사회복지 서비스 - 청소년관련 시설 (인지도 및 이용경험, 희망하는 시설 등) -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의사, 희망분야 등) - 기성세대에 대한 요구
	경제적 자립	보건·의료 욕구	- 현재의 건강상태 - 치료비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희망	- 경제적 어려움 - 경제적 도움이나 후원자에 대한 희망 - 장학금, 생활비 지원 - 주택지원 및 개조
	가정	경제적 자립 욕구	- 경제적 자립 - 독립된 주거공간 - 아르바이트 경험 - 퇴원 후 거처
		가족에 대한 희망	-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것 - 부모에 대한 동일시 - 부모에 대한 대체 욕구
	보편적 욕구	가족문제 해결 욕구	- 가족간의 갈등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자아에 대한 욕구	- 자아만족도 및 변화욕구 - 미래관 (미래에 대한 희망)
		또래집단	- 친구에 대한 동일시 - 비행친구에 대한 인식 - 문제 의논대상으로서의 친구
		개인문제 해결 욕구	- 개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상담에 대한 요구 (상담경험, 희망상담 분야 등)
	여가활동 지원	여가활동 지원	- 여가시설 활용 - 여가활동 비용 - 용돈 (용돈규모, 만족도, 지출용도 등) - 가장 갖고 싶은 물건

2) 조사대상자의 개인심리적 배경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는 기준으로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소년원 수용 기간, 소년원 수용 전의 직업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남녀별 구성비율은 총 응답자 1,036명 중 남자 975명, 여자 61명으로 남자는 전체의 94.1%에 달하고, 여자는 5.9%이다.

연령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18세 이상이 전체의 63.8%로 가장 높고, 16-17세 28.5%, 14-15세 6.8%, 12-13세 1.0%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학교 중퇴가 43.2%가 가장 높고, 다음이 고등학교 중퇴로 29.0%이며, 중학교 졸업 12.2%, 중학교 재학 6.7%, 고등학교 재학 4.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퇴생이 전체의 72.2%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학교 중도탈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학 및 진학지도 혹은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훈련 교육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소년원에 수용되었던 기간은 6개월 이하가 53.4%로 가장 많고 7-12개월이 30.5%에 달했다. 이는 1년 미만이 전체의 83.9%를 차지하는 수치로서 보호처분 6호(6개월)와 7호(1년)를 선고받은 청소년이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다수 청소년의 소년원 수용기간은 6개월-1년 정도가 된다. 한편, 1년 이상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6.1%에 달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수용기간이 만료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와 혹은 재범 청소년이 이전의 수용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응답한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3>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12-13세	14-15세	16-17세	18세 이상	계
응답률(%)	1.0	6.8	28.5	63.8	100.0
(빈도수)	(10)	(69)	(290)	(650)	(1,019)

<표 IV-4>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

교육정도	무학	초중퇴	초졸업	중중퇴	중재학	중졸업	고중퇴	고재학	대재학	계
응답률(%)	0.8	1.0	2.1	43.2	6.7	12.2	29.0	4.8	0.2	100.0
(빈도수)	(8)	(10)	(22)	(443)	(69)	(125)	(298)	(49)	(2)	(1,026)

<표 IV-5> 소년원 수용 기간

기간	6개월이하	7-12개월	13-18개월	19개월이상	계
응답률(%)	53.4	30.5	15.1	1.0	100.0
(빈도수)	(537)	(307)	(152)	(10)	(1,006)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의 직업으로는 무직(44.3%)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20.6%), 음식점 종업원(14.5%), 닥치는대로 일함(11.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도탈락한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떠돌아 다니다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임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로써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부모가 생존해 있고 함께 살았다고 응답한 원생은 36.2%였고, 나머지 대다수의 원생들은 이혼, 별거, 편부모, 계부모 등 구조적으로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7 참조>. 양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와 친척 혹은 양부모 집에서 살았다는 경우도 8.6%에 달해 이들을 위한 가정의 지원력은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IV-6> 소년원 수용 전 직업

직업	학생	공장 직원	점원	음식점 종업원	신문 배달	닥치는대 로 일함	직업 없음	계
응답률(%)	20.6	5.7	2.4	14.5	1.2	11.2	44.3	100.0
(빈도수)	(212)	(59)	(25)	(149)	(12)	(115)	(455)	(1,027)

<표 IV-7> 소년원 수용 전 부모와의 관계

현상태	부모생존 부모동거	부모생존 부모이혼	부모생존 부모별거	부사망 모와동거	모사망 부와동거	부모 중 모는계모	부모 중 부는계부	부모사망	친척, 양 부모동거	계
응답률(%) (빈도수)	36.2 (375)	18.5 (192)	8.2 (85)	8.4 (87)	5.1 (53)	11.9 (123)	3.1 (32)	3.7 (38)	4.9 (51)	100.0 (1,036)

(2) 소년원 입원 경위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교육 및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 원생들이 소년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았다.

소년원에 오게 된 이유 중, 특수 절도가 35.4%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폭력·상해(20.8%), 절도(8.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절도로 인해 소년원에 오게 된 비율은 44.0%로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원생들이 절도로 소년원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원에 오게 된 경위는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소년원에 오게 된 이유로 특수 절도가 36.9%, 폭력·상해가 20.2%, 절도가 8.2%에 이른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폭력·상해의 비율이 31.3%로 남자의 경우보다 약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여자 청소년의 범죄가 폭력화되어 가는 추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자의 경우 보호관찰법위반이 17.2%, 유해화학물 흡입과 절도가 12.5%를 나타내고 있다. 유해화학물 흡입의 경우 남자는 2.2%에 불과해 여자들이 유해화학물 흡입으로 소년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남자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특수 절도의 비율은 10.9%에 그쳐 남자보다 26%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특수 절도의 경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상해의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수 절도의 경우 12-13세 63.6%, 14-15세 41.3%, 16-17세 43.2%, 18세 이상은 30.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12-13세와 18세 이상

은 약 30%가 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폭력·상해의 경우는 12-13세 9.1%, 14-15세 12.0%, 16-17세 17.4%, 18세 이상은 23.4%로 나타나, 12-13세와 18세 이상의 비율 차는 약 15% 정도에 이른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소년원 입원 경위의 차이는 교육 정도와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교육정도에 따라 소년원에 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특수절도의 경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폭력·상해의 경우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정도가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년원생 중 나이가 어린 원생들은 당연히 교육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정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과 교육 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IV-8> 소년원에 오게 된 이유

	점유 이탈물 형량	절도	특수 절도	강도	특수 강도	폭력 상해	강간	유해 화학물 흡입	보호 관찰 위반	기 타	전 계
전 계(%)	43	86	354	73	41	208	36	28	42	89	100.0
(빈도수)	(49)	(97)	(401)	(83)	(47)	(236)	(41)	(32)	(48)	(99)	(1133)
성 별											
남자	46	82	369	78	43	202	38	22	35	83	100.0
여자		125	109		16	313		125	172	140	100.0
연 령 별											
12세-13세			636	91		91			182		100.0
14세-15세	80	53	413	120	13	120	53		67	80	100.0
16세-17세	75	47	432	56	34	174	37	50	16	80	100.0
18세 이상	27	111	307	75	48	234	36	23	48	91	100.0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45	23	386	91	45	91	68	45	68	136	100.0
중학교 졸업이하	46	87	369	63	32	199	32	31	46	93	100.0
고등학교 중퇴이상	36	90	317	90	57	243	38	22	33	73	100.0

(3) 처분 및 심판에 대한 의견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처분이 어떠했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적당하다’고 응답한 원생들이 50.4%로 과반수에 가까운 원생들이 잘못에 대한 처분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잘못에 비해 오히려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원생들도 15.8%에 달했으나, 반대로 부당하다

고 생각하는 원생들도 33.8%에 달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원생들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원생들의 두 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에 대한 생각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51%, 여자는 39.3%로 약 10%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원생 중 남자의 비율은 16.2%, 여자는 9.8%,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원생 중 남자는 32.8%, 여자는 50.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는 유의도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자보다 여자들이 현재의 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50.8%)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9.3%)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9> 현재의 처분에 대한 수용 정도

		아주 가볍다	예상보다 가볍다	적당하다	좀 지나치다	전혀 부당하다	전 체
전 체(%)		45	113	504	303	35	1000
(빈도수)		(47)	(117)	(523)	(315)	(36)	(1038)
성 ¹⁾ 별	남자	48	114	510	296	32	1000
	여자		98	393	426	82	1000
연 ²⁾ 령 별	12세-13세	100	200	600	100		1000
	14세-15세	43	116	507	304	29	1000
	16세-17세	31	100	500	321	48	1000
	18세 이상	51	118	498	305	28	1000

1) $\chi^2=11.947$ $P< .05$ 2) $\chi^2=8.398$ $P< (.753)$

연령별로 살펴보면, 12-13세의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0%로 다른 연령대 보다 약 10%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볍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30.0%에 이른다. 이것은 다른 연령대에서 ‘가볍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5% 내외인 것에 비추어볼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12-13세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5.0% 내외인데 비하여 12-13세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0%에 불과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자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가,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처분 및 심판에 대한 불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심판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원생들이 39.1%, 별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원생들은 33.5%에 이른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원생이 40.6%,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원생이 32.5%이며, 여자의 경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원생은 14.8%,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원생은 절반에 가까운 49.2%에 달한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유의도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10> 법원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그렇다	공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공정 하지 못하다	절대 불공정하다	전 체
전	체(%)	172	219	274	265	70	100.0
	(빈도수)	(179)	(227)	(284)	(275)	(73)	(1038)
성 ¹⁾	남자	179	227	269	258	67	100.0
별	여자	66	82	361	361	13.1	100.0

1) $\chi^2=17.246$ $P< .01$

이와 같이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의 비율은 현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의 비율이 50.8%에 이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여자 원생들은 현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의 심판이 불공정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년원 수용에 대한 의견

소년원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못에 대한 당연한 처벌로 생각하는 원생은 63.6%, 징역살이와 마찬가지로 대답한 원생이 12.8%,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생이 18.5%, 억울하다가 3.0% 였다.

<표 IV-11> 소년원 수용에 대한 의견

		잘못에 대한 처벌이다	징역만도 못하다	징역살이와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억울하다	전 체
전 체(%)		63.6	2.0	12.8	18.5	3.0	100.0
(빈도수)		(659)	(21)	(133)	(192)	(31)	(1036)
성 ¹⁾ 별	남자	64.3	2.2	12.3	18.7	2.6	100.0
	여자	53.3		20.0	16.7	10.0	100.0

1) $\chi^2=15.508$ $P<.01$

소년원 수용에 대한 의견에서도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잘못에 대한 처벌이다’ 64.3%, ‘징역살이와 마찬가지이다’ 12.3%,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18.7%, ‘억울하다’ 2.6% 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잘못에 대한 처벌이다’ 53.3%, ‘징역살이와 마찬가지이다’ 20.0%,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16.7%, ‘억울하다’ 10% 이다. 여기서 ‘잘못에 대한 처벌’의 남녀간 차이는 약 10%, ‘징역살이와 마찬가지이다’ 약 8%, ‘억울하다’ 약 8%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소년원 수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자청소년의 경우가 남자청소년보다 처분이 부당하고, 법원의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며, 소년원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재범예측

퇴원 후 재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가 ‘재범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모르겠다’는 14.2%,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가 79.0%에 달해 대다수의 소년원생이 재범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교육 정도에 따른 재범 예측은 유의도 0.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으며, ‘잘 모르겠다’는 불확실한 답의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재범하지 않

겠다'는 비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75.0%, 중학교 졸업이하에서 74.4%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등학교 중퇴이상의 경우 87.0%가 재범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사를 밝힌 원생의 비율도 교육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12> 퇴원 후 재범 예측

	확실히 재범 할 것이다	재범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재범하지 않을 것 같다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1.1 (11)	5.8 (60)	14.2 (147)	21.8 (226)	57.2 (593)	100.0 (1037)
교 ¹⁾ 초등학교 졸업이하		75	175	275	475	100.0
육 중학교 졸업이하	16	74	166	20.1	54.3	100.0
정 고등학교 중퇴이상	0.3	29	98	24.4	62.6	100.0

1) $\chi^2=25.513$ $P<.005$

3) 교육·진로에 대한 욕구

(1)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희망 교육분야

①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현재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가 31.5%, '만족하지 않는다'가 10.1%로 나타나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남자의 경우 '만족한다' 60.2%, '보통이다' 30.2%, '만족하지 않는다' 9.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31.7%에 그치고 있으나, '보통이다'가 51.7%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족하지 않는다'는 16.7%로 불만족도가 남자보다 약 7% 정도 높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자청소년의 만족도가

남자청소년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난 것은, 죄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과 심판의 불공정성 및 소년원 수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3> 소년원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18.2 (188)	40.3 (416)	31.5 (325)	7.2 (74)	2.9 (30)	100.0 (1033)
성 ¹⁾ 별	남자	18.7	41.5	30.2	6.9	2.7	100.0
	여자	10.0	21.7	51.7	10.0	6.7	100.0

1) $\chi^2=20.043$ $P<0.01$

②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첫째 직업교육(35.3%), 둘째 진학교육(21.6%), 셋째 상담(11.4%), 넷째 특별활동교육(10.3%)이라 응답하였다. 절반이 넘는 원생들이 직업교육과 진학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퇴원 후의 생활과 미래의 진로 및 자립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로 하는 교육은 남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직업교육(36%), 진학교육(20.8%), 상담(11.6%) 순으로 꼽고 있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 진학교육(34.4%), 직업교육(26.2%), 여가교육(9.8) 순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원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우선 순위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남자보다 여자가 학교진학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교육은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도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직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도덕교육, 반성생활 지도교육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12-13세의 경우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도덕

교육(30%)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연령이 낮기 때문에 미래의 생활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등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4-15세, 16-17세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진학교육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이 연령대가 한국 사회에서는 대다수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이 연령대의 취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 교육보다는 진학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측은 16-17세보다는 좀더 어린 14-15세 원생들이 진학 교육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서 잘 나타난다. 18세 이상의 경우 직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4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20%정도 더 높다. 18세 이상의 경우는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이며, 미래의 진로, 접근 가능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진학보다는 직업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14>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진학 교육	직업 교육	여가 교육	도덕 교육	특별활동 교육	반성생활 지도교육	상 담	기 타	전 체
전	체(%) (빈도수)	216 (224)	353 (366)	51 (53)	48 (50)	103 (107)	95 (98)	114 (118)	19 (20)	1000 (1036)
성 ¹	남자	20.8	36.0	4.8	5.0	10.6	9.7	11.6	1.5	100.0
별	여자	34.4	26.2	9.8	1.6	6.6	6.6	8.2	6.6	100.0
연 ²	12-13세	10.0	20.0		30.0	20.0		10.0	10.0	100.0
령 ²	14-15세	34.8	23.2	7.2	5.8	7.2	13.0	7.2	1.4	100.0
별	16-17세	29.8	24.9	5.5	5.2	11.4	11.1	11.1	1.0	100.0
	18 이상	17.1	41.4	4.9	3.9	10.2	8.5	12.0	2.0	100.0
교 ³	초등학교 졸업이하	15.0	25.0	2.5	7.5	22.5	15.0	7.5	5.0	100.0
육 ³	중학교 졸업이하	22.0	35.3	3.8	5.8	10.5	9.7	11.1	1.7	100.0
정 ³	고등학교 중퇴이상	21.3	36.8	7.8	2.6	8.9	8.0	12.6	2.0	100.0

1) $\chi^2=20.615$ $P<.01$ 2) $\chi^2=68.083$ $P<.001$ 3) $\chi^2=26.966$ $P<.05$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응답자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이

하 25.0%, 중학교 졸업 이하 35.3%, 고등학교 중퇴이상 36.8%가 소년원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③ 소년원 교육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

소년원 교육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첫째, 자격증 취득(27.9%), 둘째, 학교진학·검정고시(20.3%), 셋째, 직업지식기술(16.9%), 넷째, 편안한 마음(15.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15> 현재 받고 있는 교육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

		인격향상	학교진학 검정고시	직업지식 기술	자격증 취득	편안한 마음	이곳을 나가고 싶다	전 체
전	체(%)	12.2	20.3	16.9	27.9	15.5	7.1	100.0
(반도수)		(127)	(211)	(175)	(289)	(161)	(74)	(1037)
연령 별	12-13세	20.0		10.0	30.0	40.0		100.0
	14-15세	5.8	24.6	14.5	27.5	15.9	11.6	100.0
	16-17세	10.0	25.9	12.4	27.6	17.2	6.9	100.0
	18 이상	13.6	18.3	19.3	28.2	14.2	6.5	100.0

1) $\chi^2=27.489$ $P<.05$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2-13세를 제외하고 각 연령별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8세 이상의 경우는 '직업지식기술'(19.3%)이 '자격증 취득'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18세 이상의 원생 중 40%가 넘는 비율이 직업교육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선택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자격증 취득과 직업지식기술은 직업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내용이기 때문이다.

14-15세와 16-17세의 경우는 '학교진학 및 검정고시'에 대한 희망 비율(24.6%, 25.9%)이 '자격증 취득'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의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결과에서 14-17세의 연령대는 다른 교육에 비해 진학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12-13세의 경우 '편안한 마음'을 소년원 교육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으로 선택(40%)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2-13세의 나이가 아직 직업이나 진학을 비롯한 미래의 진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표 IV-14>에서 도덕 교육을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④ 교사에 대한 욕구

원생들은 자신이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하는지 질문하였다. 전체 빈도에서 ‘도움을 주실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고 응답한 원생은 전체의 82.5%로 매우 높게 나타나 대다수의 원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사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저 그렇다’고 중립적인 응답을 한 원생은 12.7%이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원생은 4.4%로 매우 낮았다.

한편, 소년원을 퇴원한 후에도 계속 돌봐주는 교사를 원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빈도에서 ‘그렇다’ 43.3%, ‘그저 그렇다’ 32.2%, ‘그렇지 않다’ 24.5%로 응답하였다.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원생들이 퇴원한 후에도 돌봐 줄 교사를 원하고 있지만, 원하고 있지 않은 원생들도 1/4정도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82.5%라는 대다수의 원생들이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교사를 원하고 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원생들이 원하는 것은 퇴원 후보다 소년원 안에서 도움을 줄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V-16> 교사에 대한 욕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실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	(%) (빈도수)	33.2 (344)	49.3 (510)	12.7 (131)	2.4 (25)	2.4 (25)	100.0 (1035)
퇴원 후에도 계속 돌봐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	(%) (빈도수)	14.7 (152)	28.6 (296)	32.2 (334)	13.4 (139)	11.1 (115)	100.0 (1036)

(2) 소년원 교육에 대한 의견

① 학과/직업교육의 이해도

학과교육 및 직업교육을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이해하지 못한다'가 9.2%, '잘 가르쳐 주면 될 것 같다'가 44.5%, '이해가 간다'가 41.7%, '학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4.7%로 나타나 85%가 넘는 대다수의 원생들이 교육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과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과, 직업 교육에서 남자 8.4%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23.0%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남녀간 약 15%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소년원의 학과 및 직업 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내용의 이해 정도는 교육내용의 만족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자원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보다 약 30%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3참조).

<표 IV-17> 소년원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반도 이해하지 못한다	잘 가르쳐 주면 될 것 같다	대체로 이해가 간다	아주 쉽다	학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전 체
전	체(%)	25	67	445	375	42	47	1000
	(빈도수)	(26)	(69)	(461)	(388)	(44)	(49)	(1037)
성 별	남자	23	61	440	384	43	49	1000
	여자	66	164	525	197	33	16	1000

1) $\chi^2=21.187$ $P<.01$

② 직업훈련 교육과 자신의 적성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소질에 맞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7.2%, '그저 그렇다'가 49.8%, '맞지 않는다'가 3.7%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

다'고 응답한 원생도 19.3%에 달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2-13세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원생이 60.0%에 이른다.

이처럼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적성에 맞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원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18> 직업훈련 교육은 소질에 맞습니까

	맞는다	그저 그렇다	전혀 맞지 않는다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27.2 (282)	49.8 (516)	3.7 (38)	19.3 (200)	100.0 (1036)
연령 별	12세-13세	40.0		60.0	100.0
	14세-15세	17.4	36.2	43	100.0
	16세-17세	24.9	42.9	24	100.0
	18세 이상	28.4	55.6	42	100.0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27.5	52.5	5.0	100.0
	중학교 졸업이하	28.8	45.0	3.3	100.0
	고등학교	24.7	57.5	4.0	100.0
	중퇴이상			13.8	100.0

1) $\chi^2=82.072$ $P<.001$

2) $\chi^2=19.185$ $P<.005$

소년원 교육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21.9%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 31.6%가 '그저 그렇다', 4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원생이 20%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생들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교육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

는데, 남자의 경우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는 34.4%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도와 관련이 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여자 원생의 경우, 만족도와 이해도에서도 남자보다 월등히 낮았다 (표 IV-13 및 IV-17참조).

③ 직업교육의 필요성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원생은 57.2%, 30.4%가 '그저 그렇다', 12.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원생들이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2-13세와 18세 이상은 약 2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12-13세의 경우 40%가 '그렇다'로, 14-15세는 46.3%, 16-17세는 54.4%, 18세 이상은 60%가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V-19>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186 (191)	386 (396)	304 (312)	77 (79)	47 (48)	1000 (1026)
연령 별	12세-13세	100	300	600			1000
	14세-15세	130	333	333	130	72	1000
	16세-17세	185	359	293	98	66	1000
	18세 이상	190	410	301	61	37	1000

1) $\chi^2=19.018$ $P<(.088)$

④ 직업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

소년원에서 보다 다양한 직업교육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원생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그렇다' 73.7%, '그저 그

렇다'가 19.9%, '그렇지 않다' 6.4%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다양한 직업 교육에 대한 희망정도 (남:74.1%, 여:67.2%로)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원생이 여자원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직업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직업 교육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아진다. 즉, 12-13세 50.0%, 14-15세 66.2%, 16-17세 72.0%, 18세 이상 75.9%로 12-13세와 18세 이상의 차는 25.9%에 이른다. 이것은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V-20> 다양한 직업교육의 제공에 대한 희망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37.3 (385)	36.4 (376)	19.9 (205)	3.7 (38)	2.7 (28)	100.0 (1032)
성 ¹⁾ 별	남자	37.9	36.2	19.5	3.7	2.7	100.0
	여자	29.5	37.7	26.2	3.3	3.3	100.0
연 ²⁾ 령 별	12세-13세	20.0	30.0	40.0		10.0	100.0
	14세-15세	45.6	20.6	26.5	4.4	2.9	100.0
	16세-17세	36.7	35.3	21.5	2.8	3.8	100.0
	18세 이상	37.0	38.9	18.3	3.9	2.0	100.0

1) $\chi^2=2518$ $P<(.641)$ 2) $\chi^2=18398$ $P<(.104)$

⑤ 희망 직업훈련

원생들은 희망하는 직업훈련 종목으로 '인터넷 등 정보분야' (59.7%)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운전 수리' (21.3%), '건축·목공' (6.5%), '영어, 일어 등 외국어' (5.9%)로 응답하여,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정보분야에 대한 선택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직업훈련에 대한 비율은, 남자의 경우 '인터넷 정보분야' 58.8%, '자동차 운전수리' 22.3%, '건축, 목공' 6.8% 순인데, 여자의 경우는 '인터넷 정보분야' 73.8%, '영어, 일어 등 외국어' 16.4%로 정보와 외국어 분야가 약 90%에 이른다.

<표 IV-21> 향후 희망 직업훈련

		인터넷 등 정보분야	자동차 운전 수리	전자제품 조립, 수리	건축, 목공	농사, 가축 사육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전 체
전	체(%) (빈도수)	59.7 (616)	21.3 (220)	4.8 (50)	6.5 (67)	1.7 (18)	5.9 (61)	100.0 (1032)
성	남자	58.8	22.3	5.1	6.8	1.8	5.3	100.0
별	여자	73.8	4.9	1.6	1.6	1.6	16.4	100.0
연령 별	12세-13세	70.0	10.0	10.0			10.0	100.0
	14세-15세	62.3	14.5	11.6	1.4	4.3	5.8	100.0
	16세-17세	65.2	18.8	5.2	4.2	0.7	5.9	100.0
	18세 이상	57.5	22.7	4.0	8.0	2.0	5.7	100.0

1) $\chi^2=26.043$ $P<.001$ 2) $\chi^2=26.900$ $P<.05$

약 90%에 이르는 여자원생들이 정보분야와 외국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므로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마련하는 하는 것이 필요함을 물론, 여자청소년들의 교육만족도와 이해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여자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등 정보분야'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고, '자동차 운전 수리'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분야에서 12-13세와 18세 이상의 비율차는 10%가 넘고 있다. 먼저, '인터넷 등 정보분야'는 현재 일반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에게 더 익숙한 매체이다. 따라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터넷 등 정보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⑥ 취업 가능성

소년원에서 받은 직업훈련교육의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3%가 '취업을 할 수 있다', 13.4%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24.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넘는 원생들이 취업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생각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았는데, 남

자의 경우 ‘취업 할 수 있다’가 63.2%이고, 여자는 52.1%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2> 취업 가능성에 대한 예측

		할 수 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전 체
전	체(%)	29.9	32.4	13.4	24.2	100.0
	(빈도수)	(288)	(312)	(129)	(233)	(962)
성 별	남자	30.6	32.6	13.4	23.5	100.0
	여자	19.3	31.6	14.0	35.1	100.0

1) $\chi^2=5.299$ $P<(.151)$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 원생의 경우 소년원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정도가 남자 원생에 비해 낮고, 직업훈련 교육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소년원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⑦ 취업의 장애

취업 가능성과 관련하여 원생들은 자신들이 취업하는데 있어 어떤 요소들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빈도에서 ‘실력과 경력이 부족하다’ 42.7%, ‘문제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31.3%로 취업에 대한 장애로 이 두 항목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통해서 원생들이 소년원의 직업 훈련만으로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30%가 넘는 원생들이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42.8%)와 여자(42.4%) 모두 ‘실력과 경력이 부족하다’를 취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선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낙인을 취업의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의 장애로 ‘실력과 경력이 부족하다’를 선택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문제아라고 생각할 것이다'를 선택하고 있다. 12-13세의 경우 60%에 이르는 원생들이 사회적 낙인을 취업의 어려움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반해, 18세 이상의 원생 중 46.1%는 실력과 경력의 부족을 취업의 어려움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에서 실력과 경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원생들의 사회적 낙인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인 노력이 이들의 원활한 사회재적응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IV-23> 취업이 어려운 이유

	문제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취직하고 싶지 않다	실력과 경력이 부족하다	부모가 반대한다	전 체
전 체(%)	31.3	9.5	14.6	42.7	2.0	100.0
(빈도수)	(303)	(92)	(141)	(414)	(19)	(969)
성 ¹ 남자	31.5	9.5	14.5	42.8	1.7	100.0
별 여자	27.1	10.2	13.6	42.4	6.8	100.0
연령 ¹ 12-13세	60.0	20.0	20.0			100.0
14-15세	39.2	11.8	13.7	31.4	3.9	100.0
16-17세	32.5	10.2	16.2	38.5	2.6	100.0
18 이상	29.8	8.7	13.8	46.1	1.6	100.0

1) $\chi^2=7.822$ $P<(.098)$ 2) $\chi^2=13.772$ $P<(.315)$

(3) 퇴원 후 진로

① 퇴원 이후의 진로 방향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40.8%의 원생들이 '취직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공부하겠다'는 37.2%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부하고 싶으나 후배들과 공부할 것이 문제이다'라고 응답한 원생도 13.6%에 이르러 원생들이 후배들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취직하겠다'가 42.1%, '공부하겠다'가 36.9% 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공부하겠다'가 42.6%, '취직하겠다'

가 21.3%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공부와 취업을 취업 후의 생활로 주요하게 선택하고 있지만, 그 순위에서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 원생의 경우는 취업을, 여자 원생은 학교진학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여자는 진학교육(34.4%)을 남자는 직업교육(36%)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표 IV-14 참조>. 이러한 성별차이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여자 원생의 경우 ‘공부를 하고 싶으나 후배들과 공부할 것이 문제이다’라고 응답한 원생이 19.7%로 남자 원생의 경우보다 약 5%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자 원생들이 남자들보다 후배들과의 인간관계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4> 퇴원 후 진로 의사

		공부하겠다	후배들과 공부할 것이 문제이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취직하겠다	부모님때문에 진학해야 할 것이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37.2 (386)	13.6 (141)	6.2 (64)	40.8 (423)	2.2 (23)	100.0 (1037)
성 ¹ 별	남자	36.9	13.2	5.6	42.1	2.2	100.0
	여자	42.6	19.7	13.1	21.3	3.3	100.0
연령 ² 별	12-13세	90.0			10.0		100.0
	14-15세	59.4	13.0	8.7	14.5	4.3	100.0
	16-17세	51.4	17.6	5.5	23.1	2.4	100.0
	18 이상	28.0	12.5	6.2	51.3	2.0	100.0

(1) $\chi^2=13.906$ $P< .01$ 2) $\chi^2=109.574$ $P< .001$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부하겠다’는 비율을 낮아지며, ‘취업을 하겠다’는 비율은 높아진다. 12-13세의 경우 ‘공부하겠다’는 90%의 비율을 보여 대다수의 원생들이 취업보다는 학업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낮아져 18세 이상의 경우 ‘공부하겠다’ 28.0%, ‘취직하겠다’ 51.3%로 절반 이상의 원생들이 학업보다 취업을 더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17세까지의 연령대는 ‘공부하겠다’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는데, 이

러한 비율은 이 연령대의 원생들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복학, 진학 여부는 유의도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② 퇴원 후 1년 이내의 목표와 희망

퇴원 후 1년 이내의 구체적 진로방향을 묻는 질문에 ‘직장, 취직’ 36.1%, ‘학교 복학’ 26.3%, ‘검정고시’ 15.1%, ‘자격증 취득’ 7.6%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자격증 취득’은 직장과 취업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학교 복학’과 ‘검정고시’는 학업이라는 측면에서 묶여질 수 있다. 따라서, 약 85%에 이르는 대다수의 원생들이 퇴원 후 목표와 희망을 취업과 학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IV-24>에서 80%에 가까운 원생들이 공부와 취업을 선택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성별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직장, 취직’이 37.9%, ‘학교 복학’ 26.1%, ‘검정고시준비’ 14.7%, ‘자격증 취득’ 7.6%에 이른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학교 복학’이 27.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검정고시준비’가 21.3%에 이른다. 반면 ‘직장, 취직’은 8.2%로 남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0%에 가까운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또한 여자의 경우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비율이 19.7%로 남자의 경우(6.9%)보다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학업에 대한 욕구가 더 크며, 직장, 취업과 같은 안정된, 그리고 지속적인 직업보다는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도 0.0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연령별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 복학에 대한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취직에 대한 비율이 높다. 즉 12-13세의 경우 ‘학교 복학’이 66.7%, 14-15세의 경우 50.7%, 16-17세의 경우 40.7%, 18세 이상의 경우는 16.8%의 수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경우는 47.6%의 원생들이 ‘직장, 취직’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IV-2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IV-25> 퇴원 후 1년 이내의 목표와 희망

		직장 취직	아르바 이트	학교 복학	검정고 시준비	자격증 취득	여행	집에서 쉬겠다	모르겠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36.1 (374)	7.6 (79)	26.3 (272)	15.1 (156)	7.6 (79)	3.9 (40)	1.5 (16)	1.9 (20)	100.0 (1036)
성 ¹⁾	남자	37.9	6.9	26.1	14.7	7.6	3.8	1.4	1.5	100.0
별	여자	8.2	19.7	27.9	21.3	8.2	3.3	3.3	8.2	100.0
연령 ²⁾	12-13세	11.1		66.7	11.1	11.1				100.0
별	14-15세	8.7	10.1	50.7	8.7	2.9	4.3	7.2	7.2	100.0
	16-17세	17.6	10.3	40.7	17.9	9.0	1.7	1.4	1.4	100.0
	18 이상	47.6	6.2	16.8	14.6	7.6	4.8	0.8	1.7	100.0

1) $\chi^2=42.508$ $P<.001$ 2) $\chi^2=180.968$ $P<.001$

4)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1) 희망 사회복지 서비스

소년원생들은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 알아보았다. 희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장학금 및 생활비, 주택 등 경제적 영역과 의료·보건 영역, 취업 및 직업훈련 영역 및 개인적인 생활과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심리적 영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소년원생들이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가장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는 취업정보 제공(76.6%)이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72.0%), 무료 건강검진(70.8%),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68.3%),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67.2%) 등도 희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약물예방 및 성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의 참여(56.6%)와 개인적·가정문제 상담(47.3%), 아플 때 치료비 지원(44.6%) 등은 과반수 정도의 원생들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희망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년원생들의 희망정도는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별 희망정도는 개인·심리적인 영역보다는 취업 및 직업훈련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이나 취업에 대한 소년원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표 IV-26>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 영역

사회복지 서비스 내역	도움을 받고 싶다	도움이 필요 없다	계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67.2	32.8	100.0
주택지원 및 개조	55.4	44.6	100.0
아플때 치료비 지원	52.7	47.3	100.0
질병상담	48.6	51.4	100.0
무료 건강검진	70.8	29.2	100.0
개인적, 가정문제 상담	52.7	47.3	100.0
진로지도 상담	54.0	46.0	100.0
학습지도(부족한 과목 지도, 검정고시 등) 및 생활지도	63.3	36.7	100.0
취업정보 제공	76.6	23.4	100.0
직업 훈련(컴퓨터 교육 등) 및 직업 알선	72.0	28.0	100.0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약물예방, 성교육 등) 참여권유	44.4	55.6	100.0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68.3	31.7	100.0

(2) 청소년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 및 이용현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수련시설(38.9%)과 청소년공부방(24.9%), 종합사회복지관(20.3%)을 제외한 시설의 이용도는 10% 내외로 매우 낮았다. 또한, 근로 청소년회관(49.2%)이나 청소년회관(40.6%), 청소년공부방(23.3%) 등 소년원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대책 모색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한편, 청소년상담실이나 청소년수련시설도 알고는 있지만 이용한 경험 이 없다고 응답한 원생이 각각 70.3%, 44.1%로 현존 지역의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이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IV-27>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나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해 본 적 있다	계
청소년회관	40.6	46.7	12.7	100.0
청소년상담실	17.5	70.3	12.3	100.0
근로 청소년회관	49.2	41.9	8.9	100.0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캠프장, 수련원 등)	18.2	42.9	38.9	100.0
청소년공부방	31.0	44.1	24.9	100.0
종합사회복지관	23.3	56.4	20.3	100.0

원생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에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관련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체 빈도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로 ‘청소년 전용 휴게실’ (31.2%)을 들었고, 다음으로 ‘체육시설’ 21.9%, ‘야영 캠프장’ 21.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만의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표본에서 소년원생의 대부분이 남자인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희망하는 시설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전용휴게실’은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선호되는 시설이지만 여자로부터 훨씬 더 높게(남:30.0%, 여:52.5%) 선호되었다. 다음 순위로는, 남자의 경우 ‘체육시설’(23.1%)과 ‘야영캠프장’(21.4%)을, 여자는 ‘야영캠프장’(18.0%)과 ‘오락장’(9.8%)을 꼽았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청소년전용휴게실’과 ‘야영 캠프장’은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원생들이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V-28> 여가생활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야영 캠프장	체육 시설	도서관	청소년 극장	청소년 전용회 관	놀이터 공원	오락장	청소년 전용 휴게실	기타	전체
전	체(%)	21.2	21.9	30	45	59	30	58	31.2	35	100.0
	(빈도수)	(219)	(226)	(31)	(47)	(61)	(31)	(60)	(323)	(36)	(1034)
성	남자	21.4	23.1	30	46	60	29	56	30.0	35	100.0
별	여자	18.0		33	33	49	49	98	52.5	33	100.0

1) $\chi^2=27.616$ $P<.005$

(3) 지역사회 참여 욕구

소년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지 알아보았다.

전체 빈도에서 ‘꼭 참여하고 싶다’ 58.9%, ‘참여하고 싶지 않다’ 7.9%, ‘잘 모르겠다’ 33.1%로 과반수가 넘는 원생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반면,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원생들도 약 30%에 이르고 있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50.8%)보다는 남자(59.4%)가 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으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은 더 높았다.

희망하는 자원봉사 분야로는 ‘어린이 돌보기’ 23.5%, ‘농촌 일손 돕기’ 20.7%, ‘환경보호사업’ 19.6%, ‘사회복지시설 방문’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분야별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희망 분야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어린이 돌보기’가 희망 분야 최우선 순위로 선택되었지만, 그 비율은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22.5%에 불과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41.5%가 ‘어린이 돌보기’를 선택하여 남자보다 약 20%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는 ‘농촌일손 돕기’ 21.3%, ‘환경보호사업’ 19.7%, ‘사회복지시설

방문' 16.1%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는 '환경보호산업' 17.0%, '노인 장애인 방문' 11.3%, '농촌일손 돕기' 9.4% 순으로 나타나 남녀별 선호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29>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분야

	어린이 돌보기	사회복 지시설 방문	환경 보호 사업	사무 업무 보조	노인 장애인 방문	농촌 일손 돕기	아동학 습생활 지도	기타	전체
전 체(%)	23.5	15.7	19.6	0.4	103	20.7	5.8	3.9	100.0
(빈도수)	(230)	(154)	(192)	(4)	(101)	(202)	(57)	(38)	(978)
성' 남자	22.5	16.1	19.7	0.4	10.3	21.3	5.6	3.9	100.0
별 여자	41.5	9.4	17.0		11.3	9.4	9.4	1.9	100.0

1) $\chi^2=14.770$ $P<.05$

(4) 기성세대에 대한 요구

소년원생들은 기성세대나 사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성세대와 사회에 바라는 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42.2%가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24.5%의 원생들은 '문제아로 보지 않았으면'으로 응답하여 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희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주었으면' 11.8%, '보다 많은 장소와 시설 마련' 11.5% 순으로 나타나, 기성세대 자신 혹은 어떤 외적인 시설보다는 원생 자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배려를 우선시 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가 42.7%, 여자의 경우 34.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간섭, 통제를 하지 않았으면' 항목에 대하여 남자는 9.0%, 여자는 18.0%로 남자의 두 배가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 항목에 대하여 낮은 비율을, 그리고 '간섭, 통제를 하지 않았으면' 항목에 대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은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사회에 바라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아로 보지 않았으면’에 대한 비율이 높은데, 12-13세의 경우 ‘문제아로 보지 않았으면’ 항목이 4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IV-23>에서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12-13세 원생들의 60%(14-15세:39.2%, 16-17세:32.5%, 18세이상:29.8%)가 ‘사회에서 나를 문제아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항목을 선택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 취업은 사회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생각은 곧 사회에 대한 인식과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표 IV-23>과 <표 IV-30>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아라는 사회적 인식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V-30> 어른들이나 사회에 바라는 점

	보다 많은 관심	문제아로 보지 않았으면	간섭,통제 를 하지 않았으면	모범적인 행동	많은 장소나 시설	기타	전 체
전 체(%) (빈도수)	42.2 (437)	24.5 (254)	9.6 (99)	11.8 (122)	11.5 (119)	0.5 (5)	100.0 (1036)
성별							
남자	42.7	24.6	9.0	11.8	11.5	0.4	100.0
여자	34.4	24.6	18.0	9.8	11.5	1.6	100.0
연령							
12세-13세	30.0	40.0		20.0	10.0		100.0
14세-15세	39.1	31.9	5.8	13.0	10.1		100.0
16세-17세	41.2	25.6	9.0	8.3	15.6	0.3	100.0
18세 이상	43.6	22.7	10.6	12.5	10.0	0.6	100.0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43.6	30.8	7.7	7.7	10.3		100.0
중학교 졸업이하	41.7	27.8	7.5	11.8	10.8	0.3	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43.0	17.8	13.5	12.0	12.9	0.9	100.0

1) $\chi^2=7.749$ $P<(.171)$ 2) $\chi^2=17.310$ $P<(.301)$ 3) $\chi^2=21.489$ $P<.05$

(5) 보건·의료 욕구

원생들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은 경험이 있는지, 치료비 지원이나 무료건강검진에 대한 희망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았다.

① 현재 건강상태

전체 원생 중 21.1%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어딘가 질병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17.2%는 아플 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병원에 못 간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플 때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원생이 52.7%이고, 무료 건강검진을 원하는 원생은 무려 70.8%에 달하던 조사결과 <표 IV-26. 참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25.0%)가 남자의 경우(20.9%)보다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도 여자 원생(24.6%)의 경우가 남자 원생(16.7%)의 경우보다 높았다.

<표 IV-31>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질병이 있는 것 같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진	체(%)	54	157	20.1	191	397	1000
	(빈도수)	(56)	(162)	(208)	(198)	(410)	(1034)
성 ¹ 별	남자	56	153	20.1	178	413	1000
	여자	33	217	20.0	417	133	1000

1) $\chi^2=29.857$ $P<.001$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에 못 간 경험은 교육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병원에 못 간 경험도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 40.0%, 중학교 졸업이하 18.7%, 고등학교 중퇴이상 12.1%로 초등학교 졸업이하는 최대 27.9%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32> 애플 때 진료비 및 입원경비 부담으로 병원에 못 간 적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43 (45)	129 (134)	159 (165)	226 (234)	442 (458)	1000 (1036)
초등학교 졸업이하	75	325	100	125	375	1000
중학교 졸업이하	52	135	184	206	423	1000
고등학교 중퇴이상	26	95	118	276	486	1000

1) $\chi^2=35.925$ $P<.001$

② 치료비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애플 때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원생은 전체 응답자 중 52.7%이며, 여기서도 여자원생(60.7%)의 경우가 남자 원생(52.2%)보다 치료비 지원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았다 <표 IV-26 참조>. 또한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치료비지원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65.0%, 중학교 졸업이하 52.2%, 고등학교 중퇴이상 52.3%로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원생들은 무료건강검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중 70.8%가 ‘도움을 받고 싶다’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에서 남자 71.5%, 여자 59.0%로 무료건강검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12.5%나 희망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에 못 간 적이 있다’의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과 연결시켜보면, 여자의 경우 무료건강검진이나 질병상담보다는 실제적인 치료비 지원을 더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3> 무료 건강검진에 대한 희망

		도움을 받고 싶다	도움이 필요없다	전 체
전 체(%)		70.8	29.2	100.0
(빈도수)		(734)	(303)	(1037)
성 ¹⁾ 별	남자	71.5	28.5	100.0
	여자	59.0	41.0	100.0

1) $\chi^2=4.292$ $P<.05$

5) 경제적 자립 욕구

(1) 경제적 지원에 대한 희망

소년원생들이 평소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희망정도를 알아보았다. 과반수 이상의 원생(51.2%)들이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음 좋겠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지원이나 후원에 대한 희망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도움이나 후원자를 연결 받고 싶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원생들은 37.6% 였고, 보통이 31.4%, 부정적 응답도 31%나 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원생들이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일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녀별 차이를 보면, 남자(50.6%)보다는 여자(59.0%)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으로 원하며, 경제적인 도움이나 후원자도 여자(43.3%)가 남자(37.3%)보다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경제적 지원에 대한 희망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해 졌으면 좋겠다	(%) (빈도수)	21.1 (218)	30.1 (311)	28.7 (296)	9.1 (94)	11.0 (114)	100.0 (1033)
경제적인 도움이나 후원자를 연결받고 싶다	(%) (빈도수)	13.7 (141)	23.9 (247)	31.4 (324)	16.6 (171)	14.4 (149)	100.0 (1032)

반면,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에 대한 희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도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가 67.2%, '도움이 필요 없다'가 32.8%로 2/3가량의 원생들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남자(66.6%)보다 여자(75.4%)가 약 10% 정도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여 여자의 경우가 경제적 지원이나 자립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지원이나 개조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원생이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전체 빈도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가 55.4%, '도움이 필요 없다'가 44.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도움을 받고 싶다' 항목에서 남자 55.6%, 여자 52.5%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V-35> 생활비 보조 및 주택 지원에 대한 희망

		도움을 받고 싶다	도움이 필요없다	전체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 (빈도수)	67.2 (696)	32.8 (340)	100.0 (1036)
주택지원 및 개조	(%) (빈도수)	55.4 (574)	44.6 (462)	100.0 (1036)

(2)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

① 경제적 자립 및 독립된 주거공간

원생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4.7%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57.9%가 “마음 편하게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55.8%가 “혼자만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고 싶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다. 즉 남자는 44.3%, 여자는 49.2%가 자립하고 싶다고 대답하여, 남녀간 약 5%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남녀별 차이는 독립된 주거공간에 대한 희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표 IV-37 참조>, 전체 응답자 중 여자의 60.6%가 남자의 55.5%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고 싶다고 응답해 여자 원생의 경우가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6>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161 (166)	286 (295)	330 (341)	131 (135)	93 (96)	1000 (1033)
성 ¹ 별	남자	159	284	331	134	93	1000
	여자	197	295	328	82	98	1000
연 ² 령 별	12세-13세			600	200	200	1000
	14세-15세	130	203	377	174	116	1000
	16세-17세	135	247	340	167	111	1000
	18세 이상	173	315	321	111	79	1000
교 ³ 육 정 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103	154	385	231	128	1000
	중학교 졸업이하	154	276	337	140	93	1000
	고등학교 졸업이상	182	320	311	104	84	1000
	중퇴이상						

1) $\chi^2=1749$ $P<(.782)$ 2) $\chi^2=24742$ $P<.05$ 3) $\chi^2=12891$ $P<(.116)$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3세의 경우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원생들이 없는 반면, 14-15세 33.3%, 16-17세 38.2%, 18세 이상 48.8%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았다.

교육정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달라진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는 커지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7%, 중학교 졸업 이하 43.0%, 고등학교 중퇴이상 50.2%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고등학교 중퇴 이상은 약 2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은 표본 자체가 소년원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대다수의 소년원생의 교육정도는 나이에 비례하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자립 욕구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7> 독립된 주거공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마음 편하게 기거할 수 있는 집 이 있었음 좋겠다	(%) (빈도수)	269 (279)	310 (321)	169 (175)	117 (121)	135 (140)	1000 (1036)
혼자만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 고 싶다	(%) (빈도수)	265 (275)	293 (304)	207 (214)	106 (110)	128 (133)	1000 (1036)

② 퇴원 후 거처

독립된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와 관련하여 원생들의 퇴원 후의 거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퇴원 후에 어디서 지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 빈도에서 '부모님' 73.8%, '형제, 자매' 7.0%, '친척' 5.1%, '친구, 선후배' 5.1%, '사회복지시설' 2.4%, '기타' 7) 6.5% 순으로 나왔다.

7) 기타에는 고용주(직장), 양부모의 집, 갈 곳이 없다, 자취 등의 항목이 포함

성별에 따른 퇴원 후 거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부모님'이 73.6%, '형제, 자매' 7.3%, '기타' 6.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부모님' 75.4%, '사회복지시설' 9.8%, '기타' 6.5%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될 거라는 대답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약간 높지만 그 차이는 약 2% 정도로 매우 적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그 다음으로 '형제, 자매'라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형제, 자매'와 지내게 될 거라고 응답한 원생은 3.3%에 불과해 매우 적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자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원생은 2.0%에 그치고 있어 남녀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38> 퇴원 후 거처에 대한 예측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선후배	사회복지 시설	기타	전 체
전 체(%)		73.8	7.0	5.1	5.1	2.4	6.5	100.0
(빈도수)		(765)	(73)	(53)	(53)	(25)	(68)	(1037)
성 ¹	남자	73.6	7.3	5.2	5.3	2.0	6.5	100.0
별	여자	75.4	3.3	3.3	1.6	9.8	6.5	100.0
교육 ²	초등학교 졸업이하	50.0	7.5	7.5	12.5	12.5	10.0	100.0
육	중학교 졸업이하	70.9	7.9	5.7	5.3	2.4	7.8	100.0
경	고등학교 졸업이상	82.2	5.4	3.7	3.4	1.1	3.9	100.0

1) $\chi^2=24.698$ $P<.01$ 2) $\chi^2=50.845$ $P<.001$

교육정도에 따른 퇴원 후 거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50.0%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처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원생도 12.5%나 된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라고 응답한 전체 비율 2.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한편,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님'과 지낸다는 항목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경우 50.0%, 중학교 졸업이하의 경우 70.9%,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경우 8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이하 12.5%, 중학교 졸업이하 2.4%, 고등학교 중퇴이상 1.1%로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사회복지시설'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아르바이트 경험

소년원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일한 장소를 알아보았다. 대다수의 원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원생은 18.3%였다. 즉, 전체 원생의 82.7%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일한 장소로는 유흥업소(17.4%)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회사 및 공장(15.8%), 식당(15.0%), 커피숍/레스토랑(11.3%), 주유소(10.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흥업소는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남:17.2%, 여:18.2%) 회사 및 공장(남:16.7%, 여:3.4%)과 식당(남:15.2%, 여:12.5%)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높게, 커피숍 및 레스토랑(여:26.1%, 남:10.3%)과 주유소(여:14.8%, 남:9.8%)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사 및 공장과 커피숍 및 레스토랑의 경우는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여자 원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여자는 커피숍, 레스토랑, 주유소 등을 선호하는데 반해, 남자들은 회사 및 공장과 식당 등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2-13세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7.8%에 이르지만, 14-15세의 경우 33.3%, 16-17세 24.4%, 18세 이상 14.0%로 최고 63.8%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학생’ 혹은 ‘학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연령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39>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했을 경우 일한 장소

		주유소	커피숍 레스토랑	식당	회사 및 공장	유흥업소	기타	없다	전 체
전	체(%)	10.1	11.3	15.0	15.8	17.4	12.2	18.3	100.0
	(빈도수)	(134)	(150)	(199)	(210)	(231)	(163)	(243)	(1330)
성 별	남자	9.8	10.3	15.2	16.7	17.2	12.7	18.3	100.0
	여자	14.8	26.1	12.5	3.4	18.2	6.8	18.2	100.0
연 령 별	12세-13세			11.1			11.1	77.8	100.0
	14세-15세	14.8	2.5	14.8	6.2	7.4	21.0	33.3	100.0
	16세-17세	12.9	12.6	16.3	8.4	9.6	15.8	24.4	100.0
	18세 이상	8.6	11.8	14.6	19.5	21.6	9.9	14.0	100.0

6)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욕구

(1) 가족에 대한 희망

①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것

소년원생 대다수의 경우는 구조적 혹은 기능적으로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므로 가정의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들이 가족 혹은 가정에 대해 희망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며, 부모에 대한 동일시 정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가족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39.1%)였고, 다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16.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40.1%가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지만, 여자의 경우 23.0%로 나타나 남녀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자들의 21.3%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남자들이 같은 항목에 대하여 선택한 것보다 약 5% 정도 높다. 또한 여자들은 기타 항목의 ‘잔소리와 통제를 하지 말았으면’(남:2.2%, 여:11.5%)과 ‘충분한 용돈’(남:2.7%, 여:9.8%) 등의 항목에서 남자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40%이상의 여자원생들이 가족에게 희망하는 것의 항목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21.3%)’, ‘잔소리와 통제를 하지 말았으면(11.5%)’ ‘충분한 용돈(9.8%)’ 등을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의 내용은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가 가족 간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족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더 중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았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가족의 지원 부분에서 12-13세의 경우 이 항목을 선택한 원생은 없는 반면, 14-15세는 13.0%, 15-17세는 17.4%, 18세 이상은 17.1%로, 이것은 12-13세의 경우 아직 진학, 취업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진로를 걱정하기에는 어린 나이이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갖기에도 어린 나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은 소년원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

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표 IV-40> 부모,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것

	화목한 집안 분위기	하고싶은 일 도와 주는 것	많은 관심과 이해	가족간의 갈등이 없었으면	부모가 있었으면	바라는 것이 없다	기 타	전 체
전 체(%) (빈도수)	39.1 (404)	16.5 (170)	9.5 (98)	4.3 (44)	9.8 (101)	9.2 (95)	11.6 (121)	100.0 (1033)
성 ¹ 남 자	40.1	16.2	9.4	4.4	9.8	9.4	10.7	100.0
별 여 자	23.0	21.3	9.8	1.6	9.8	6.6	27.9	100.0
연 ² 12세-13세	30.0			10.0	20.0		40.0	100.0
령 14세-15세	36.2	13.0	5.8	5.8	17.4	2.9	18.9	100.0
별 15세-17세	36.6	17.4	10.1	3.8	9.8	10.5	11.8	100.0
18세 이상	39.9	17.1	9.9	4.0	8.9	9.7	10.5	100.0

1) $\chi^2=34.636$ $P<.001$ 2) $\chi^2=43.770$ $P<.05$

② 부모에 대한 동일시 및 대체욕구

원생들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 정도는 낮은 편이다. 전체 빈도에서 '커서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원생은 42.5%이며, 부정적인 응답도 3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생의 대다수가 구조적 혹은 기능적 결손가정 출신임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동일시는 유의도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한 남자는 43.7%, 여자는 23.3%로 남녀간 차이는 20.4%에 이른다. 또한 부정적인 응답을 한 남자는 32.1%, 여자는 56.6%로 이 역시 24.5% 정도의 남녀간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여자원생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낮은 것은 잔소리와 통제 혹은 용돈과 같은 항목에서 여자원생의 경우가 부모와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정도에 따른 동일시 정도는 유의도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일시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6.3%, 중학교 졸업이하가 38.2%, 고등학교 중퇴이상 52.5%로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부모에 대한 동일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144	28.1	24.0	145	19.0	100.0
(빈도수)		(149)	(291)	(249)	(150)	(197)	(1036)
성 별 ¹⁾	남자	147	29.0	24.3	137	18.4	100.0
	여자	100	13.3	20.0	28.3	28.3	100.0
교 육 정 도 ²⁾	초등학교 졸업이하	158	10.5	10.5	18.4	44.7	100.0
	중학교 졸업이하	148	23.4	27.0	14.1	20.7	100.0
	고등학교 중퇴이상	138	38.7	20.6	13.8	13.2	100.0

1) $\chi^2=17.566$ $P< .01$ 2) $\chi^2=51.074$ $P< .001$

부모에 대한 낮은 동일시 정도는 부모에 대한 대체욕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다른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원생은 전체 응답자의 18.7%로 10명 가운데 2명은 부모에 대한 대체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모에 대한 대체 욕구는 유의도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자의 경우 '부모가 다른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원생이 17.5%에 불과한데, 여자의 경우는 38.3%에 달해 남녀간 격차가 20%이상이다. 이와 같은 여자원생의 부모에 대한 높은 대체욕구는 부모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낮았던 결과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42> "부모가 다른 분이었음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적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37	15.0	15.4	13.3	52.6	100.0
(빈도수)		(38)	(155)	(159)	(138)	(544)	(1034)
성 ¹⁾	남자	34	14.1	15.2	13.4	53.9	100.0
	여자	83	30.0	18.3	11.7	31.7	100.0

1) $\chi^2=19.053$ $P< .001$

(2) 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

소년원생들이 평소 경험하고 있는 가족내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간의 갈등 여부, 폭력에 대한 피해인식,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원생 10명 중 1명 정도는 가족 간에 갈등(11.1%)을 경험하고 있고, 폭력·학대로부터 은신이 필요하다(9.5%)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3명 정도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31.1%)을 호소하고 있었다.

가족 간의 갈등 경험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10.3%가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25.0%의 원생들이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여 147%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여자 원생의 경우가 남자보다 가족 내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원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IV-43> 가족 간에 말다툼이나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22	89	180	329	381	1000
	(빈도수)	(23)	(92)	(186)	(340)	(394)	(1035)
성 ¹⁾	남자	20	83	177	331	390	1000
별	여자	67	183	217	300	233	1000

1) $\chi^2=16.287$ $P<.01$

한편, 많은 원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전체 빈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원생은 31.1%이며, '보통이다' 34.9%, '어렵지 않다' 34.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없이 원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의 범주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정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유의도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진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원생 중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45.9%, 중학교 졸업이하가 34.7%, 고등학교 중퇴 이상이 22.8%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정도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이 안정적 가족구조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정도에 따른 이와 같은 차이는 가사 일에 대한 부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표 IV-45 참조>, '가사 일을 맡느라 힘들다'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원생이 전체의 8.9%인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원생은 17.5%가, 중학교 졸업 이하 원생은 9.6%, 고등학교 중퇴 이상 원생은 6.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가사 일에 대한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정도별 차이는 유의도 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44> 경제적으로 어렵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반도수)		94 (97)	217 (224)	349 (359)	196 (202)	144 (148)	1000 (1030)
교육 정 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270	189	243	108	189	1000
	중학교 졸업이하	103	244	328	196	129	1000
	고등학교 중퇴이상	58	170	401	213	159	1000

1) $\chi^2=32.102$ $P<.001$

<표 IV-45> 가사일을 맡느라 힘들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1.7	7.2	26.8	28.3	36.0	100.0
	(빈도수)	(18)	(74)	(277)	(292)	(372)	(1033)
교 육 정 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5.3	13.2	44.7	13.2	23.7	100.0
	중학교 졸업이하	2.0	7.6	26.9	28.2	35.3	100.0
	고등학교						
	중퇴이상	0.6	6.0	24.4	30.7	38.2	100.0

1) $\chi^2=19.877$ $P< .05$

7) 개인 · 심리적 욕구

(1) 자아에 대한 욕구

원생들의 자아 만족도와 변화욕구 및 미래에 대한 희망정도 등 자아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았다.

스스로에 대한 낮은 만족감 때문에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는 원생이 전체의 1/3이 넘었다. ‘나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며,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원생은 전체의 35.8%였으며, ‘그저 그렇다’ 23.3%, ‘그렇지 않다’ 40.9%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있는 원생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46> 자아만족도 및 변화욕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10.1	25.7	23.3	16.1	24.8	100.0
	(빈도수)	(105)	(266)	(241)	(167)	(257)	(1036)
성 별	남자	9.9	25.1	22.9	16.4	25.7	100.0
	여자	14.8	34.4	29.5	11.5	9.8	100.0

1) $\chi^2=11.085$ $P< .05$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35.0%가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반해, 여자는 49.2%로 여자 원생의 경우가 훨씬 더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남녀별 차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정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자 원생의 경우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도 더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남자 원생의 경우는 4.4%만이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9.8%로 두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여자 원생의 경우가 자신에 대한 만족도나 미래에 대한 희망정도에 있어 훨씬 더 부정적이고 회의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감성적으로 더 예민하고 가족이나 가정내의 문제나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떨어지는 여자 원생들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IV-47>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10	34	152	274	531	1000
	(빈도수)	(10)	(35)	(158)	(284)	(551)	(1038)
성 ¹	남자	09	31	151	271	538	1000
별	여자	16	82	180	311	410	1000

1) $\chi^2=7.226$ $P<(.124)$

(2) 친구 관계

소년원생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하게되는 주요 매개체로서 친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친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어떤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에 대한 동일시 정도, 비행친구에 대한 인식, 문제의는 상대방으로서의 친구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원생들의 친구에 대한 동일시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가장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의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원생이 전체의 38.8%, '그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32.4%, 28.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력과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에 대한 동일시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에 대한 높은 동일시 정도는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의 친구에 대한 높은 밀착정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표 IV-49>.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원생은 전체의 72.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73.1%)가 여자(67.2%)보다 친구에 대한 밀착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12-13세:90.0%, 18세 이상:72.1%), 교육정도가 낮을수록(초:74.3%, 중:74.3%, 고:69.8%) 친구에 대한 밀착정도가 높았다.

<표 IV-48>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15.2	23.6	32.4	14.9	13.9	100.0
	(빈도수)	(157)	(243)	(334)	(153)	(143)	(1030)
연령	12세-13세	20.0	20.0	20.0	10.0	30.0	100.0
	14세-15세	27.5	18.8	24.6	13.0	15.9	100.0
	16세-17세	16.7	19.5	33.1	17.4	13.2	100.0
	18세 이상	12.7	25.7	33.6	14.4	13.5	100.0

1) $\chi^2=20.151$ $P<(.064)$

<표 IV-49>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30.7	42.1	14.7	6.1	6.3	100.0
	(빈도수)	(317)	(434)	(152)	(63)	(65)	(1031)
성별	남자	31.9	41.2	14.7	6.1	6.1	100.0
	여자	11.5	55.7	16.4	6.6	9.8	100.0

1) $\chi^2=12.093$ $P<.05$

친구를 동경하고 동일시하며 친구에 밀착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행 친구들로 인해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정도도 비교적 높아, 친구에 대한 동경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별개의 상황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들로 인해 좋지 않은 일에 곧잘 빠져든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원생(45.6%)은 거의 과반수에 달하고 있고, '비행친구들만 없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고 응답한 원생(38.6%)도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과 동일시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지도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50> 친구들의 유혹 때문에 좋지 않은 일에 곧잘 빠져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136 (141)	320 (331)	271 (281)	158 (164)	114 (118)	100.0 (1035)
연령 별						
12세-13세	40.0	10.0	20.0	20.0	10.0	100.0
14세-15세	13.0	36.2	27.5	11.6	11.6	100.0
16세-17세	18.3	31.1	26.3	14.9	9.3	100.0
18세 이상	11.1	32.4	27.5	17.0	12.0	100.0

1) $\chi^2=18.023$ $P<(.115)$

<표 IV-51> 비행친구들만 없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168 (174)	218 (226)	302 (313)	144 (149)	169 (175)	100.0 (1037)
연령 별						
12세-13세	20.0	40.0	20.0		20.0	100.0
14세-15세	33.3	26.1	23.2	7.2	10.0	100.0
16세-17세	22.8	23.4	26.2	14.1	13.4	100.0
18세 이상	12.5	20.2	33.4	15.1	18.8	100.0

1) $\chi^2=42.418$ $P<.001$

비행 친구들의 영향은 남자 원생(남:45.8%, 여:43.3%)의 경우가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12-13세:50.0%, 18세 이상:43.5%)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친구들로 인한 문제의식도 남자원생(남:38.9%, 여:32.8%)의 경우와 연령이 낮을수록(12-13세 60.0%, 14-15세 59.4%, 16-17세 46.2%, 18세 이상 32.7%)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개인문제 해결욕구

① 개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원생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원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원생의 비율은 62.8%였으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하는 경우도 63.3%, 개인과 가정문제의 상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로 나타나 개인문제 해결을 위한 원생들의 지원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에 대한 희망정도는 여자의 경우(남:62.2%, 여:73.8%)와 연령이 높을수록(12-13세:50.0%, 18세 이상:62.8%), 교육정도가 높을수록(초:60.0%, 중:62.0%, 고:65.5%)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많은 고학력일수록 개인이 처한 문제의 상황도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IV-52>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21.4 (222)	41.4 (429)	18.9 (196)	8.2 (85)	10.0 (103)	100.0 (1035)
연령 별	12세-13세	40.0	10.0	20.0	20.0	10.0	100.0
	14세-15세	30.9	25.0	20.6	7.4	16.2	100.0
	16세-17세	24.6	40.8	20.1	4.8	9.7	100.0
	18세 이상	19.3	43.5	18.2	9.7	9.4	100.0

1) $\chi^2=25.377$ $P<.05$

② 상담에 대한 희망정도

원생들은 개인의 어떠한 문제를 상담하고 싶어하는지, 상담경험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담에서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원생들이 가장 상담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높은 비율 순으로 정리를 해 보면, '취업' 15.6%, '기타8)' 14.1%, '성격' 11.8%, '친구' 11.1%, '가정' 11.0%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문제의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원생의 경우 역시 취업문제에 대한 상담 희망 정도가 가장 높았다. 취업에 대한 상담은 남자의 경우(남:15.7%, 여:13.7%)와 연령이 높아질수록(12-13세:7.7%, 18세 이상:17.4%)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53> 앞으로 상담을 하고 싶은 문제

		친구	이성	성격	가정	성(性)	진로	취업	경제 적 문제	성적 진학	기타	전 체
전	체(%)	111	84	118	110	58	96	156	61	65	141	100.0
	(빈도수)	(248)	(188)	(264)	(246)	(129)	(216)	(350)	(137)	(145)	(317)	(2240)
성 별	남자	112	84	120	108	59	96	157	62	63	139	100.0
	여자	78	88	78	147	29	98	137	39	98	206	100.0
연 령 별	12세-13세	154			462			77			308	100.0
	14세-15세	132	66	149	198	33	83	91	41	74	133	100.0
	16세-17세	129	80	93	115	59	85	120	63	78	179	100.0
	18세 이상	101	89	126	98	58	103	174	63	59	128	100.0

원생들의 상담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상담교사와 상담경험이 있는 원생들은 24.5%에 불과해 소년원 상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담한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상담할 문제가 없

8) 기타에는 약물복용문제, 흡연문제, 음주문제, 가출문제, 자살문제, 기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다'(21.8%), '부끄러워서'(18.6%), '상담 교사가 없다'(17.7%),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7.2%) 등을 들고 있는데 '상담 교사가 없다'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항목에 대한 높은 응답비율은 소년원 상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는 '상담할 문제가 없다'(22.4%)를 상담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든 데 반해, 여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23.8%) 항목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자의 경우는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항목도 21.4%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와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는 상담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항목에 대한 비율이 45.2%에 이른다는 것은 소년원 상담 교사가 원생들에게 상담의 기본전제가 되는 신뢰감을 형성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의 경우 남자는 4.2%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는 21.4%로 17.2%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남녀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IV-54>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상담할 문제가 없었다	상담 교사가 없다	자존심 상한다	상담할 시간이 없다	부끄러 워서	비밀보 장이 안될 것 같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말하는 것이 싫어서	전 체
전	체(%)	21.8	17.7	6.6	5.4	18.6	6.2	17.2	6.6	100.0
	(빈도수)	(173)	(140)	(52)	(43)	(147)	(49)	(136)	(52)	(792)
성	남자	22.4	19.0	7.1	5.2	18.2	4.2	17.0	6.8	100.0
별	여자	16.7	4.8	2.4	4.8	21.4	21.4	23.8	4.8	100.0

1) $\chi^2=30.399$ $P<.001$

상담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원생은 과반수 정도(52.4%)에 불과하며, '그저 그렇다' 39.3%,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원생도 8.3%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도움이 되지 못했다'(초·27.3%, 중·10.8%, 고·3.0%)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상담교사에게 실제로 받은 도움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빈도에서 '고민을 직접 해결' 41.2%, '도움을 들어주기만 했다' 39.9%,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9%,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의뢰' 7.7%의 비율로 나타나, 고민을 직접 해결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원생도 약 10%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민을 직접 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12-17세의 경우는 '고민을 직접 해결'이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18세의 경우는 '고민을 들어주기만 했다'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도별 차이에 있어서도 교육정도가 낮아질수록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IV-55> 상담한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 체
전 체(%)	52.4	39.3	8.3	100.0
(빈도수)	(132)	(99)	(21)	(252)
교육 ¹⁾ 정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54.5	18.2	27.3	100.0
중학교 졸업이하	56.8	32.4	10.8	100.0
고등학교 중퇴이상	45.0	52.0	3.0	100.0

1) $\chi^2=17.653$ $P< .005$

(4) 여가활동 지원

원생들의 대다수는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68.3%가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① 여가시설 활용

원생들이 주로 이용했던 여가시설을 높은 비율 순으로 나타내면, 'pc방'

(36.4%), ‘술집’ (13.4%), ‘전자오락실’ (12.5%), ‘노래방’ (10.5%)이다. pc방은 다른 여가시설과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이나 연령,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원생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여가시설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pc방(남:36.2%, 여:39.7%)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는 ‘술집’ (13.5%), ‘전자오락실’ (12.6%), ‘노래방’ (10.2%) 순으로, 여자의 경우 ‘카페, 커피숍’ (14.7%), ‘노래방’ (13.8%), ‘술집’ (12.9%)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경우 여가시설 이용 경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여자의 경우는 ‘카페, 커피숍’ (14.7%)을 여가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남자의 경우 ‘카페, 커피숍’ 이용경험(9.5%)은 적은 편이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pc방에 대한 이용경험은 낮아지고 있는데(12-13세:50.0%, 14-15세:48.2%, 16-17세:39.7%, 18세 이상:33.9%),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릴수록 컴퓨터에 대하여 더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카페, 커피숍’과 ‘술집’의 이용경험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56> 주로 이용했던 여가시설

		카페 커피숍	술집	전자 오락실	PC방	당구장	운동장 (체육관)	공원	노래방	기타	전 체
전	체(%)	98	134	125	364	68	31	30	10.5	45	1000
	(빈도수)	(176)	(241)	(224)	(654)	(122)	(56)	(53)	(188)	(82)	(1796)
성	남자	95	135	126	362	72	33	30	10.2	76	1000
별	여자	147	129	112	397	17		17	13.8	4.3	100.0
연 령 별	12-13세			143	500		71	71	14.3	7.1	1000
	14-15세	35	61	149	482	09	35	61	13.2	3.5	1000
	16-17세	91	87	140	397	69	28	2.4	13.2	3.2	100.0
	18 이상	11.1	159	117	339	74	32	27	8.9	5.2	100.0

② 여가활동 비용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원생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빈도에서 ‘필요없다’ 8.8%, ‘그저 그렇다’ 11.0%, ‘필요하다’ 80.3%로 대다수의 원생들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여자 원생(88.5%)의 경우가 남자 원생(79.8%)보다 비용의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3.1%로 가장 높았고, ‘아르바이트’ 34.9%, ‘형제’ 5.3%, ‘친구’ 4.9%, ‘친척’ 1.7%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마련 방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여자보다 부모님(남:53.5%, 여:45.8%)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가 높았고,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아르바이트(남:34.2%, 여:45.8%)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령에 따라 ‘부모님’ 항목에 대한 비율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13세의 경우 70.0%인데 반해 18세 이상의 경우는 49.4%로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항목에 대한 비율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2-13세는 20.0%인데 반해 18세 이상은 40.0%에 이른다. 즉,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비용을 부모님에게 의존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용을 직접 마련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V-57>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필요없다	없어도 할 수 있다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 체
전 체(%)		34	54	110	521	282	1000
(빈도수)		(35)	(56)	(114)	(540)	(292)	(1037)
성별 ¹⁾	남자	33	56	113	525	273	1000
	여자	33	16	66	459	426	1000

1) $\chi^2=8.119$ $P<(.087)$

<표 IV-58> 여가활동 비용 마련 방법

		부모님에게 받는다	형제에게 받는다	친구에게 빌린다	친척에게 받는다	아르바이트 를 한다	전 체
전 체(%) (빈도수)		53.1 (549)	5.3 (55)	4.9 (51)	1.7 (18)	34.9 (361)	100.0 (1034)
성별 ¹⁾	남자	53.5	5.4	5.0	1.7	34.2	100.0
	여자	45.8	3.4	3.4	1.7	45.8	100.0
연령 별 ²⁾							
12세-13세		70.0	10.0			20.0	100.0
14세-15세		57.4	5.9	7.4	4.4	25.0	100.0
16세-17세		61.2	2.8	9.0	2.1	24.9	100.0
18세 이상		49.4	6.3	2.9	1.4	40.0	100.0

1) $\chi^2=3.505$ $P<(477)$ 2) $\chi^2=46.722$ $P<.001$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돈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빈도에서 ‘부모’ 항목이 3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아르바이트’가 28.2%, ‘친구’는 16.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훔치거나 뺏는다’ 항목에 대한 비율도 13.8%가 나왔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부모’ 30.9%, ‘아르바이트’ 27.6%, ‘친구’ 17.0%, ‘훔치거나 뺏는다’ 13.8%의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39.3%, ‘부모’ 24.6%, ‘훔치거나 뺏는다’ 13.1%, ‘비용을 빌린다’ 11.5%의 비율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았다. 이 결과는 여가활동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여자 원생은 아르바이트 항목에서 남자보다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자 원생의 경우가 비용을 마련하는 면에서나,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돈을 구하는 면에서 남자보다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2-13세의 경우는 ‘부모’(50%)와 ‘훔치거나 뺏는다’(30.0%)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14-15세의 경우는 ‘훔치거나 뺏는다’(27.5%), ‘아르바이트’(24.6%) ‘부모’(21.7%) 순으로 나타나 비용이 부족할 경우, ‘훔치거나 뺏는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8세 이상의 경우는 ‘아르

바이트' (31.9%), '부모' (31.2%), '친구' (16.8%) 순으로,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가장 높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나 훔치고 뺏는데 의존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여 스스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표 IV-59>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돈을 구하는 방법

		부모한테 받는다	친구에게 의존	비용을 빌린다	훔치거나 뺏는다	아르바이 트 한다	집 물건 을 판다	기타	전 체
전	체(%)	30.6	16.6	6.7	13.8	28.2	1.1	3.1	100.0
	(빈도수)	(315)	(171)	(69)	(142)	(291)	(11)	(32)	(1031)
성	남자	30.9	17.0	6.4	13.8	27.6	1.1	3.1	100.0
별	여자	24.6	9.8	11.5	13.1	39.3		1.6	100.0
	12-13세	50.0		10.0	30.0	10.0			100.0
연	14-15세	21.7	13.0	7.2	27.5	24.6	1.4	4.3	100.0
령	16-17세	30.8	17.8	5.9	22.4	20.3	0.3	4.3	100.0
별	18 이상	31.2	16.8	6.9	8.5	31.9	1.4	3.2	100.0

1) $\chi^2=8.669$ $P<(.193)$ 2) $\chi^2=59.917$ $P<.001$

③ 용돈

청소년들에게 있어 용돈은 큰 의미를 차지한다. 용돈은 의복 혹은 악세사리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또래집단과 함께 여가를 활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용돈의 규모와 그 용돈에 대한 만족도 및 지출용도 등을 알아보는 것은 원생 개개인의 생활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원생들의 한달 용돈의 규모를 알아본 결과, '20만원 이상'이 20.6%, '10-20만원 미만'이 15.8%, '없다' 14.6%, '3-5만원 미만' 14.6%, '7-10만원 미만' 12.0%순으로 나타났다. 20만원 이상이 20.6%이고 '없다'고 응답한 원생도 14.6%에 이르러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만원 이상'이 36.4%, '10만원 미만'이 49.0%, '없다'가 14.6%로 과반수 정도가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만원 이상'(남:20.0%, 여:27.9%)인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약 8%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없다'(남:14.9%, 여:9.8%)의 경우 여자가 약 5%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자 원생의 경우가 더 많은 용돈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용돈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2-17세의 경우 '3-5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12-13세:40.0%, 14-15세:24.6%, 16-17세:18.1%), 18세 이상의 경우는 '20만원 이상'이 24.9%, '10-20만원 미만'이 17.7%로 42.6%에 이르는 원생들이 10만원 이상의 용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른 용돈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용돈의 지출도 높았다. 즉,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없다' 항목이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20만원 이상'이 20.0%,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경우 22.6%이 20만원 이상의 용돈을 쓰고 있었다.

<표 IV-60> 한달 용돈 액수

		없다	1만원 미만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 체
전	체(%)	146	49	75	146	100	120	158	206	1000
	(빈도수)	(151)	(51)	(78)	(151)	(104)	(124)	(164)	(213)	(1036)
성 ¹	남자	149	50	77	148	97	118	160	200	1000
별	여자	98	33	49	115	148	148	131	279	1000
연 ²	12-13세	100	200		400	200	100			1000
령	14-15세	116	174	188	246	116	58	29	72	1000
별	16-17세	142	63	101	181	115	104	156	139	1000
	18 이상	149	29	54	115	91	135	177	249	1000
교 ³	초등학교 졸업이하	275	100	125	50	50	125	125	150	1000
육	중학교 졸업이하	167	61	80	151	91	104	145	200	1000
정	고등학교 중퇴이상	97	23	57	140	115	149	192	226	1000
도										

1) $\chi^2=6.326$ $P<.502$ 2) $\chi^2=104.404$ $P<.001$ 3) $\chi^2=37.433$ $P<.005$

용돈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과반수 이상('많다' 5.6%, '적당하다' 55.6%)의 원생들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8.9%로 1/3이 넘는 원생들이 용돈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원생의 경우가 남자보다('부족하다'-남:38.2%, 여:51.7%) 용돈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교육정도별 차이에서는,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적당하다'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부족하다' 항목에 대한 비율이 낮아져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 현재 용돈 액수에 대한 만족

		많다	적당하다	약간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전 체
전 체(%)		5.6	55.5	27.3	11.6	100.0
(빈도수)		(57)	(568)	(280)	(119)	(1024)
성 ¹⁾ 별	남자	5.7	56.1	27.3	10.9	100.0
	여자	3.4	44.8	29.3	22.4	100.0
연 ²⁾ 령 별	12세-13세	10.0	50.0	40.0		100.0
	14세-15세	5.8	53.6	18.8	21.7	100.0
	16세-17세	3.5	58.7	26.9	10.8	100.0
	18세 이상	6.6	54.5	28.0	10.9	100.0

1) $\chi^2=8.129$ $P<0.05$ 2) $\chi^2=14.577$ $P<0.103$ 3) $\chi^2=4.198$ $P<0.650$

용돈의 지출용도는 친구간의 교제비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빈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별로 살펴보면, '친구간 교제비용' 38.2%, '술, 담배' 27.8%, '의상, 장신구 구입' 15.6%로, 이 세 항목의 비율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여, 용돈의 지출은 이 세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돈의 지출에 있어서도 변인별 차이가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친구간의 교제비용(남:38.0%, 여:32.6%)이 높게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는 의상이나 장신구 구입(남:15.0%, 여:22.1%)에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자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친구 간 교제 비용’에 용돈의 많은 부분을 쓰고 있지만, ‘술, 담배’ 항목에 대한 비율은 18세 이상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술, 담배’(12-13세:11.1%, 14-15세:23.5%, 16-17세:25.7%, 18세이상:29.2%) 항목에 대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표 IV-62> 용돈 지출 내용

		의상, 장신구 구입	간식	술, 담배	친구간 교제비용	문화생활	학용품 구입	기타	전 체
전 체(%) (빈도수)		156 (181)	87 (101)	278 (323)	382 (443)	60 (70)	15 (17)	22 (26)	1000 (1161)
성 별	남자	150	84	281	387	61	15	23	1000
	여자	221	128	244	326	58	12	12	1000
연 령 별	12세-13세		222	111	556	111			1000
	14세-15세	106	118	235	412	59	35	35	1000
	16세-17세	145	90	257	434	55	13	06	1000
	18세 이상	167	80	292	360	63	11	27	1000

④ 가장 갖고 싶은 물건

원생들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건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소유하고 싶어하는 물품은 ‘자동차’(39.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컴퓨터’(25.2%), ‘오토바이’(12.3%), ‘핸드폰’(11.0%)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1/3이 넘는 원생들이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유하고 싶은 물건에서 남녀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자동차(자동차:40.5%, 컴퓨터:25.4%, 오토바이:13.0%)를 가장 갖고 싶어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핸드폰(핸드폰:43.3%, 자동차:23.3%, 컴퓨터:21.7)을 갖

고 싶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8세 이상을 제외하고, 가장 갖고 싶은 물건으로 '컴퓨터'를 선택하고 있는데, 12-13세의 경우 60.0%, 14-15세 33.3%, 16-17세 28.4%가 컴퓨터를 선호하고 있었다. 18세 이상의 경우는 '자동차'의 비율이 49.8%로 18세 이상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건으로 꼽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항목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며, '자동차'에 대한 비율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컴퓨터에 더 익숙하고, 자동차는 일정 나이가 되기 전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63> 현재 가장 갖고 싶은 물건

		컴퓨터	오디오	핸드폰	유명브랜드 의류	오토바이	자동차	기타	전 체
전	체(%)	25.2	1.9	11.0	5.3	12.3	39.6	4.7	100.0
	(빈도수)	(259)	(20)	(113)	(55)	(127)	(407)	(48)	(1029)
성 ¹ 별	남자	25.4	1.9	9.0	5.3	13.0	40.5	4.9	100.0
	여자	21.7	3.3	43.3	6.7		23.3	1.7	100.0
연 ² 령 별	12세-13세	60.0			10.0	20.0	10.0		100.0
	14세-15세	33.3		29.0	5.8	20.3	11.6		100.0
	16세-17세	28.4	1.4	13.3	7.7	21.1	23.5	4.6	100.0
	18세 이상	22.6	2.3	8.2	4.0	7.9	49.8	5.1	100.0
교 ³ 육 정 도	초등학교 졸업이하	40.0	5.0	27.5	5.0	2.5	15.0	5.0	100.0
	중학교 졸업이하	28.1	2.1	11.3	5.6	14.0	34.3	4.6	100.0
	고등학교 졸업이하	17.8	1.4	8.9	5.2	10.1	51.7	4.9	100.0
	중퇴이상								

1) $\chi^2=74.968$ $P<0.01$ 2) $\chi^2=132.165$ $P<0.01$ 3) $\chi^2=56.467$ $P<0.01$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 항목에 대한 비율은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정도가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령에 따른 차이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소결 : 교정복지서비스의 대안 모색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생 1,036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욕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조사결과 나타난 소년원생들의 욕구를 정책적 시사점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는 기준으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소년원 수용 기간, 소년원 수용 전의 직업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소년원생들의 교육정도는 중학교 중퇴가 43.2%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고등학교 중퇴로 29.0%이며, 중학교 졸업 12.2%, 중학교 재학 6.7%, 고등학교 재학 4.8% 순으로 나타나, 이들의 학교 중도탈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학 및 진학지도 혹은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훈련 교육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표 IV-4 참조)

한편,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의 직업으로는 무직(44.3%)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20.6%), 음식점 종업원(14.5%), 닥치는대로 일함(11.2%)순으로 나타났다(표 IV-6 참조). 이는 학교를 중도탈락한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떠돌아 다니다 비행을 하게되는 경우임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로써 퇴원 후 안정된 사후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재비행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가 생존해 있고 함께 살았다고 응답한 원생은 36.2%였고(표 IV-7 참조), 나머지 대다수의 원생들은 이혼, 별거, 편부모, 계부모 등 구조적으로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의 지원력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퇴원 후 안정된 사후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리 가정, 중간처우의 집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체제의 운영 등 여러 가지 구체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년원 교육에 대한 원생들의 만족도(58.5%)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반수 정도에 해당하는 원생들이 '보통'이하로 응답하고 있어(표 IV-13 참조), 원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가운데 소년원생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직업교육(35.3%)과 진학교육(21.6%)을 들고있다(표 IV-14 참조). 그러므로 검정고시 준비 등 진학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특별활동이나 상담 등 원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문제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적절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직업교육(36%)을, 여자의 경우는 진학교육(34.4%)을 들고 있다. 이것은 원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우선 순위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남자는 취업에 여자는 학교진학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남녀의 관심사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과 자신의 적성이 맞는다고 응답한 원생(27.2%)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과반수가 그저 그렇다(49.8%)고 응답하고 있어(표 IV-18 참조) 원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년원에서 보다 다양한 직업교육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원생들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7%(표 IV-20 참조)에 달했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원생들은 희망하는 직업훈련 종목으로 남녀 모두 '인터넷 등 정보분야'(남:58.85, 여 73.8%)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자는 '자동차 운전 수리' (22.3%), 여자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 (16.4%)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직업훈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년원 교육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소년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21.9%)고 응답한 원생과 그저 그렇다(31.6%)고 응답한 원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소년원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원생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표 IV-21 참조). 그러므로 원생들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취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원생들은 자신들이 취업하는데 있어 어떤 요소들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빈도에서 '실력과 경력이 부족하다' 42.7%, '문제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31.3%로 취업에 대한 장애로 이 두 항목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표 IV-23 참조). 이러한 비율을 통해서 원생들이 소년원의 직업 훈련만으로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30%가 넘는 원생들이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소년원생들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이 이들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외, 원생들은 자신이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한 요구(82.5%)가 매우 높았다(표 IV-16 참조). 또한, 과반수 정도의 원생들이 소년원을 퇴원한 후에도 계속 돌봐주는 교사를 원하고 있어, 원생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상황과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소년원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퇴원 이후의 진로 방향으로 원생들은 취업(40.8%)과 진학(37.2%)을 들고 있다. 여기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의 경우 '취직하겠다'(42.1%)가 '공부하겠다'(36.9%)보다 높은데 반해, 여자의 경우 '공부하겠다'(42.6%)가 '취직하겠다'(21.3%)보다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표 IV-2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여자는 진학교육(34.4%)을 남자는 직업교육(36%)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표 IV-14 참조).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취업정보 제공(76.6%)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였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72.0%), 무료 건강검진(70.8%),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68.3%),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67.2%) 등도 희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V-26 참조). 사회복지 분야별 희망 정도는 개인·심리적인 영역보다는 취업 및 직업훈련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이나 취업에 대한 소년원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원생들의 인지도 및 이용현황은 매우 낮았다(표 IV-27 참조). 청소년 수련시설(38.9%)과 청소년공부방(24.9%), 종합사회복지관(20.3%)을 제외한 시설의 이용도는 10% 내외로 매우 낮았으며, 근로 청소년회관(49.2%)이나 청소년회관(40.6%), 청소년공부방(23.3%) 등 소년원생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현존 지역의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이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생들은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청소년 전용 휴게실'(31.2%)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21.9%)과 '야영 캠프장'(21.2%)을 들었는데, 이처럼 청소년들은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기성세대와 사회에 바라는 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42.2%가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24.5%의 원생들은 '문제아로 보지 않았으면'(표 IV-30 참조)으로 응답하여 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희망하고 있었다.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전체 원생 중 21.1%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어딘가 질병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표 IV-31 참조>, 17.2%는 아플 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병원에 못 간 적이 있다고 응답 <표 IV-32 참조>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4.7%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57.9%가 “마음 편하게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55.8%가 “혼자만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6 참조>. 경제적 자립 및 퇴원 후의 거처는 원생들이 퇴원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건으로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구체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부모 및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점으로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39.1%)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16.5%)을 들었다 <표 IV-40 참조>. 소년원생의 대다수가 결손가정 출신으로 부모에 대한 동일시 정도(42.5%)는 비교적 낮고, 10명 가운데 2명은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표 IV-41, 42 참조>, 원생 10명 중 1명 정도는 가족 간에 갈등(11.1%)을 경험하고 있고, 폭력·학대로부터 은신이 필요하다(9.5%)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3명 정도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31.1%)을 호소하고 있었다 <표 IV-43, 4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사후 정착을 위한 가정의 지원력은 매우 희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리가정이나 중간 처우시설 및 담당교사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퇴원 후 원생들이 심리적인 안정상태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원생들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상, 친구관계, 고민이나 문제해결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원생들의 자아 만족도 낮은 편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감 때문에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는 원생(35.8%)이 전체의 1/3이 넘었다<표 IV-46 참조>.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비행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심성훈련이 교정교육 내용에 심도있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소년원생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하게되는 주요 매개체로서 친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이들의 친구에 대한 동일시 정도는 비교적 높아 '나는 가장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원생이 전체의 38.8%<표 IV-48 참조>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비행 친구들로 인해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정도도 비교적 높아 '친구들로 인해 좋지 않은 일에 곧 잘 빠져든다'고 응답한 원생(45.6%)은 거의 과반수에 달하고, '비행친구들만 없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고 응답한 원생(38.6%)도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표 IV-50 참조>. 이러한 결과는 친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과 동일시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지도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원생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았다.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원생의 비율은 62.8%였으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하는 경우도 63.3%, 개인과 가정문제의 상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로 나타나 개인문제 해결을 위한 원생들의 지원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V-52 참조>.

상담에 대한 희망정도는 비교적 높는데 비해 상담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상담교사와 상담경험이 있는 원생들은 24.5%에 불과해 소년원 상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담한 경험이 없는데 대한 이유로는 '상담할 문제가 없다'(21.8%), '부끄러워서'(18.6%), '상담 교사가 없다'(17.7%),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7.2%) 등을 들고 있는데 '상담 교사가 없다'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항목에 대한 높은 응답

비용은 소년원 상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표 IV-54 참조>.

원생들의 대다수는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68.3%가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표 IV-26 참조>. 또한, 대다수의 원생(80.8%)들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표 IV-57 참조>,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돈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부모’(30.6%), ‘아르바이트’(28.2%), ‘친구’(16.6%)를 들었으며, ‘훔치거나 뺏는다’는 응답도 13.8%에 달해<표 IV-59 참조>, 이들에게 있어 용돈 부족은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원생들은 자신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욕구를 갖고 있었다. 본 조사결과는 소년원생이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갖게되는 특수욕구와 일반적으로 갖을 수 있는 보편적 욕구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고, 각각의 영역에서 조사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로 소년원생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언급하였다. 향후 소년원 보호 소년을 위한 교정복지정책의 미시적인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소년원 내의 생활 및 교육 측면과 소년원 퇴원 후의 사후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구분하여 원생들의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복귀 및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V장 2절에서 상세히 고찰해 보도록 한다.

2. 면접조사

1) 조사설계 및 조사영역

(1) 조사대상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남녀 응답자의 비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자 소년원생과 여자 소년원생의 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10명씩 추출하였다. 본 조사는 설문조사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로서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하도록 조사대상자와 이미 라포(rappo)가 형성되어 있는 소년원에 재직중인 전문교사를 면접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진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

(2) 조사내용

면접조사는 현재의 소년원 생활 및 교육에 관련된 욕구와 퇴원 후의 진로, 고민 및 개인적 문제상황 등 소년원 퇴원 전과 후로 나누어 관련 욕구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현재의 소년원 생활 및 교육에 관련된 욕구는 향후 교정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소년원 퇴원 후 직면하게 될 문제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지원에 대한 욕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대안을 찾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주요 조사내용은 소년원 전반의 생활과 개선에 대한 욕구,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희망 교육 분야 및 개개인의 문제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 등이다.

2) 욕구 분석

(1) 면접대상자의 배경

먼저, 면접대상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년원에 입원하기까지의 가족 및 교우환경, 학력, 그리고 죄명 등을 알아보았다. 소년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로는 남녀 모두 특수절도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 원생의 경우 성폭력과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이 있었고, 여자원생의 경우는 보호관찰법 위반과 상습사기 및 약물복용이 있었다.

가정환경은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결손가정이었는데,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20명 중 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5명은 이혼, 별거, 편부모 및 계부모 등 구조적 결손가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원생의 경우 10명 중 9명이 결손가정 출신이었고, 1명만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학력도 대다수가 중학교 자퇴나 퇴학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고등학교를 재학중이거나 중퇴한 경우는 20명 중 3명뿐이었다. 중학교 중퇴의 경우도 17명 중 16명이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에 자퇴하거나 퇴학 처분 받은 경우로 소년원생들의 학력취득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IV-64> 면접대상자의 개인 배경

성별	죄명	가정환경	학력
남자	특수절도(7) 특수강도(1) 성폭력(1) 폭력(1)	정상적인 가정(4) 결손가정(6)	중1 중퇴(3), 중1 퇴학((4) 중1 자퇴(1), 중2 중퇴(1)
여자	특수절도(4) 보호관찰법위반(3) 상습사기(1) 약물복용(1)	정상적인 가정(1) 결손가정(9). 대부분 부모이혼·별거	중1 중퇴(1), 중1 퇴학(1) 중2 중퇴(1), 중2 퇴학(1) 중2 자퇴(1), 중3 퇴학(1) 고1 퇴학(1), 고2 중퇴(1) 고등학교 재학(1)

(2) 현재의 소년원 생활과 교정교육에 대한 평가 및 욕구

①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희망 교육분야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더 배우기를 희망하는 교육분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남자 원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은 만족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4명은 무응답이었다. 그러나 여자 원생의 경우는 무응답 4명을 제외한 6명 중 2명이 불만족을 표현했고, 만족한다는 원생은 4명뿐이었다. 여자 원생의 경우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 원생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더 배우기를 희망하는 교육분야로는 컴퓨터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정보분야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미용사 및 피부미용, 외국어 분야, 스포츠댄스, 요리사 및 의상코디네이션 등 다양한 분야가 거론되었다. 희망하는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녀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원생의 경우는 컴퓨터 분야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고, 여자 원생의 경우는 컴퓨터 분야를 비롯하여 외국어 분야와 미용 및 피부미용 분야를 선호하고 있었다. 한편, 미용과 요리를 희망하는 남자 원생이 각각 2명으로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직업 분야의 남녀구별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세부적인 언급사항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싶다'거나 '현재의 특성화교육의 자격증은 제한되어 있는데 인터넷 시험이나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의 제공을 희망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교육내용이나 방식과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컴퓨터 교육에서 엑셀 등과 같은 좀더 차원 높은 교육을 원하지만 단기과정인 관계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언급하는 원생이 있었고, 컴퓨터 관련 학과를 배우다보면 영어회화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영어와 컴퓨터 둘 다를 병행해서 하기를 원하는 원생도 있는 등

보다 질적인 교육 수준을 희망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교육방식의 문제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기 보다는 강요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다보니 교육내용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원생도 있었다.

<표 IV-65> 소년원 교육의 만족도 및 희망 직업교육 분야

성별	만족도	더 배우고 싶은 직업교육 분야
남자	만족(6) 무응답(4)	컴퓨터 분야(4), 스포츠 댄스(1) 미용사(2), 조리사(1), 요리사(1)
여자	만족(4) 불만족(2) 무응답(4)	미용·피부미용(2) 컴퓨터·컴퓨터 애니메이션(2) 제빵·요리(1), 의상코디네이션(1), 외국어(2)

② 소년원 교육의 효과

소년원의 특성화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이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소년원 교육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남녀간의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즉, 거의 모든 남자 원생이 소년원 교육은 향후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반면, 여자 원생의 경우는 10명 중 3명이 교육분야에 따라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3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소년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남자 원생에 비해 낮았던 여자 원생은 소년원의 특성화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의 향후 효과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로써 여자원생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분야 및 교육내용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분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소년원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비해 지나치게 전문적 교

육이라며 실제적인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측면도 강했다. 특히, 컴퓨터 교육은 일반적인 기초지식을 배우는데 불과하며, 단기과정이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취업을 위해 미용이나 요리 등의 기능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더 유용할 것이라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특성화교육보다 기능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희망하는 원생도 있었다.

한편, 남자 원생들의 경우는 소년원의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컴퓨터 교육의 효과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66> 소년원 교육이 향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성별	도움 여부
남자	· 모든 학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여자	· 도움이 된다(3) · 도움이 되지 않는다(3) · 교육분야에 따라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3)

③ 소년원 생활의 평가 및 개선점

소년원 생활은 원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소년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년원 생활을 하며 생긴 긍정적인 변화로는 생활태도와 성격의 변화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규칙적인 생활, 참을성과 침착성의 향상, 협동심, 가족의 소중함 등을 구체적인 요소로 들고 있다. 또한,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는데, 공부에 대한 흥미는 남자원생 10명 중 4명이 언급할 정도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지만, 여자 원생의

경우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교육의 만족도 및 이해도 평가 항목에서 여자 원생의 경우가 남자 원생보다 많이 낮았던 설문조사 결과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부정적인 변화로는 다양한 항목이 언급되고 있는데, 초조하고 예민해지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성격변화, 비행친구와 알게 되는 점, 창의적 생각이 없어지고 머리가 텅 빈 느낌, 친구를 못 만나고 자유가 없는 점, 단체 생활에 그냥 따라가게 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생들이 부정적인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표 IV-67>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변화

성별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남자	· 공부에 흥미(4) · 성격변화(4) · 참을성과 침착성 향상 · 생활반성(2)	· 창의적 생각이 없어짐(1) · 자유가 없다(1) · 비행친구를 알게 된 것(1) · 부모,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1) · 성격이 급해지고 짜증이 늘어남(1) · 단체생활에 순응(1)
여자	· 생활태도· 성격 변화(8) · 협동심, 인내력, 규칙적 생활, 가족의 소중함	· 욕을 많이 배움(1) · 성격변화(2): 초조, 걱정, 예민, 독해짐

소년원 생활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남녀 모두 수면시간의 연장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또한 면회시간과 서신왕래의 기회를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의 보다 원활한 접촉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가정과 같은 화목한 분위기를 원하며, 선생님들과 상담이 아니더라도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길 희망했다.

교육과 관련된 지적사항도 많았는데, 남자 원생의 경우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으며, 주어진 시간표대로 교육시간이 지켜지기를 원했다. 또한 체육시간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신

입생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했다. 여자 원생의 경우도 교사 1인당 1과목 수업을 원했고, 현장학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복잡한 교육내용과 많은 수업시간을 축소하고 독서와 같은 자율시간이 연장되기를 희망했다. 이처럼 교육과 관련된 개선사항이 자주 거론되었는데, 주요 요구사항은 개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이 강제적이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과, 실적위주의 복잡한 교과교육을 줄이고 체육시간과 현장학습과 같은 특별활동 시간이 연장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외 여자 원생들은 독방이나 매점, 목욕시설의 청결과 같은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여러 명이 방을 함께 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며 독방을 희망했고, 매점이 설치되어 간식을 마음껏 사먹을 수 있기를 원하는 등 여자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표 IV-68> 소년원에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점

성별	개 선 회 망 사 항
남자	· 수면시간 연장(3), 면회시간 연장(2), 체육시간 연장(2) · 원내 호실의 분위기와 생활공간의 변화(2) (가정적 분위기, 컴퓨터의 지속적인 활용 등) · 시간표 준수(1), 능력을 고려한 교육(1) · 신입생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보장(1)
여자	· 수면시간(3) (정해진 시간에 기상할 것, 점호의 감소, 수면시간 연장) · 친구들과의 편지 왕래(2), 선생님과의 상담 혹은 편안한 대화(1) · 정기적인 현장 학습의 기회(1), 1교사 1과목 운영(1) · 수업시간 축소, 자율적 시간 확대(1), 자율적 생활수칙(1) · 목욕시설의 청결과 목욕시간 연장(1), 독방(1), 매점(1)

④ 현재의 고민 및 해결 방안

현재 원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으로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퇴원 후의

진로문제와 동성과 이성을 포함한 친구문제, 그리고 가족문제였다.

진로문제는 퇴원 후 취업과 복학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업현장 혹은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친구문제의 경우, 남자 원생들은 여자친구에게 편지가 오지 않음을 염려하거나 소년원에 오기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떨어져 있게되어 고민하는 등 이성문제와 동성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 지는 것을 염려하는 등 친구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여자 원생들도 소년원에 오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등 이성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가족문제의 경우는 부모의 별거나 병환, 알코올 중독 등 가정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역할이 소진되어 감을 염려하고 있었고, 면회를 오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 퇴원 후의 사회재적응 문제와 재비행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 등 다양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었다.

<표 IV-69> 현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고민

성별	고 민 거 리
남자	· 친구문제(3: 이성친구, 동성친구와의 관계) · 가정문제(3: 부모별거, 병환 등) · 퇴원 후의 생활(2: 복학 등)
여자	· 진로문제(2), 이성문제(2), 사회재적응(1), 재비행(1) · 가족문제(부모의 병환, 알콜 중독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취업알선, 자격증 취득 및 진학지도 등 진로와 사회재적응을 위한 지원을 들었고,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및 친구들과의 편지교류 확대 등을 언급하였다.

사회에 나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을 갖도록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 대상을 원하고 있었으며, 취업이나 진학 등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취업현장 및 학교로부터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길 희망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문제 및 부모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및 가족과 자유로운 전화통화가 요구되었으며, 대리부모 역할을 희망하는 원생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원생들의 고민거리는 취업과 복학 등 진로문제와 부모간의 불화 및 원생과 부모와의 갈등 등 가족문제, 그리고 동성과 이성을 포함한 친구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취업 알선 및 진학 지도,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및 지원, 그리고 친구문제 해결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표 IV-70>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성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
남자	· 진로에 대한 지원 및 사회재적응(4' 취업, 진학, 자격증 등) · 가정문제에 대한 지원(3' 경제적 문제, 대리부모 필요 등) · 전화통화의 기회 확대(2)
여자	· 진로 및 사회 재적응을 위한 상담(4) · 친구들과의 편지 교류 확대(2) · 원생들간의 위계 관계 개선(1)

(3) 소년원 퇴원 후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지원에 대한 욕구

① 퇴원 후 거처 및 계획

소년원에서 퇴원 한 후 원활한 사회재적응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퇴원 후의 거처와 계획을 질문하였다.

대다수의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아직 적당한 거처를 찾지 못해 결정을 못한 원생도 있었고,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어 친척집이나 갱생보호기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한 집에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부모가 별거중이므로 제대로 양육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원생, 혹은 집에 돌아갈 생각이지만 부모가 받아줄지 불확실한 경우,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등 가정에 계속 머물며 가족의 지원 하에 원만하게 사회에 재적응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화목한 가정 분위기에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원생과 친척집을 언급하는 원생도 있었다. 또한, 소년원 생활을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착실하게 생활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원생들도 있었다.

<표 IV-71> 퇴원 후 거처

성별	퇴원 후 머물게 될 곳
남자	· 집(6), 친척(1. 작은 아버지), · 숙식제공기관 고려(1), 갱생보호기관(1)
여자	· 집(6), 결정못함(1. 집으로 갈지, 친구와 살지 결정 못함)

퇴원 후의 계획으로는 학교 복학, 검정고시 등 진학과 관련 된 응답과 취업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을 배우겠다는 응답이 주종을 이룬다. 취업과 진학이라는 갈림길에서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경우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원생도 발견되었다. 학교복학이나 검정고시 등을 언급하는데 있어서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원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직종 및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표현되고 있다.

학교진학과 취업이라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설문 조사와 마찬가지로 남녀별 차이가 나타난다. 남자 원생의 경우는 진학보다는 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여자 원생의 경우는 복학이나 진학 등 학교 진학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었다.

<표 IV-72> 퇴원 후 계획

성별	퇴원 후 계획하는 일
남자	· 취업(4), 자격증 획득(2), 검정고시 후 진학(1), 검정고시 후 취업(1) ·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 달성(1) · 일하며 공부할 계획(1), 취업(1)
여자	· 검정고시(3), 학교진학(3), 취업(2), 자격증 취득(1), · 악세사리 가게 운영(1)

② 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퇴원 후 자신이 계획한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았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분야로 좁혀짐에 따라 취업을 위한 지원, 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취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지식 획득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취업을 알선해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진학을 위한 지원사항으로는 검정고시를 위한 각종 지원과 학교에 복학했을 때 문제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 및 친구 등 주변의 따뜻한 배려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와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희망도가 매우 높았는데,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심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학이나 취업준비가 가능하므로 안정된 주거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표 IV-73> 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성별	퇴원 후 필요한 도움
남자	· 취업을 위한 지원(6 자격증 획득의 기회, 취업정보 및 알선), · 복학 및 검정고시(2) ·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3 생활비지원, 주거공간) · 부모의 화해(1), 도움 필요 없음(1)
여자	· 진로·취업 및 진학(5), · 주거와 안정된 직장(2) 생활비 보조(1) · 가게운영에 대한 정보 및 지식(1) · 도움 필요없음(2)

③ 퇴원 후 염려되는 문제

소년원을 퇴원 한 후, 원생들은 어떤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또다시 비행을 저지르게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었으며, 소년원에 오기 전에 저질렀던 비행으로 재구속을 염려하는 원생도 있었다. 한편, 진학과 취업에 대한 불안과 원만하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으며, 가정내의 문제나 가족관계를 염려하거나 약물에 대한 유혹, 퇴원 후 거처 및 생활비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IV-74> 퇴원 후 염려되는 문제

성별	퇴원 후 염려되는 문제
남자	· 재비행 및 비행 동료들과의 관계(6) · 가정문제(2: 가족문제 해결 및 가정 화목), 진학과 취업(2)
여자	· 재비행 및 비행 동료들과의 관계(4), 생활비(2) · 사회적응문제(1), 취업문제(1) · 소년원에 들어오기 전 저질렀던 비행으로 재구속될까 걱정(1)

한편,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다 재범을 저지르고, 또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첫째,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기억(자유의 박탈, 강제적 생활방식, 새로운 비행의 학습 등)으로 인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측면, 둘째로 소년원 교육을 통해 많이 배우고 스스로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자신감도 찾았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재범으로 잃어버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운 측면 등이다.

그러므로 또다시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재범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 예를 들어 진학 혹은 취업 등 진로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 문제 발생 시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지원 등 사후 정착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면접과정에서 원생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4) 면접사례 예시

<현재의 소년원 생활과 교정교육에 대한 평가 및 욕구>

□ 면접대상자의 배경 설명

(적명, 입원하기까지의 가족 및 교우환경, 학력 등)

➔ ○ 이 름 박**(19세)

○ 비행명 · 상습사기. 이전의 비행으로는 폭력, 사기, 유락행위 등이 있었으나 소년원 송치의 직접적인 비행은 '상습 사기'임

○ 가족관계 : 부모와 형제간의 관계가 원만하여 면회와 통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가족유대감은 높은 편이며, 경제적인 수준도 중류정도 해당함.

○ 교우관계 : 교우관계 원만. 그렇지만 일찍 비행을 접하면서 시작한 사회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인 또래(학생)들 보다는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주됨.

○ 학 력 : 중2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술·담배를 하는 등 비행에 접하게 되었고, 결국 중2때 잦은 결석으로 퇴학처리가 됨. 현재 원에서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

○ 기 타 : 현재 학과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여러 교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지적능력이 우수하여 학습에 있어서도 우수한 면을 보여 각종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리더십과 동료애가 강하다.

⑥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

- ➡ 가끔씩은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친구나 선생님은 있지만,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 놓고 싶다. 예를들면 펜팔친구나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구.....뭔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상대가 있었으면 좀 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숨기는 것과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털어 놓기가 힘들다.

<소년원 퇴원 후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지원에 대한 욕구>

① 퇴원 후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퇴원 후 당분간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용할 생각인가?
(없다면 그 이유는? 있다면 어떤 규모의 어떤 분위기를 원하나?)

- ➡ 이곳에서 퇴원을 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입원하기 전에는 솔직히 집이 싫어서 가출도 많이 하고, 부모님들에게 반항도 많이 하고..... 가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정말 안해 본 고생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퇴원을 하면 정말로 어디보다도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생활 할 것이다. 정말이지 소년원에 들어와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다. 집이 그리다. 집에서 식구들이랑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뒹구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리다.

② 퇴원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복교, 취직, 검정고시 등)

- ➡ 우선은 바로 '대입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볼 생각이다.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취업을 하던지 진학을 하던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써 먹을 수 있는 직업이나 학과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좀 아는 것이라서 자신감도 있고 흥미도 있고 그럴 것 같다. 아직은 검정고시를 볼 계획만 확실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퇴원하기 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하고 싶다.

③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

(생활비, 주거, 취업, 진로 등)

- ➡ 위의 예에서 굳이 고르라면 '진로'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다. 어쩌면 우리들은 가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퇴원 한 다음에도 길을 못 찾아 다시 그 길로 들어서고 싶지는 않다. 아직 내 미래에 대한 확신과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서인지 내게 과연 어떤 길이 어울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하는 내게 큰 힘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진정으로 날 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

④퇴원 후 염려되는 문제는?

(취업, 비행동로관계, 술, 약물 유혹, 가족관계, 생활비 문제, 진학, 거주지가 없다 등)

- ➡ 솔직히 지금 나는 '상습사기'로 여기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 중에서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퇴원을 했는데 이전의 다른 비행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구속되어 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이도 있어서 이제는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일도 모른다는 것과 근심이 때론 가슴을 짓누른다 소년원에 들어와서 많이 배우고 나 자신도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자신감도 찾았는데, 이전의 비행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렵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힘도 없고, 내 인생을 포기할 것 같다.

⑤어려움이 생길 때 의논할 상대가 있는가?

- ➡ 있다. 우선은 가족 중에서는 엄마와 언니. 내가 중1때부터 정말이지 꿈이지 않고 말썽만 피우고 말썽차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순간도 날 포기하지 않고 항상 내편이 되어주는 엄마와 언니.... 이젠 엄마와 언니를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고 싶다. 소년원에서는 친구들과 언니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담임 선생님, 상담선생님, 컴퓨터선생님... . 가끔씩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게 쓴 조언과 힘있는 격려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누군가가 날 지켜봐 주고 있다는 사실이 예전에는 부담이었는데 이젠 힘이 된다는 걸 깨달게 되었다.

⑥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 ➡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컴퓨터 그래픽스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게 된다. 내가 어태껏 시도한 자격증 중에서 가장 수준있는 자격증인 것 같아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다. 그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한 언니들이 항상 부러웠는데..... 그래서 인지 욕심이 더 난다. 꼭 따고 싶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인정받고 싶고, 나도 해 낼 수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싶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작성에 관심이 많다. 좀더 예쁘고 멋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라도 그래픽 공부를 열심히 해 보고 싶다..... 지금 내게 필요한 지원은 어태껏 처럼 내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뿐이다. 뭐든지 내가 잘 해야,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든다. 자격증 같은 걸 보면..... 그건 사기를 쳐서, 훔쳐서도 딸 수 없는 거다. 내가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다. 가끔씩은 그런 긴장된 교육시간 틈틈이 내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뭐든 열심히 하고 싶다..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원생들은 소년원 내부의 생활과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에 관해 다양한 개선 욕구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퇴원 후 직면하게 될 문제상황의 해결과 하고 싶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먼저, 현재 받고 있는 소년원의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원생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더 배우기를 희망하는 교육분야로는 컴퓨터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정보분야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여자의 경우 미용사 및 피부미용, 외국어 분야, 요리사 및 의상코디네이션 등 다양한 분야가 거론되었다. 이처럼 여자 원생의 교육 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희망하는 다른 교

육분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원생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이 단기과정으로 이루어져 엑셀 등과 같은 고차원 교육은 기대할 수 없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므로 취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원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모든 소년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컴퓨터 교육과 영어 교육은 소년원생들에 의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컴퓨터 관련 학과를 배우다보면 영어회화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배우고 싶은 의욕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영어와 컴퓨터 둘 다를 병행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일도 고려할 사항이다.

교육방식의 문제로는 강요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다보니 교육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실적 위주의 강압적인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원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의지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활동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활동 및 각종 현장 학습과 문화예술활동 등 특별활동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년원 생활의 개선사항으로는 남녀 원생 모두 수면시간의 연장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고, 면회시간과 서신왕래의 기회를 늘려 주어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 보다 원활하게 접촉하기를 원했다. 소년원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원생들에게는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나 서신왕래를 통해 외부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함이 필요하며, 가정과 같은 화목한 분위기에서 교사와도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여자 원생들은 독방이나 매점, 목욕시설의 청결과 같은 생활에

서 겪는 불편함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여자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잠자리와 목욕시설에 대한 배려 및 간식을 사먹는 것이 가능하도록 매점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퇴원 후 직면하게 될 문제상황의 해결과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소년원을 퇴원 한 후,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로 원생들은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또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들고있다. 또한 진학과 취업에 대한 불안과 원만하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으며, 가정내의 문제와 가족관계를 염려하거나 약물에 대한 유혹, 퇴원 후 거처 및 생활비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재범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안, 예를 들어 진학 혹은 취업 등 진로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직면해 있는 문제를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지원 등 사후 정착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퇴원 후의 계획으로는 학교 복학, 검정고시 등 진학과 관련 된 응답과 취업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을 배우겠다는 응답이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으로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및 취업 알선, 그리고 학교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및 복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소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와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3. 전문가 의견조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직중인 학과 및 직업훈련 교사, 상담교사 등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교정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범

죄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설계

(1) 조사대상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직중인 학과 및 직업훈련교사, 상담교사 등 현장 전문가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많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소년원 지도 경력을 지닌 교사를 선정하는데 주력하였다.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9명으로 남자 21명, 여자 8명이었으며, 5년 이상의 경력자가 대부분이었고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도 11명이나 되었다. 담당업무는 생활지도 교사와 학과교육 교사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었다.

(2) 조사내용

주된 조사내용은 현재 소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향후 범죄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교정복지 정책 수립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2) 소년원 교육에 대한 평가

(1) 특성화 교육 및 직업훈련교육

현재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은 원생들의 교정과 사회재적응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분의 1정도의 응답자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 부족과 소년원생들의 열의 및 자질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심성교육과 인성교육에 소홀해지는 점, 영어교육이 오히려 자기비하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자격증도 취득하는 자와 취득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 현실적으로 사회재적응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원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실시 등이 제안되었으며,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관련하여 유능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교사가 교과목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소년원의 제반 교육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한편,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과 사회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직업훈련과목의 다양성 증대가 언급되었다. 또한,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 및 학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형식적인 자격증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소년원생의 열의와 자질 부족으로 인한 소년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더 개설되어야 할 직업훈련과목으로는 제과사, 제빵분야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요리기술 및 영어, 컴퓨터 관련 교육 분야도 자주 거론되었다.

(2) 특별활동 교육

원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건상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에너지가 넘쳐나는 원생들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

향이 있고, 야영훈련, 악대반, 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평상시 모든 원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원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특별활동은 형식적이고 생색내는 차원에서 운영되었음을 지적하며, 스키캠프, 음악공연 관람, 연극공연 관람 등 원생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제공되는 프로그램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으므로, 레크리에이션이나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과 바둑, 서예 등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확충도 언급되었다. 특히,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하나의 교육적인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포함한 물적 자원을 비롯하여, 내실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활동 지도가 가능한 전문 강사의 자체 육성 및 외부 전문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초빙 등 인적 자원의 구비 등이 전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3) 상담활동

원생들을 위해 충분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원생들은 자신의 고충을 교사에게 솔직하게 상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소년원의 각종 행정 업무, 당직, 행사 등 잡무와 많은 학생수로 인하여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원생들은 급우들의 보복, 의심, 거부 등을 두려워하여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 등 감독자와 피 감독자의 위치에서 솔직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상담기법에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상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상담교사 전담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하였고, 학생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상담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한편, 전문상담보다는 담임의 권한을 확대하여 담임교사가 상담을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래 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 도입과 원생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평소 원생들을 지도하면서 혹은 상담하면서 원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나 고민으로 교사들은 가정 특히, 부모에 대한 갈등과 고민, 그리고 퇴원 후의 진로와 생활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또한 수용생활에서 급우 간 갈등과 퇴원 후 사회 적응 문제도 원생들의 고민거리였으며, 재비행이나 단절된 사회생활에 대한 불만, 간식과 운동시간의 부족 등도 원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후관리

소년원에서 원생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소년원마다 “취업 및 사후관리 총괄센터”가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요인으로서는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 경제적 여건의 미흡과 형식적인 사후지도, 원생 대부분이 가출하여 연락두절 된 상태 등을 꼽았다. 또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원생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후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년원생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퇴원 후 소년원에 출석하여 복학, 취업 등 지속적인 사후지도가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과중한 업무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을 소수로 편성하고 사후관리 대상자까지도 반에 편성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 사회재적응 지원

원생들이 퇴원을 한 후, 사회재적응을 위해 정부나 지역사회가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전문가들은 원생들의 자립여건을 들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년원 수용기간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자격취득을 못한 원생들에 대해서는 퇴원 후 국가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에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원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원생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인식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인적 연계망을 형성하여 원생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아울러 보호관찰지도위원과 사후관리 총괄센터의 관찰활동을 강화하여 원생들의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퇴원생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의 설립도 언급되었다. 그 외, 주거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원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 본인의 의지 강화를 위한 의식교육과 가치관 교육, 대안학교의 신설 및 진학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3) 교정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1) 현행 교정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 복지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은 날로 개선되고 있고, 이들의 보다 올바른 사회적응을 위한 재비행 방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전한 사회적응과 재비행 방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는,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국민 공통교육인 학력취득을 소홀히 다루는 점, 인성교육 및 심성교육보다는 자격증 실적 때문에 가르치기에 급급한 점,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성취감이 학생들에게 유용하겠지만 학교 및 사회에서 뒤쳐져 있던 원생들에게 또다시 주입식 및 강제식의 교육을 하게 되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한편, 사회내 처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단순히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명예나 기타 허울좋은 감독으로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고, 실제 보호학생을 위한 선도가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교정복지 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위기개입이 미비한 점,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퇴원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중·고교 중퇴생임을 감안한다면 퇴원 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혹은 취업 후 일정기간 정착하기까지의 상당기간 동안 책임지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검정고시를 통한 상급학교 진학과 군 입대, 취업 등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재비행률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의 교정복지 정책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가시적인 발전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범죄전력을 가진 원생들의 완전한 사회복귀에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에서 직업으로 활용하고 생활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학력이나 기술을 가르쳐야 하지만, 현 원생들이 소년원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는 취업에 한계가 있고, 3D직종이 많아 취업 후 장기적인 근무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운영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통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범죄 전력을 가진 청소년들도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사회지지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범죄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향후 비행청소년을 포함하여 범죄청소년의 교정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취업을 위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학력취득, 그리고 사후정착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 등 범죄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자격취득시까지의 직업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경우가 가정의 심리적 혹은 경제적 지원세력이 미흡한 원생들에게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일이 요구되어지는데, 자격취득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장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교육을 국비로 하여 자격 취득까지의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제안되었다.

학력과 관련하여서는 원활한 복학체제 마련, 대안학교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설립 등이 제안되었는데, 일시적인 비행 혹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하여 사회재적응을 어렵게 하고 또다시 비행의 길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력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현재, 소년원의 명칭이 학교라는 명칭으로 전환되었고, 소년원에서 받은 교육이 학력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소년원에서 이수한 교육기간을 이전에 다니던 학교로 가져가 그곳 학교에서 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소년원이 명칭을 전환하고, 생활환경이나 교육내용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소년원에 대한 원생 자신들의 인식을 포함하여 사회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내실 있는 학력 구제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원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생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소년원을 퇴원 한 후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이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소년원 수용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이 불가피했던 원생들에게 퇴원 후 바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해가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인의 자립능력과 가정의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원력이 없을 경우, 결국 기존의 소속 또래집단에 연루되어 재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차원의 시설인 “중간 보호시설”의 운영이 필요함을 여러 전문가가 강조하였다. 퇴원에 임박한 청소년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중간시설에 거주하면서 사회복지사로부터 개별적 차원의 감독, 지도를 받으며 사회적응력을 키운 다음 사회로 복귀된다면, 원생들의 사회재적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재비행의 위험이 한층 감소될 것이다. 이 때 사회복지사는 가정과 복학할 학교, 지역사회내 청소년 문화쉼터, 적절한 취업처 등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학교, 가정, 각종 사회단체 및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적인 조직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되어졌는데, 지역사회의 비행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 교육기관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력을 구축하며, 대리 부모나 보호관찰 등이 감독 측면이 아닌 심리적, 교육적,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원생들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소년원생의 퇴원 후 보호관찰은 소년원에서 계속하는 것이 더욱 일관된 사후지도로써 취업이나 복학 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 제안하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퇴원생을 위한 보호관찰제는 보호관찰관의 지나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소년원생 스스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년원에서

담당 교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원생들의 신상과 개인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재범 우려가 있는 원생들만 집중적으로 출석 지도하고, 취업 및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월 1회 정도 통신지도로 대처한다면, 취업자 및 학생들의 출석지도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위에서 제시되어진 것 이외에도 소년원생 출신으로 낙인되어지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늘리고 ‘중간처우의 집(Halfway-House)’과 같은 퇴원생의 사회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설립을 추진하며, 무의탁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 불우한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며 가정과 연락이 안 되는 원생들의 연고자 찾아주기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을 제안하였다.

4)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원생들을 일선에서 지도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현재 소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향후 범죄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교정복지 정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을 비롯한 특별활동 교육, 상담활동 및 사후관리체제 등 전반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 부족과 소년원생들의 열의 및 자질부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또한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심성교육과 인성교

육에 소홀해지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1인 1과목 운영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원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사회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하고 직업훈련과목이 원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식적인 자격증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소년원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열의와 자질 부족으로 인한 소년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현재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원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수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원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건상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양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원생들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및 야외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이고 생색내는 차원의 특별활동이 아니라 스키캠프, 음악공연 관람, 연극공연 관람 등 원생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생들 개인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활동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교사들의 각종 행정 업무, 당직, 행사 등 잡무를 줄이고 담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 형식적인 상담에서 탈피하여 보다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급우들의 보복, 의심, 거부 등이 두려워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않고, 감독자와 피 감독자의 위치에서 솔직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담기법에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교사 전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또래상담이나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시도하고, 원생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

로 판단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퇴원 후 원생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취업 및 사후관리 총괄센터'가 소년원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 경제적 여건의 미흡, 원생 대부분이 가출하여 연락두절 된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원생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후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년원생에 대한 보호관찰 및 복학, 취업 등의 사후지도는 소년원의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반을 소수로 편성하고, 사후관리 대상까지도 반에 편성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인 교정복지정책을 수립하기 대안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현행의 교정복지 정책은 그간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가시적인 발전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범죄전력을 가진 원생들이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하는데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원생들이 소년원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는 취업에 한계가 있고, 3D직종이 많아 취업 후 장기적인 근무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하며, 아울러 범죄 전력을 가진 청소년들도 사회적 낙인 없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사회지지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향후 범죄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는 취업을 위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학력취득, 그리고 사후정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취득시까지의 직업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경제적 지원력이 없는 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장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하여 자격 취득시까지 국가차원에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력과 관련하여서는 일시적인 비행으로 인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복학체제 마련, 대안학교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설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력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소년원의 명칭이 학교라는 명칭으로 전환되었고, 소년원에서 받은 교육이 학력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년원에 대한 원생 자신들의 인식을 포함하여 사회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는 학력 구제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소년원 퇴원 후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이 중요하다. 본인의 자립능력과 가정의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원력이 없을 경우 재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을 고려하여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차원의 시설인 “중간 보호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을 퇴원 한 후, 그 곳의 사회복지사로부터 개별적 차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면 원생들의 사회재적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재비행의 위험은 한층 줄어들 것이다. 이 때, 가정과 복학할 학교, 지역사회내 청소년 문화쉼터, 적절한 취업처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효과는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년원생의 퇴원 후 보호관찰은 소년원에서 계속하는 것이 더욱 일관된 사후지도로써 취업이나 복학 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다. 소년원에서 담당 교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원생들의 신상과 개인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 외, 무의탁 청소년과 가정적으로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및 약물이나 환각제 상습 복용자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추진함에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필요로 하지만, 퇴원생의 원만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될 커다란 사회문제 및 병폐현상을 고려한다면, 사전 예방적인 대책이 오히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

V. 한국 교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1. 정책의 방향
2. 정책제언 : 효율적인 교정복지서비스 방안

공 백

V. 한국 교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소년원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퇴원생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복지사법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소년원생의 생활실태와 심리, 사후 정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욕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된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소년원생의 안정된 사후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교정복지정책의 방향과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책의 방향

1) 획일적 처우의 개선

현행의 교정 관련 법률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구속과 통제를 전제로 한 형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범죄자의 교정·교화 및 갱생, 즉 개인의 건전한 주체성 확립과 자립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제도이다. 과거의 범죄자는 시민의 대립자로서 단지 단죄나 처벌의 대상밖에 되지 못했으나 오늘날의 법제도는 범죄자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개인의 주체성 확립과 자립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형벌집행의 대상에서 교정과 재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 및 비행을 범한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죄를 범한 소년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직 성장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재 다소 획일적이고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정교육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겠고, 처우의 강도(요보호성) 역시 개인에 따라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소년의 필요와 욕구에 적합한 처우와 수용기간을 결정하여 탄력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주체성 확립과 자립능력의 신장이라는 교정처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방향 수립

소년원생 개개인의 학력, 가정환경, 비행적 특성 등 개인이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소년원 교육이 원생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년 개인이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소년원생 대다수는 중학교 중퇴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를 중도탈락한 무직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가정환경은 부모의 이혼, 별거 혹은 편부모나 계부모 슬하 등 구조적으로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하여 가정의 심리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소년원생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죄명은 특수절도와 절도로 인성교육과 특별활동 교육 등에 이러한 측면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복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개인의 비행적 특성을 감안하여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교육참여의 자발성 촉진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집단적 처우 중심의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자발적 참여와 개별적 처우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현행 소년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원생들의 자발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집단적 처우 중심의 형식을 띠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혹은 검정고시 합격 등 실적위주의 강요에 의한 교육을 받다보니 개인의 관심과 흥미가 배제되어 열의를 잃게 되고 교육내용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실적 위주의 강압적인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원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의지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활동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활동 및 각종 현장 학습과 문화예술활동 및 심성훈련교육 등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소년의 교정·교화라는 궁극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처우 중심에서 개별적 처우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 자원의 유기적 협조망 구축

소년원 교정교육 및 사후지도와 관련된 각종 교육기관 및 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상호 협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소년원생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발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각종 인적·물적자원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때,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격증 취득과 취업과 관련한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정보센터, 학력 취득과 관련된 대안학교, 직업훈련학교, 청소년회관, 청소년공부방 등 교

육관련기관 및 사후지도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이 상호 연계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학교, 가정, 각종 사회단체 및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연계망 구축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되었는데, 이 때 소년보호 교육기관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력과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정책제언 : 효율적인 교정복지서비스 방안

III장 5절에서는 교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복지사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복지적 개념을 재조망하고 모든 소년 사법과정에 복지적 관점이 내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수립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보호소년을 위한 거시적 측면의 복지사법 정책을 기초로 하여 보호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정복지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대안들을 교정복지정책의 미시적 측면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안은 IV장에서 상세히 기술되었던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을 위한 대안과 퇴원 후의 안정적인 사후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대안

(1) 원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희망하는 교육을 열의와 노력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대다수의 원생들은 현재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교육 분야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희망하는 직업훈련종목으로는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정보분야를 비롯하여 스포츠댄스, 미용 및 피부미용, 의상코디네이션, 요리, 제빵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년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원생들이 많았던 설문조사 결과와 현재 소년원 교육의 문제점으로 원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 부족을 지적했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는 원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전문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의 운영

취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의 내용과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

면접조사에서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은 단기과정으로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엑셀 등과 같은 고차원 교육은 기대할 수 없는 점을 아쉬워했다. 또한, 소년원에서 받은 교육으로 취업의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실력과 경력 부족'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제안되어진 것처럼 취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직업교육 내용과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원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학력취득 기회의 강화

검정고시 준비, 원활한 복학체제 마련, 대안학교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력구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장 전문가들은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격증 취득에 치우쳐 학력취득을 소홀히 다루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다수 원생의 학력이 중학교 중퇴자이고, 학교 복학이나 진학이 대다수 원생들의 퇴원 후 희망사항인 동시에 고민거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도 학력은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기시험에 합격하고도 필기시험에서 계속 실패하여 좌절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학력취득은 차치하고 기초적인 학습능력만이라도 기를 수 있도록 훈련시킴이 필요하다.

학력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검정고시 준비, 원활한 복학체제 마련, 대안학교,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비행 혹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하여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또다시 비행의 길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력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소년원의 명칭이 학교라는 명칭으로 전환되었고, 소년원에서 받은 교육이 학력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소년원에서 이수한 교육기간을 이전에 다니던 학교로 가져가 그곳 학교에서 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소년원이 명칭을 전환하고, 생활환경이나 교육내용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소년원에 대한 원생 자신들의 인식을 포함하여 사회

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내실 있는 학력 구제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특별활동교육의 활성화

현재 수적으로 부족하고, 형식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미·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늘리고, 원생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현재 소년원에서는 원생들을 위한 특별활동교육으로 여러 가지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여건상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에너지가 넘쳐나는 원생들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모든 원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체육활동이나 야영활동 및 각종 공연관람 등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바둑, 서예 등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형식적이고 생색내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의 교육적인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등 물적 자원을 비롯하여, 특별활동 지도가 가능한 전문 강사의 자체 육성 및 외부 전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초빙 등 인적 자원의 구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5) 상담교사 전담제 도입

담임교사의 잡무와 많은 원생 수로 인하여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교사 전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원생들은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대상을 원하고 있고, 개인

및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욕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상담경험은 설문조사 결과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상담해 본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수치심, 상담교사의 부재,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등의 요인을 들고 있는데, 교사들 자신도 소년원의 각종 행정 업무, 당직, 행사 등 잡무와 많은 학생수로 인하여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고 있다고 의견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상담교사 전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학생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상담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래상담이나 집단상담, 원생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고해야 한다.

(6) 소년원의 생활규칙 및 생활환경의 개선

수면시간의 연장과 점호시간의 축소 등 소년원 생활규칙을 완화하고 협소한 잠자리 개선 및 매점의 설치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일정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자체가 원생들에게는 구속임과 동시에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여기에 소년원의 생활규칙이 엄격하고 생활환경에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중 혹은 삼중으로 가중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면접조사 결과, 소년원 생활의 개선사항으로는 남녀 원생 모두 수면시간의 연장과 점호시간의 축소를 가장 희망하고 있었고, 면회시간과 서신왕래의 기회를 늘려 주어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 보다 원활하게 접촉하기를 원했다. 수면시간은 원생 개개인의 건강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면회 및 서신왕래는 퇴원 후 가족이나 또래집단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집단을 통솔하는데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면시간을 연장하고 면회시간과 서신왕래의 기회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가정과 같은 화목한 분위기에서 교사와도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협소한 잠자리의 개선, 목욕시설의 청결 및 매점의 설치 등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야 한다. 소년원의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이란 심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안한 공간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대안

(1) 퇴원 후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의 무상 지원

퇴원 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퇴원생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학교진학 때까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및 검정고시를 위한 학과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원생들이 퇴원 한 후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방비 상태의 떠돌이 생활에서 탈피하여 취업이나 복학 등을 통하여 직장이나 학교라는 사회기관에 소속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원생들 대다수는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 출신으로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검정고시 준비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원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과 검정고시 준비 혹은 학교진학은 원생들이 퇴원 후 희망하는 계획인 동시에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혹은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진학할 수 있을 때까지의 직업교육 및 학과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격취득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장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격 취득까지의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소년원 수용기간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건을 마련해주고, 자격취득을 못한 원생들에 대해서는 퇴원 후 국가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에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자립능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원생들이 퇴원 한 후,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고 원만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시설 및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간의 소년원 수용생활로 사회와의 단절이 불가피했고, 생활방식에 있어서도 강제로 따라가던 형태였던 것에서 곧바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본인의 자립의지와 능력 혹은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력이 없을 경우, 또다시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 결국 기존의 소속 또래집단에 연루되어 재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이미 취업에 성공하였거나 혹은 자격증 취득이나 학력취득에 대한 열의가 높아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으나, 가정의 불화로 인해 혹은 마땅히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해 사회복귀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차원의 시설인 "중간보호시설" 혹은 개인의 자립능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및 운영은 여러 현장전문가에 의해서도 제안된 것으로, 퇴원에 임박한 청소년 혹은 퇴원 후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는 청소년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중간시설에 거주하면서 사회복지사로부터 개별적 차원의 감독, 지도를 받으며 사회적응력 혹은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운 다음

사회로 복귀된다면, 원생들의 사회복귀는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재비행의 위험이 한층 감소될 것이다.

(3)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 확대

경제적, 환경적으로 불우한 청소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활비 지원을 포함하여 무료건강검진 및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원생들의 대다수는 결손가정 출신으로 가정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 불우한 가정의 퇴원생 및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알코올 중독 등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 돌아갈 가정이 없는 퇴원생 혹은 가정과 연락이 두절된 무의탁 퇴원생 등 경제적·환경적으로 불우한 원생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적 궁핍과 가정환경의 불안으로 자립의지가 약해지면 이전의 비행집단에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불우한 원생을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하여 생활비 지원을 비롯한 무료 건강검진 및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는다.

(4) 소년원의 사후관리 체제 강화

퇴원생의 보호관찰과 사후지도는 원생들의 신상과 개인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년원의 담임교사가 일정기간 담당하여 퇴원 후 보호관찰위원의 개입으로 인한 퇴원생들의 심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일관성있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 퇴원 후 원생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취업 및 사후관리 총괄센터'가 소년원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 경제적 여건의 미흡, 원생 대부분이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태 등 여러 가지 요

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원생을 위한 보호관찰 제도는 보호관찰위원의 지나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소년원생 스스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퇴원 후 원생들의 보호관찰은 소년원에서 계속하는 것이 더욱 일관된 사후지도로써 취업이나 복학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년원에서 담당 교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원생들의 신상과 개인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반을 소수로 편성하고, 사후관리 대상까지도 반에 편성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재범 우려가 있는 원생들만 집중적으로 출석 지도하고, 취업 및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월 1회 정도 통신지도로 대처한다면, 취업자 및 학생들의 출석지도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5) 소년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소년원생의 고용 촉진과 진학 및 복학의 장려를 통해 소년원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범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생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원생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인식전환을 위한 여건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소년원에서 받은 교육이 학력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니던 학교로 전적하여 학력을 인정받는다거나, 혹은 소년원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취직을 함에 있어서도 소년원 출신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겪게되는 상황 등 이 사회에 존재하는 소년원생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원생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원생들이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들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낙

인효과를 없애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에 소년원생 고용을 촉진하고, 대안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소년원생의 복학 및 진학 장려 등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퇴원생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원화

현재 소년원, 갹생보호공단, 보호관찰위원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퇴원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 곳에서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체제 구축을 통하여 퇴원생을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퇴원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년원의 “취업 및 사후관리 총괄센터”, “갹생보호공단” 및 “보호관찰지도위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소년원의 사후관리는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 원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갹생보호공단에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숙식제공, 여비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어 일부 퇴원생에 국한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에 의한 사후관리는 퇴원생 스스로가 보호관찰원의 지나친 개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단순히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명예나 기타 허울좋은 감독으로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고, 실제 보호학생을 위한 선도가 미흡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퇴원생에 대한 사후지도 및 관리가 여기 저기 분산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원생을 전담하여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가 필요하다.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새로운 제도 혹은 기구를 계속 신설해 나갈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나 기구에 통합하여 일관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퇴원생들을 위한 질적 서비스 제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 백

VI.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공 백

VI.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부류의 소외청소년 중 소년원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현 상황과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반청소년과는 다르게 갖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소년원 보호 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효율적인 교정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소외청소년과 사회복지 대책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소외와 소외청소년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고, 다양한 욕구이론의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와 욕구가 갖는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또한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를 고찰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년원 보호 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소년원 보호 소년의 비행현황을 비롯하여 소년원 교정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보호 소년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교정정책의 방향을 복지사법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아울러 소년원 보호 소년의 일반적 생활과 자신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복지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현행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교정복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거시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유형화하여 원생

들의 욕구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교정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 증대와 퇴원생의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중심으로 하여 모색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외청소년과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소외 및 소외청소년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소외란 일상용어에서 이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소외의 법률적 의미는 보통 매도나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신의학에서 소외란 정상으로부터 벗어나감, 즉 정신이상을 뜻하며, 철학자들에게는 소외가 자기 소외를 의미하기도 한다.

소외의 개념적 정의가 다양한 이루어지는 것처럼, 소외청소년의 의미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소외청소년이란 개인이 처한 정신적·육체적 혹은 주변환경적·경제적 여건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약자 혹은 소외계층으로 취급되는 집단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요보호청소년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소외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기본전제로 해야한다. 복지대상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욕구를 비롯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과 직면해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특수 욕구가 잘 반영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최소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소비를 미덕으로 인식하고 생활하는 일반청소년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충족되지 않은 새로운 욕구에 대한 주

장과 표현이 강한 반면, 심신이 허약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외청 소년들은 오히려 자신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 표현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예 욕구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2) 소년원 수용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해서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소년원법 제28조) 하기 위해 생활지도,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지도는 교정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지도영역으로 기초적인 일상생활지도부터 전문적인 교정치료와 진로지도, 사후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입원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과 기본예절을 익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의력과 자율성,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치회 등 광범위한 집단지도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소년의 정서순화와 인간성장을 돕기 위해 독서, 영화감상,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에서의 교과교육은 원생간의 학력차가 심하고 연령도 12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광범위하다. 교과교육소년원으로 지정된 소년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교과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각급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주 38시간 이내의 시간을 수업하며, 각급학교 학령 초과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교과교육소년원으로 지정된 소년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규정하여 학교교육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소년원법 제29조 2항).

직업훈련교육은 보호소년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함

양하며,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재비행을 막아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호소년의 경우 그 연령과 경력으로 보아 일반인에 비하여 직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퇴원 후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원의 직업훈련은 원생들의 안정된 사후 정착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년원 교육에는 대대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소년원 교육의 혁신과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년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들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교정교육 프로그램들이 원생들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고, 현행의 특성화 교육은 단기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질적으로 심화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 및 실적위주의 교육에 집착하게 되어 프로그램들에의 참여가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보호소년 개개인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화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원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소년원 보호소년의 생활세계와 복지욕구 분석

전국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생 1,0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욕구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원생들의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소년원생들의 교육정도는 대다수가 중학교 중퇴(43.2%)와 고등학교 중퇴(29.0%)로 나타나, 이들의 학교 중도탈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학 및 진학지도 혹은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훈련 교육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의 직업으로는 무직(44.3%)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20.6%), 음식점 종업원(14.5%), 닥치는대로 일함(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를 중도탈락한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떠돌아 다니다 비행을 하게되는 경우임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생존해 있고 함께 살았다고 응답한 원생은 36.2%였고, 나머지 대다수의 원생들은 이혼, 별거, 편부모, 계부모 등 구조적으로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과반수 정도에 해당하는 원생들이 ‘보통’ 이하로 응답하고 있어 원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가운데 소년원생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직업교육(35.3%)과 진학교육(21.6%)을 들고있다. 그러므로 점정고시 준비 등 진학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특별활동이나 상담 등 원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문제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적절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과 자신의 적성이 맞다고 응답한 원생(27.2%)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과반수가 그저 그렇다(49.8%)고 응답하고 있어 원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희망하는 직업훈련 종목으로 남녀 모두 ‘인터넷 등 정보분야’(남:58.85, 여: 73.8%)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자는 ‘자동차 운전 수리’ (22.3%), 여자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 (16.4%)에 선호도를

나타났다. 소년원 교육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소년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21.9%)고 응답한 원생과 그저 그렇다(31.6%)고 응답한 원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소년원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원생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원생들은 자신이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한 요구(82.5%)가 매우 높았으며, 과반수 정도의 원생들이 소년원을 퇴원한 후에도 계속 도와주는 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3)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전망

취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원생들은 취업의 장애요소로 '실력과 경력이 부족하다'(42.7%)와 '문제아라고 생각할 것이다'(31.3%)를 꼽고 있다. 원생들은 소년원의 직업 훈련만으로는 취직을 위한 기술과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퇴원 이후의 진로 방향으로 원생들은 취업(40.8%)과 진학(37.2%)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의 경우 '취직하겠다'(42.1%)가 '공부하겠다'(36.9%)보다 높은데 반해, 여자의 경우 '공부하겠다'(42.6%)가 '취직하겠다'(21.3%)보다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4)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희망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취업정보 제공(76.6%)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였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72.0%), 무료 건강검진(70.8%),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68.3%),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67.2%) 등도 희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별 희망 정도는 개인·심리적인 영역보다는 취업 및 직업훈련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 대한 희망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이나 취업에 대한 소년원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도 및 요구사항은 청소년 수련시설(38.9%)과 청소년공부방(24.9%), 종합사회복지관(20.3%)을 제외한 시설의 이용도는 10% 내외로 매우 낮았고, 근로청소년회관(49.2%)이나 청소년회관(40.6%), 청소년공부방(23.3%) 등 소년원생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현존 지역사회의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이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생들은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청소년 전용 휴게실’(31.2%)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21.9%)과 ‘야영 캠프장’(21.2%)을 들었는데, 이처럼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기성세대와 사회에 바라는 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42.2%가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24.5%의 원생들은 ‘문제아로 보지 않았으면’으로 응답하여 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희망하고 있었다.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전체 원생 중 21.1%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어딘가 질병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17.2%는 아플 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병원에 못 간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5) 경제적 자립 및 지원에 관한 욕구

전체 응답자의 44.7%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57.9%가 “마음 편하게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55.8%가 “혼자만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고 싶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자립 및 퇴원 후의 거처는 원생들이 퇴원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건으로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구체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6) 가족에 대한 희망

부모 및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점으로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39.1%)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16.5%)을 들었다. 소년원생의 대다수가 결손가정 출신으로 부모에 대한 동일시 정도(42.5%)는 비교적 낮고, 10명 가운데 2명은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원생 10명 중 1명 정도는 가족 간에 갈등(11.1%)을 경험하고 있고, 폭력·학대로부터 은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3명 정도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31.1%)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사후 정착을 위한 가정의 지원력은 매우 희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리가정이나 중간 처우시설 및 담당교사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퇴원 후 원생들이 심리적인 안정상태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7) 개인·심리적 욕구

원생들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상, 친구관계, 고민이나 문제해결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원생들의 자아 만족도 낮은 편으로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감 때문에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는 원생(35.8%)이 전체의 1/3이 넘었다.

소년원생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하게되는 주요 매개체로서 친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이들의 친구에 대한 동일시 정도는 비교적 높아 '나는 가장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원생이 전체의 3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비행 친구들로 인해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정도도 비교적 높아 '친구들로 인해 좋지 않은 일에 곧잘 빠져든다'고 응답한 원생(45.6%)은 거의 과반수에 달하고, '비행 친구들만 없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고 응답한 원생(38.6%)도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원생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희망은

높았다.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원생의 비율은 62.8%였으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하는 경우도 63.3%, 개인과 가정문제의 상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로 나타나 개인문제 해결을 위한 원생들의 지원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담에 대한 희망정도는 비교적 높은데 비해 상담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상담교사와 상담경험이 있는 원생들은 24.5%에 불과해 소년원 상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생들의 대다수는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68.3%가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원생(80.8%)들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돈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부모'(30.6%), '아르바이트'(28.2%), '친구'(16.6%)를 들었으며, '훔치거나 뺏는다'는 응답도 13.8%에 달해, 이들에게 있어 용돈부족은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4) 소년원 생활에 대한 평가와 사후정착을 위한 지원 욕구 분석

남녀 소년원생 각각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과 소년원 내부의 생활에 관한 개선 욕구를 알아보고, 퇴원 후 직면하게 될 문제상황의 해결과 하고 싶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측면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았다.

(1) 소년원 교육에 대한 욕구

현재 받고 있는 소년원의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원생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더 배우기를 희망하는 교육분야로는 컴퓨터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정보분야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여자의 경우 미용사 및 피부미

용, 외국어 분야, 요리사 및 의상코디네이션 등 다양한 분야가 거론되었다. 또한,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이 단기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엑셀 등과 같은 고차원 교육에 대한 희망이 높았다.

교육방식의 문제로는 강요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다보니 교육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적 위주의 강압적인 교육방식보다 원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의지에 의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으며, 활동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활동 및 각종 현장 학습과 문화예술활동 등 특별활동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기를 희망했다.

(2) 소년원의 생활규칙과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

소년원 생활의 개선사항으로는 남녀 원생 모두 수면시간의 연장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고, 점호시간을 축소하고, 면회시간과 서신왕래의 기회를 늘려 주어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 보다 원활하게 접촉하기를 원했다.

그 외 여자청소년은 매점의 설치와, 잠자리의 협소함이나 목욕시설의 청결과 같은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3) 퇴원 후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욕구

한편, 퇴원 후 직면하게 될 문제상황의 해결과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소년원을 퇴원 한 후,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로 재비행을 들었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고민도 컸다. 그 외, 가정내의 문제와 가족관계를 염려하거나 약물에 대한 유혹, 퇴원 후 거처 및 생활비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퇴원 후의 계획으로는 학교 복학, 검정고시 등 진학과 관련 된 응답과 취업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을 배우겠다는 응답이 주종을 이루었

는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으로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및 취업 알선, 그리고 학교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및 복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소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와 안정적인 주거공간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5)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현행 교정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원에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현행의 교정교육에 대한 평가와 향후 효율적인 교정복지정책의 방향 모색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년원생들을 일선에서 지도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은 현재 소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향후 효율적인 교정복지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선 어떤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소년원 교육에 대한 평가

현재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을 비롯한 특별활동 교육, 상담활동 및 사후관리체제 등 전반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 부족과 소년원생들의 열의 및 자질부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또한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심성교육과 인성교육에 소홀해지는 점이 언급되었다.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현재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원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형식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스키캠프, 음악공연 관람, 연극공연 관람 등

원생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재, 원생들 개인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활동은 담임교사들의 각종 행정업무, 당직, 행사 등 잡무와 많은 학생 수로 인하여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생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않고, 감독자와 피 감독자의 위치에서 솔직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담기법에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퇴원 후의 사후관리 및 지도 역시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원생들의 거처 불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원생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후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효율적인 교정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

전문가들은 향후 교정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취업을 위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학력취득, 그리고 사후정착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취득시까지의 직업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지원력이 없는 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장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하여 자격 취득시까지 국가차원에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력과 관련하여서는 일시적인 비행으로 인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복학체제 마련, 대안학교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설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력 구제책 마련이 제안되었다.

한편,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소년원 퇴원 후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이 중요하다. 본인의 자립능력과 가정의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원력이 없을 경우 재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을 고려하여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차원의 시설인 “중간 보호시설”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생의 퇴원 후 보호관찰은 소년원에서 계속하는 것이 더욱 일관된 사후지도로써 취업이나 복학 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며, 소년원의 담당 교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것이 원생들의 신상과 개인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6) 소년원생을 위한 효율적인 교정복지 정책 방안

(1) 정책의 방향

○ 확일적 처우의 개선

죄를 범한 소년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직 성장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재 다소 확일적이고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정교육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겠고, 처우의 강도 역시 개인에 따라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방향 수립

소년원 교육이 원생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년원생 개개인의 학력, 가정환경, 비행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 교육참여의 자발성 촉진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집단적 처우 중심의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자발적 참여와 개별적 처우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혹은 검정고시 합격 등 실적위주의 강요에 의한 교육을 받다보니 개인의 관심과 흥미가 배제되어 열의를 잃게되고 교육내용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범죄소년의 교정·교화라는 궁극의 교육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집단적 치우 중심에서 개별적 치우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자원의 유기적 협조망 구축

소년원 교정교육 및 사후지도와 관련된 각종 교육기관 및 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상호 협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소년원 생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과 취업과 관련한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정보센터, 학력취득과 관련된 대안학교, 직업훈련학교, 청소년회관, 청소년공부방 등 교육관련기관 및 사후지도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이 상호 연계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2) 구체적 정책제언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대안>

○ 원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희망하는 교육을 열의와 노력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의 운영

취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의 내용과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

○ 학력취득 기회의 강화

검정고시 준비, 원만한 복학체제 마련, 대안학교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력구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특별활동교육의 활성화

현재 수적으로 부족하고, 형식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늘리고, 원생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상담교사 전담제 도입

담임교사의 잡무와 많은 원생 수로 인하여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교사 전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소년원의 생활규칙 및 생활환경의 개선

수면시간의 연장과 점호시간의 축소 등 소년원 생활규칙을 완화하고 협소한 잠자리 개선 및 매점의 설치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대안>

○ 퇴원 후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의 무상 지원

퇴원 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퇴원생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학교진학 때까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및 검정고시를 위한 학과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자립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 확대

경제적, 환경적으로 불우한 청소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활비 지원을 포함하여 무료건강검진 및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소년원의 사후관리 체제 강화

퇴원생의 보호관찰과 사후지도는 원생들의 신상과 개인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년원의 담임교사가 일정기간 담당하여 퇴원 후 보호관찰위원의 개입으로 인한 퇴원생들의 심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일관성있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소년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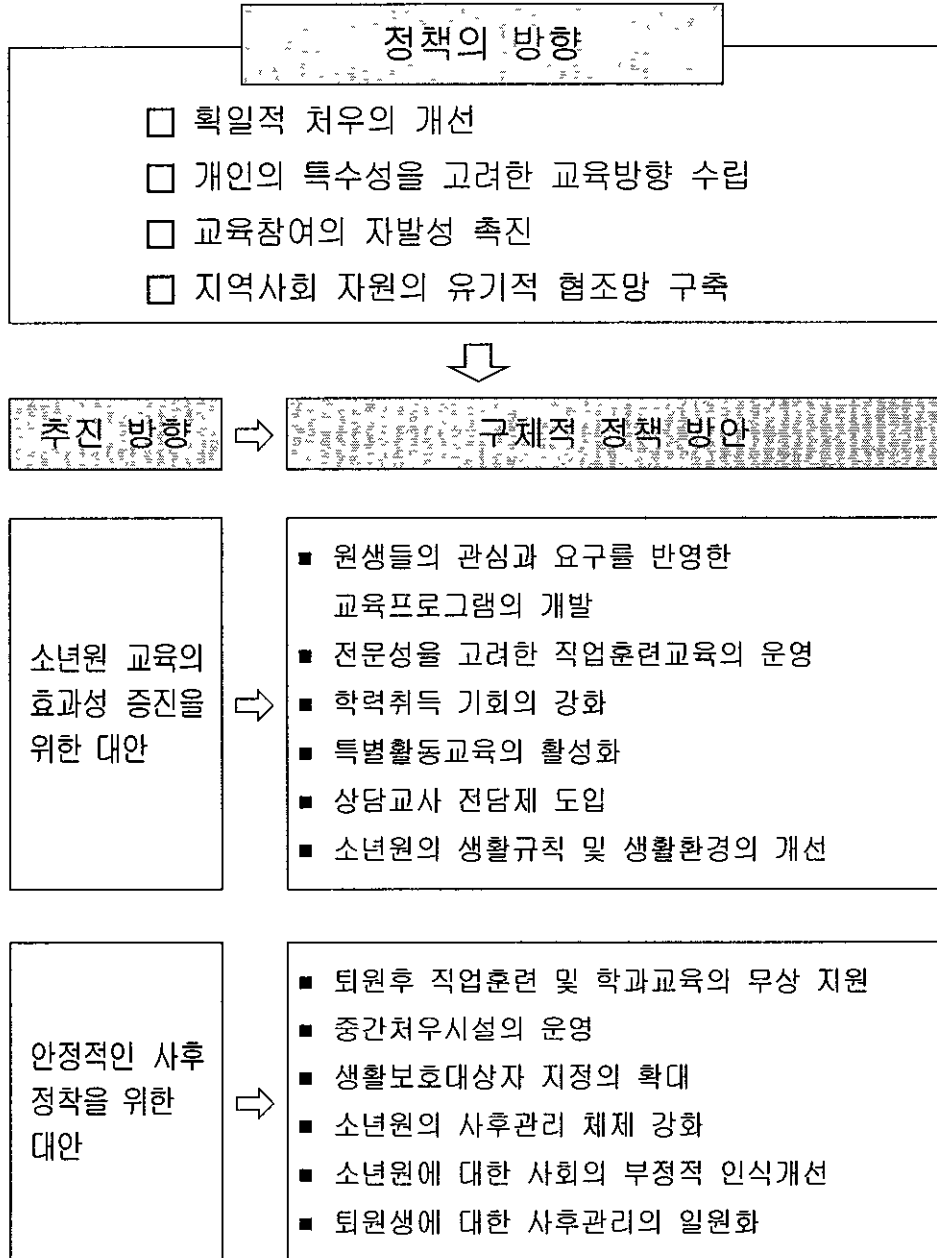
소년원생의 고용 촉진과 진학 및 복학의 장려를 통해 소년원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범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 퇴원생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원화

현재 소년원, 갱생보호공단, 보호관찰위원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퇴원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 곳에서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일원화된 관리체제 구축을 통하여 퇴원생을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소년원 보호 소년의 자립·재활을 위한 교정복지 정책 방안



[그림 VI-1] 소년원생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복지 정책 방안

2. 결론

지금까지 이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년원생들을 본 연구의 중점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위한 현행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소년원 생활과 교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 퇴원 후 안정적인 사후정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교정교육과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수립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정책수혜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고,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한 정책 실현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년원생의 처우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단기간 내에 개정과 신설이라는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개혁과 변화는 정책 속에 철학이 내재되어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는 정책수혜 대상자와 정책집행 실무자의 요구와 관심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단기간 내의 가시적인 효과에 급급하여 혹은 구조적인 불합리성에 합류하여 즉흥적이고 효과성 없는 정책방안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책수혜 대상자의 요구와 정책 집행 실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시행착오만을 거듭한 채 오래지 않아 사장되고 말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커다란 개혁을 시도한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내용의 편성과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에만 중점을 두어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지다보니 음식, 피복 및

침구류, 물품지급, 위생 등 의식주라는 기본적 측면을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능력의 배양을 위해 교육의 제공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의식주라는 최저 생계 보장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처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정책 집행의 실무자들, 예를 들어 각종 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정책수혜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관련 실무자, 교사 및 사회복지사들도 대상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지원자 혹은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최종 목표가 개인의 주체성 확립과 자립능력의 배양에 있다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상실된 인간의 본성과 기본권을 회복해야 하는 차원에서라도 심리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교육적·심리적·복지적 기능을 지닌 효율적인 정책으로서 질적으로 향상된 통합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 백

참 고 문 헌

- 강명숙(1999).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의 욕구 성향과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재택(1993).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욕구 수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승오(1994).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현숙(1996).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귀숙(1985). 무의무탁한 비행청소년의 직업보도와 직장적응에 관한 연구. 숭전대 석사학위 논문.
- 김기태 외(1996).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중퇴생의 생활과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 사회복지연구. 제6집. 165-198.
- 김민호(1996). 비행문화와 청소년비행· 제주지역 보호관찰소년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5집. 49-70.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 출판부.
- 김상준(1996).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남(1991). 비행청소년의 사회내 처우제도에 관한 과제 분석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인(2000). 소외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활동. 오늘의 청소년. 150호. 29-31.
- 김준호·이순래(1994).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열(1993).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가출 청소년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 김헌수(1993).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김현식(2000).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개인생활요인, 학교생활요인 및 교우관계 비교. 충북대 교육대학원 논문.
- 대한교육연합회. 소외현상과 청소년문제: 학교청소년을 중심으로
- 류종관(1996). 비행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행동특성 비교 연구. 교육연구. 제6집. 211-244.
- 박병식·전경숙·윤옥경(1999).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승위(1992). 현대사회와 인간소외:소외론의 전개와 쟁점 및 그 사회학적
연구의 동향. 영남대학교출판부
- 박승희(2000). 사회복지정책의 욕구이론에 대한 성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
회 논문집. 사회복지정책 제 10집.
- 박운용(2000). 청소년의 욕구수준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고
등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홍(1999). 비행청소년의 보호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영남대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병일(1999). 중·고등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소외수준 분석. 경성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연수원(2000). 범죄백서.
- 배분자(1986). 비행청소년의 사회교육 요구분석 : 소년원생의 교육내용요
구를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철하(1994). 보호관찰서비스에 대한 욕구 측정: 서울보호관찰소를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1998) 재소자 교육 및 교화 운영지침.
- 성규탁(1993).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법문사.
- 안형관(1992) 소외개념의 정의와 그 현대적 적용. 효성여대현대사상
연구3. 효성여자대학교.

- 양인영(1999). 가정환경과 학생소외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염규성(2000).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서비스 방안 :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근(1988). 보호관찰제도의 이론적 기초.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 이가옥 외(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건인(1993). 현대사회속의 청소년의 소외문제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적 과제. 원광대학교 지도연구14. 원광대학교
- 이경아(1999). 소외와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소외와 학업성취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이무웅(1997).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연구. 1호. 151-168.
- 이미영(2000).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세용(1998).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기관의 역할. 오늘의 청소년. 131호.
- 이소희 외(1997). 청소년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복지연구.
- 이용교(2000).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오늘의 청소년. 150호. 24-28.
- 이인정(199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 이재상(1995).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제17회 형사정책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정수 외(1990).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이창수(1999).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징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 대구소년분류심사원생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이혁구(1994). 사회복지-통제, 욕구, 그리고 권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엮음,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 이혜원(1990). 비행청소년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연구논문 집. 제18집. 216-238.
- 임효진(1999).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망 및 사회적 지지 비교.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영실(1985). 청소년의 소외, 자아개념 및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진호(1980). 현대사회와 인간교육. 서울:배영사.
- 전경숙(1999).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점승현(1999).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길(1994). 소외론 연구. 문화과 지성사.
- 정선주 외(1999).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 및 석방 후 6개월간 재범 여부와 관련된 변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0권 제2호.
- 정우식(1989).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선도. 「교정 교화」.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소. 제2호
- 조기성(2001). 소년원의 학교화 정책이 원생의 교정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흥식(1999). 청소년학 정체성확립을 위한 청소년복지의 과제. 청소년학 연구. 제6권 제2호
- 최경구 외(1995). 청소년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경기대한국사회복지논총 제 4호. 경기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최소영(1987). 소외와 학업성적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섭 외(1993)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종식(1996).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소년보호처분제도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강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복지론.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한완상(1980). 현대 젊은이의 좌절과 열망. 서울:배영사.

홍중환(1997).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 부모들의 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 서울 및 의정부 지역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부모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인용(1995). 비행청소년의 교정교화제도에 관한 연구 : 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 Giddens(1994).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임영일 역. 한길사

Fagan J & Eliot H(1986). *Innovation and Experimentation in Juvenile Correction* : Implementing A Community Reintegration Model For Violent Juvenile Offenders, The URSA Institute San Francisco, California.

Finckenauer, J.Q.(1984). *Juvenile Delinquency and Corrections* :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Orlando, FL : Academic Press.

Golins, G.(1980). *Utilizing Adventure Education to Rehabilitate Juvenile Delinquents*, Denver, Colo : Outward Bound.

Mary langan(1998). *welfare: needs, rights and risk*. Routledge.

Thompson(1987). *Needs*. Routledge & Kagan Paul Inc.

UNICEF(1989).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United Nation, Handbook on the Social Indicators, series F. No. 49, NY

<독일어>

Fuchs-Heinritz u.a.(1994). *Lexikon zur Soziologie*. Westdeutscher Verlag GmbH, Opladen

<일본어>

- 加藤幸雄/野田正人/赤羽忠之(1994), 『司法福祉の焦點』, ミネルヴァ書房
- 菊田幸一(2000), 『少年法概説』, 有斐閣雙書
- 菊地明(2000), 『非行者裁判』, 日本圖書刊行會
- 近畿辯護士連合會 少年問題對策委員會 編(1999), 『非行少年の處遇』, 明石書店
- 法務總合研究所(2000), 『犯罪白書(平成一二年版)』
- 服部郎/佐々木光明(2000), 『ハンドブック 少年法』, 明石書店
- 石川正興/曾根威彦/高橋則夫/田口守一/守山正(2001), 『少年非行と法』, 成文堂
- 守屋克彦(1998), 『現代の非行と少年審判』, 勁草書房
- 新倉修/横山實 編(2000), 『少年法の展望』(澤登俊雄先生 古稀祝賀論文集),
現代人文社
- 猪瀬愼一郎/森田明/佐伯仁志 編(2001),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 田宮裕/廣瀬健二(1998), 『注釋 少年法』, 有斐閣
- 前田雅英(2000), 『少年犯罪: 統計からみたその實像』, 東京大學出版會
- 佐々木知子(2000), 『少年法は誰の味方か』, 角川書店
- 澤登俊雄(1991), 『少年司法と國際準則: 非行と子どもの人權』, 三省堂
- (1999), 『少年法: 基本理念から改正問題まで』, 中公新書
- 八鹽弘二(1999), 『少年保護事件と少年法』, 明石書店
- 荒木信(1999), 『現代の少年と少年法』, 明石書店
- 後藤弘子(1997), 『少年犯罪と少年法』, 明石書店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01년 3월 27일자
- 조선일보, 2001년 5월 1일자
- 한국일보 2001년 7월 5일자
- 제주일보 2000년 3월 4일자
- hackersnews, 2001년 5월 12일자
- hackersnews. 2001년 5월 31일자

<부록 1. 설문조사지>

--	--	--	--

청소년의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관련 각종 연구·조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본원에서는 가정적 혹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청소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나 바람에 대해 조사하려 합니다. 본 조사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 재적응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복지정책연구실 연구담당자 : 전경숙

(TEL: 02-2188-8836, FAX: 02-2188-8829)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보기에 V 표해 주십시오.

1 성별은?

☐ ①남자☐ ②여자

2. 현재의 나이는?

☐ ①12세 - 13세☐ ②14세 - 15세☐ ③16세 - 17세☐ ④18세 - 19세

3 학력은?

☐ ①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②초등학교 중퇴☐ ③초등학교 졸업☐ ④중학교 중퇴☐ ⑤중학교 재학☐ ⑥중학교 졸업☐ ⑦고등학교 중퇴☐ ⑧고등학교 재학

4 소년원에 있었던 기간은? (개월)

5 이곳에 오기 전의 직업은?

☐ ①학생☐ ②공장직원☐ ③점원☐ ④음식점, 유흥업소 종업원☐ ⑤신문배달☐ ⑥일정한 직업없이 닥치는대로 일함☐ ⑦직업 없음

6 이곳에 오기 전 부모님(혹은 보호자)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 ①부모님이 모두 계시며 함께 살고 있었다☐ ②부모님이 모두 계시지만 이혼했다☐ ③부모님이 모두 계시지만 현재 별거중이다☐ ④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만 살았다☐ 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만 살았다☐ ⑥부모님이 모두 계시지만 어머니는 계모였다☐ ⑦부모님이 모두 계시지만 아버지는 계부였다☐ ⑧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⑨친척 또는 양부모 집에서 살았다

다음은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보기에 V 표해 주십시오.

7. 부모/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 ①따뜻하고 화목한 집안분위기
☐ ②내가 하고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 ③잔소리와 통제를 하지 말았으면 ☐ ④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
☐ ⑤다정하고 자상한 모습 ☐ ⑥충분한 용돈
☐ ⑦가족간의 갈등이 없었으면 ☐ ⑧부모가 있지만 해도 좋겠다
☐ ⑨바라는 것이 없다 ☐ ⑩기타 ()

8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2) “부모가 다른 분이었으면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한 때가 있다	1	2	3	4	5
3) 부모/가족이 내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를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	1	2	3	4	5
4) 부모/가족과 대화가 없다	1	2	3	4	5
5) 부모/가족이 나를 자주 때리고 학대한다	1	2	3	4	5
6) 부모/가족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학대할 때 보호해 줄 사람이나 피할 장소가 필요하다	1	2	3	4	5
7) 가족간에 말다툼이나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1	2	3	4	5
8) 경제적으로 어렵다	1	2	3	4	5
9) 가사일을 맡느라 힘들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의 비행에 대한 처분 및 시설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해 주십시오.

9. 어떤 잘못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 ☐ ①점유이탈물 횡령(오토바이 절취 등) ☐ ②절도
☐ ③특수절도 ☐ ④강도 ☐ ⑤특수강도
☐ ⑥폭력, 상해 ☐ ⑦협박, 공갈 ☐ ⑧사기
☐ ⑨강제추행 ☐ ⑩강간 ☐ ⑪유해화학물 흡입
☐ ⑫방화 ☐ ⑬장물취득 ☐ ⑭기타()

10. 잘못에 비하여 현재의 처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___ ①아주 가볍다 ___ ②예상보다 가볍다 ___ ③적당하다
___ ④좀 지나치다 ___ ⑤전혀 부당하다

11. 법원에서의 심판은 대체로 공정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___ ①그렇다 ___ ②공정한 편이다
___ ③그저 그렇다 ___ ④별로 공정하지 못하다
___ ⑤절대 불공정하다

12. 현재 이곳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___ ①나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다
___ ②징역은 아니지만 차라리 징역만도 못하다
___ ③교육이라지만 사실상 징역살이나 마찬가지다
___ ④국가에서 배푸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___ ⑤억울하다

13. 퇴원 후 재범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 ___ ①확실히 재범을 할 것이다 ___ ②재범할 것 같다
___ ③잘 모르겠다 ___ ④재범하지 않을 것 같다
___ ⑤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

14. 잘못된 댓가로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매우 만족한다 ___ ②만족하는 편이다
___ ③보통이다 ___ ④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___ 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 잘못된 댓가로 받게되는 여러 가지 교육 중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___ ①진학교육 ___ ②직업교육 ___ ③여가교육
___ ④도덕교육 ___ ⑤특별활동 교육
___ ⑥반성생활지도 교육 ___ ⑦상담 ___ ⑧기타()

16. 현재 받고 있는 교육 가운데서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___ ①올바른 인격 향상을 위한 지식
___ ②학교 진학이나 검정고시를 위한 지식
___ ③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지식과 기술
___ ④자격증 취득
___ ⑤재범하지 않기 위한 편안한 마음
___ ⑥단지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다

17 현재 받고 있는 학과/직업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①너무 어려워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 ②어려워서 반도 이해하지 못한다
☐ ③좀 어려우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다
☐ ④대체로 이해가 간다
☐ ⑤아주 쉽다
☐ ⑥학과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

18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 교육은 소질에 맞습니까?

- ☐ ①맞는다 ☐ ②그저 그렇다
☐ ③전혀 맞지 않는다 ☐ ④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19 현재 받는 직업훈련 종목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취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①할 수 있다 ☐ ②어렵겠지만 할 수 있을 것이다
☐ ③할 수 없을 것 같다 ☐ ④잘 모르겠다

20 직업훈련을 받고도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사회에서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 ②사회에서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본인 스스로 취직하고 싶지 않다
☐ ④실력과 경력이 부족해서 취직이 안된다
☐ ⑤부모가 반대한다

21 만일 직업훈련이 실시되거나, 또는 지금의 훈련과목이 새로이 변경된다면 어떤 내용이 여러분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만 선택)

- ☐ ①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분야 ☐ ②자동차 운전 및 수리
☐ ③전자제품 조립 및 수리 ☐ ④건축이나 목공예 관련된 내용
☐ ⑤농사나 가축 사육에 관한 내용 ☐ ⑥영어, 일어 등 외국어

23 퇴원한 후, 학교에 복학 또는 진학하겠습니까?

- ☐ ①공부하겠다 ☐ ②하고 싶으나 후배들과 공부할 것이 문제이다
☐ ③별로 하고 싶지 않다 ☐ ④취직하겠다
☐ ⑤부모님 때문에 진학해야 할 것이다

24 퇴원 후 1년 이내의 귀하의 목표와 희망은? (하나만 선택)

- ☐ ①좋은 직장에 취직 ☐ ②아르바이트 ☐ ③학교에 복학
☐ ④검정고시 준비 ☐ ⑤자격증 취득 ☐ ⑥여행
☐ ⑦집에서 쉬겠다 ☐ ⑧모르겠다

22. 다음은 이곳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 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실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	1	2	3	4	5
2) 퇴원 후에도 계속 돌 봐주는 선생님이 계셨음 좋겠다	1	2	3	4	5
4)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 교육은 나에게 꼭 필요하다	1	2	3	4	5
5) 이곳에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	1	2	3	4	5
6) 이곳 생활은 항상 나에게 구속감을 느끼게 한다	1	2	3	4	5
7) 미래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	1	2	3	4	5
8) 이곳에서 좀 더 다양한 직업교육이 제공되었음 좋겠다	1	2	3	4	5

다음은 지역사회와 정부에 대해 여러분의 갖고 있는 바람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25. 다음은 국가 혹은 민간단체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서비스 분야를 (V)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서비스 내역	도움을 받고 싶다	도움이 필요 없다
1)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2) 주택지원 및 개조		
3) 아플 때 치료비 지원		
4) 질병상담		
5) 무료 건강검진		
6) 개인적, 가정 문제 상담		
7) 진로지도 상담		
8) 학습지도(부족한 학과목 지도, 검정고시 등) 및 생활지도		
9) 취업정보 제공		
10) 직업 훈련(컴퓨터 교육 등) 및 직업 알선		
11)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약물예방,성교육 등) 참여 권유		
12)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다음은 여러분 자신, 경제적 자립 및 친구관계 등에 관한 여러분의 태도와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1	2	3	4	5
32 나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며, 나를 바꾸고 싶다	1	2	3	4	5
33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가 있었을 좋겠다	1	2	3	4	5
34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	1	2	3	4	5
35 경제적인 도움이나 후원자를 연결 받고 싶다	1	2	3	4	5
36 마음 편하게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을 좋겠다	1	2	3	4	5
37 혼자만의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고 싶다	1	2	3	4	5
38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을 좋겠다	1	2	3	4	5
39 아플 때 경제적 부담(치료비 및 입원경비)으로 병원을 못 간 적이 있다	1	2	3	4	5
40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어딘가 질병이 있는 것 같다	1	2	3	4	5
41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42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가 있었을 좋겠다	1	2	3	4	5
43 친구들의 유혹 때문에 좋지 않은 일에 곧잘 빠져든다	1	2	3	4	5
44 비행친구들만 없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1	2	3	4	5

45.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주로 누구와 상의합니까? (하나만 선택)

- ____ ①부모 ____ ②형제, 자매 ____ ③선생님
 ____ ④친구 ____ ⑤상담교사 ____ ⑥선·후배
 ____ ⑦나 혼자 해결한다 ____ ⑧상의할 사람이 없다 ____ ⑨기타()

46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로 교사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 ____ ①있다 ____ ②없다(46-3로 가시오)

46-1) 상담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____ ①많은 도움이 되었다 ____ ②그저 그렇다
 ____ ③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46-2) 상담교사에게 실제로 받은 도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____ ①나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기만 했다
 ____ ②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의뢰했다
 ____ ③나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주셨다
 ____ ④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다

46-3) 없다면 그 이유는?

- ☐ ①상담할 문제가 없었다 ☐ ②상담교사가 없다
☐ ③자존심이 상한다 ☐ ④상담할 시간이 없다
☐ ⑤부끄러워서(용기가 나질 않아서)
☐ ⑥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 ⑦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 ⑧누군가와 고민을 함께 얘기한다는 것이 싫어서

47 앞으로 상담을 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 ☐ ①친구문제 ☐ ②이성문제 ☐ ③성격문제
☐ ④가정문제 ☐ ⑤성(性)문제 ☐ ⑥약물복용문제
☐ ⑦흡연문제 ☐ ⑧음주문제 ☐ ⑨가출문제
☐ ⑩자살문제 ☐ ⑪진로문제 ☐ ⑫취업문제
☐ ⑬경제적 어려움 ☐ ⑭성적·진학문제 ☐ ⑮기타()

다음은 여가활동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보기에 V표해 주십시오.

48 여가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로 이용했던 여가시설은? (두 개까지 선택)

- ☐ ①카페·커피숍 ☐ ②술집(호프집 등) ☐ ③전자오락실
☐ ④PC방 ☐ ⑤당구장 ☐ ⑥운동장(체육관)
☐ ⑦패스트푸드점 ☐ ⑧공원 ☐ ⑨노래방
☐ ⑩비디오방 ☐ ⑪영화관

49 여가 활동을 하는데 돈(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전혀 필요없다 ☐ ②없어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 ③그저 그렇다 ☐ ④약간 필요하다 ☐ ⑤매우 필요하다

50 여가활동 비용(용돈) 마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 ☐ ①부모님에게 받는다 ☐ ②형제에게 받는다 ☐ ③친구에게 빌린다
☐ ④친척에게 받는다 ☐ ⑤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했다

51.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돈)이 부족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했습니까?

- ☐ ①부모한테 추가로 받는다 ☐ ②친구에게 의존 ☐ ③비용을 빌린다
☐ ④돈을 훔치거나 뺏는다 ☐ ⑤아르바이트를 한다
☐ ⑥집에있는 물건을 판다 ☐ ⑦기타(구체적으로)

52. 당신의 한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 ☐ ①없다 ☐ ②1만원 미만 ☐ ③1-3만원 미만
☐ ④3-5만원 미만 ☐ ⑤5-7만원 미만 ☐ ⑥7-10만원 미만
☐ ⑦10만원-20만원 ☐ ⑧20만원 이상

53. 용돈은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합니까?

- ☐ ①의상·악세사리 구입 ☐ ②간식, 군것질 ☐ ③ 술, 담배
☐ ④이성, 동성친구간의 교제 비용(오락실, 노래방 등 이용료)
☐ ⑤문화생활(책구입, 영화, 연극감상, 테이프, CD, 레코드 구입)
☐ ⑥학용품 구입 ☐ ⑦기타()

54 현재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은?

- ☐ ①컴퓨터 ☐ ②오디오 ☐ ③핸드폰
☐ ④유명브랜드의류 ☐ ⑤오토바이 ☐ ⑥자동차
☐ ⑦기타()

55 현재의 용돈 액수에 만족하십니까?

- ☐ ①많다 ☐ ②적당하다
☐ ③약간 부족하다 ☐ ④많이 부족하다

56.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와 취직을 했을 경우 주로 어디에서 일을 했습니까?

(2가지 선택가능)

- ☐ ①주유소 ☐ ②가스배달 ☐ ③커피숍, 레스토랑
☐ ④식당 ☐ ⑤회사 및 공장 ☐ ⑥유흥업소
☐ ⑦기타() ☐ ⑧없다

57. 퇴원 후 누구와 함께 또는 어디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①부모님 ☐ ②형제-자매 ☐ ③친척
☐ ④고용주(직장) ☐ ⑤친구, 선후배 ☐ ⑥사회복지시설
☐ ⑦양부모의 집 ☐ ⑧갈 곳이 없다 ☐ ⑨기타 ()

<부록 2. 면접조사지>

청소년의 복지욕구에 관한 면접 조사지☐ 면접 대상자의 배경 설명

(죄명, 입원하기까지의 가족 및 교우환경, 학력 등)

1. 현재 받고 있는 소년원의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만족하는가? 더 배우고 싶은 다른 교육분야가 있나?
2. 소년원의 특성화교육(영어, 컴퓨터) 및 직업훈련교육이 자신이 사회에 나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3.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
(긍정적인 변화 및 부정적인 변화)

4. 소년원에서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식생활, 잠자리, 생활규칙, 교육내용 등)

5.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고민거리는 무엇인가?
(가정, 친구, 약물, 이성문제 등 상세히 기록)

6.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

7. 퇴원 후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퇴원 후 당분간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용할 생각인가? (없다면 그 이유는? 있다면 어떤 규모의 어떤 분위기를 원하나?)

-
8. 퇴원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복교, 취직, 검정고시 등)
9. 퇴원 후,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
(생활비, 주거, 취업, 진로 등)
10. 자신이 생각하기에, 퇴원 후 염려되는 문제는?
(취업, 비행동료관계, 술, 약물 유혹, 가족관계, 생활비 문제,
진학, 거주지가 없다 등)
11. 어려움이 생길 때 의논할 상대가 있는가?
12.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부록 3. 의견조사지>

비행청소년의 교정복지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관련 각종 연구·조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본원에서는 가정적 혹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나 바람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재적응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이러한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은 현행의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정책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조사하여 비행청소년의 사회재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갖고 계신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주시면, 비행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복지정책연구실 연구담당자 : 전경숙

(TEL: 02-2188-8836, FAX: 02-2188-8829)

☐ 귀하에 관한 일반적 질문

- 소년원 재직 기간 :
- 담당 업무(직책) :
- 성별 :

1. 소년원의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은 원생들의 교정과 사회재적응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 교육내용이 원생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개설했어야 할 교과목이나 직업훈련과목은 무엇입니까?
특성화교육 및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3. 원생들을 위해 어떠한 특별(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생들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4. 가족간의 심리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관”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5. 원생들을 위해 충분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생들은 자신의 고충을 교사에게 솔직하게 상담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담활동(심리치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및 개선점 언급)

6. 평소 원생들을 지도 혹은 상담하면서 느낀 원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7. 원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8. 원생들이 퇴원할 경우,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계십니까?
9. 귀원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학/취업/보호관찰 등)
“취업 및 사후관리총괄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10. 원생의 퇴원 후, 사회재적응을 위해 정부나 지역사회가 가장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립여건, 주거, 개인문제 해결, 사후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해 주십시오)

1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행(범죄)청소년에 대한 교정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12. 비행(범죄)청소년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이 개입해야 할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언급해 주십시오.

13. 소년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귀하가 갖고 계신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소년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언급)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자문진 ◆

박병식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우정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과장
양종국 법무부 산하 고봉정보통신학교 인성검사개발팀장
노정한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사무관

◆ 연구협력진 ◆

한영선 법무부 보호국 소년 제1과 서기관
서진남 법무부 보호국 소년 제1과
장윤정 서울고봉통신중고등학교 교사
김현정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교사
곽태진 대구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 교사
고기원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 교사
김호규 대덕정보산업학교 교사
서종철 부산오륜정보산업학교 교사
명선희 춘천신촌정보통신학교 교사
김대식 대전원촌정보산업학교 교사
김일환 충주계명정보통신학교 교사
장재원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 교사
정유림 청주미편중고등학교 교사
김성철 제주한길정보산업학교 교사

공 백

2001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정책연구보고서】

- 01-R01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길은배 · 임순희)
- 01-R02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3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 -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이론편)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4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II - 청소년 자치활동 길잡이 (사례편) (김영지 · 이용교 · 안재희)
- 01-R05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위탁기준에 관한 연구 (김영한 · 임지연 · 권일남)
- 01-R06 청소년의 문화산업 참여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희 · 이동연 · 김상우)
- 01-R07 유럽국가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 I (윤철경 · 정희욱)
- 01-R08 미국 · 일본 · 중국 · 홍콩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II (윤철경 · 정희욱 · 조아미 · 박병식 · Anna Hui · Ju Qing)
- 01-R09 사이버공간을 통한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연구 (오영근 · 이춘화)
- 01-R10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I (이혜연 · 이태수 · 이서정)
- 01-R1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 II (전경숙 · 박병식 · 권소정)
- 01-R12 청소년 패널조사 기초연구 (박창남 · 김희진 · 김선엽)
- 01-R13 중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맹영임 · 김진호 · 정철영)

- 01-R14 청소년 정보봉사단 운영방안 연구 (김정주 · 김혁진 · 전명기 · 정익재)
- 01-R15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 조사 연구 (이종원 · 임성택 · 최원기 · 최종현 · 심진예)
- 01-R16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실태분석-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이종원)
- 01-R17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임성택)
- 01-R18 청소년 법적 비행의 경향과 원인에 대한 실태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최원기)
- 01-R19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연구 (황진구 · 유지열 · 이종임)
- 01-R20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이칭찬)
- 01-R2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 유형 분석 (이기영)
- 01-R22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이장현 · 우룡)
- 01-R23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김민)
- 01-R24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김영희)
- 01-R25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이 청소년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청송 · 현명호)
- 01-R26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 캠페인 방안 연구 (이수범)
- 01-R27 10대 여자 청소년 원조교제의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연구 (신미식)
- 01-R28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상철)
- 01-R29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길은배 · 이종원 · 최원기)
- 01-R30 청소년 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경준 · 강명숙 · 서정아 · 정호연)
- 01-R31 미래를 움직이는 힘! 청소년 자원봉사(Video) (김정배 · 정익재)

- 01-R32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발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김정배 ·
우정자)
- 01-R33 청소년 봉사활동 시범협력학교 운영 사업보고서 (김정배 ·
우정자)
- 01-R34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도자 연수 (김정배 · 우정자)
- 01-R35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평가지표 개발 (김정배 · 우정자)
- 01-R36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이춘화 · 김성식 · 신순갑 ·
정하배 · 류지영)
- 01-R37 중도 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박창남 · 임성택 · 전경숙 · 김성식)
- 01-R38 청소년 문제의 심리학적 접근 방안 연구 (임성택 · 이해연 ·
김진호 · 김혜진)
- 01-R39 주5일근무(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정책방향과 대책 (함병수 ·
김경준 · 김정주 · 김영지)
- 01-R40 세계청소년문화축제 발전방안 연구 (최원기 · 길은배 · 맹영임 ·
이주연)
- 01-R4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이광호 · 전명기 · 이희수 · 맹영임 · 권진화)
- 01-R42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길은배 · 이용교 · 김영지)
- 01-R43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함병수 ·
윤철경 · 김혁진 · 이해훈 · 이득영)
- 01-R44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협력 증진 방안 연구 (김정배 · 우정자)
- 01-R45 정부간 청소년교류 초청프로그램 개발 (박영균 · 윤철경 · 박호남 ·
조은정)
- 01-R46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 (조혜영)
- 01-R47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실태 및 정책 방안 모색 연구 (이광호 ·
김희진 · 장원섭 · 이해정 · 정여옥)

- 01-R48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 연구 (이민희 · 윤옥경 · 임지연)
 01-R59 선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제도 : OECD 가입국가들 중심으로
 (황진구)

【수련 프로그램 개발】

- 01-R49 고미술 이해활동 (이춘화 · 박승예)
 01-R50 만화영화 제작활동 (김영지 · 임영규)
 01-R51 인터넷신문 제작활동 (황진구 · 박기봉)
 01-R52 자동차 이해 및 체험활동 (임성택 · 임기상)
 01-R53 장애인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김희진 · 장인권)
 01-R54 강건너기 체험활동 (김진호 · 연규철)
 01-R55 생태 · 자연지도 제작활동 (임지연 · 민성환)
 01-R56 장인정신 체험 (박창남 · 김미정)
 01-R57 세계문화 체험활동 (전경숙 · 노재봉)
 01-R58 외국인 관광안내활동 (이민희 · 박기홍)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

- 01-S01 지식 · 정보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육성 방향모색 (2001.5.17.
 토론회 자료집)
 01-S02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 (2001.7.11. 공청회자료집)
 01-S03 청소년육성기금 확충과 운영 개선 방향 (2001.9.7.워크샵자료집)
 01-S04 나는 일도 하고 싶다.-청소년 시간제 취업을 중심으로
 -(2001.12.14, 청소년 일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지원을
 통한 토론회 자료집)
 01-S05 중도탈락 청소년 실태와 대책 (2001 10. 중도탈락 청소년 종합
 대책 공청회 자료집)

01-S06 2001년도 청소년 정책 개발 연찬회 자료 (2001.11.7~8, 청소년정책 개발 연찬회 자료집)

01-S07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2001.11. 세미나 자료집)

01-S08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교재 (2001. 12. 연수교재)

01-S09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직원직무 연수교재 (2001.10. 연수교재)

【학술논문집】

『한국청소년연구』 2001년 제12권 제1호 통권 33호 (2001.6.)

『한국청소년연구』 2001년 제12권 제2호 통권 34호 (2001.12.)

공 백

연구보고 01-R 1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II)
- 소년원 보호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인 쇄 2001년 12월 29일
발 행 200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권 이 중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전화 (02) 2188-8860, 70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주) 계 문 사
 전화 (02) 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89-7816-367-X(93330)
89-7816-365-3(전2권)

공 백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II)

- 소년원 보호 청소년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전경숙(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객원연구원 : 박병식(용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권소정(한국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 연구요약 】

□ 개요

○ 연구목적

- 다양한 부류의 소외청소년 중 소년원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일반청소년과는 다르게 갖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조사함.
- 또한, 소년원생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소년원생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방안을 모색함.

○ 연구내용

- 소외청소년 및 사회복지대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소년원 보호 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 소년원 보호 소년의 복지욕구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 효율적인 교정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 소년원생을 위한 교정복지정책 방향 및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소외 및 소외청소년의 개념에 관한 이론, 다양한 욕구이론, 사회복지와 욕구, 청소년복지와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이념 고찰
- 자료분석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소년원생에 대한 각종 현황 제시, 현행의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 복지사법 정책의 개념 도입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전국 소년원 수용 청소년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소년원 수용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재직 현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

☐ 소외청소년과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소외 및 소외청소년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 소외란 일상용어에서 이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소외의 법률적 의미는 보통 매도나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신의학에서 소외란 정상으로부터 벗어나감을, 즉 정신이상을 뜻하며, 철학자들에게는 소외가 자기 소외를 의미하기도 한다
- 소외의 개념적 정의가 다양한 이루어지는 것처럼, 소외청소년의 의미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외청소년이란 개인이 처한 정신적·육체적 혹은 주변환경적·경제적 여건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약자 혹은 소외계층으로 취급되는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요보호청소년을 소외청소년 집단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이들 소외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기본전제로 해야한다. 복지대상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며 보편적인 욕구를 비롯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과 직면해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특수 욕구가 잘 반영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최소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년원 수용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 소년원의 교정교육 현황

-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해서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소년원법 제28조) 하기 위해 생활지도,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생활지도는 교정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지도영역으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도부터 전문적인 교정치료와 진로지도, 사후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입원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과 기본예절을 익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의력과 자율성,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치회 등 광범위한 집단지도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소년의 정서순화와 인간성장을 돕기 위해 독서, 영화감상,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소년원에서의 교과교육은 원생간의 학력차가 심하고 연령도 12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광범위하다. 교과교육소년원으로 지정된 소년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교과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각급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주 38시간 이내의 시간을 수업하며, 각급학교 학령 초과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교과교육소년원으로 지정된 소년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규정하여 학교교육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소년원법 제29조 2항).
- 직업훈련교육은 보호소년의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함양하며,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재비행을 막아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호소년의 경우 그 연령과 경력으로 보아 일반인에 비하여 직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퇴원 후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원의 직업훈련은 원생들의 안정된 사후 정착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소년원 교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몇 년간 소년원 교육에는 대대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소년원 교육의 혁신과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년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 먼저, 교정교육 프로그램들이 원생들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고,
- 현행의 특성화 교육은 단기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질적으로 심화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 가시적인 성과 및 실적위주의 교육에 집착하게 되어 프로그램들에의 참여가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이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보호소년 개개인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화된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원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원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소년원생의 생활세계와 복지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전국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생 1,0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욕구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소년원생들의 교육정도는 대다수가 중학교 중퇴(43.2%)와 고등학교 중퇴(29.0%)로 나타나, 이들의 학교 중도탈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학 및 진학지도 혹은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훈련 교육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편,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의 직업으로는 무직(44.3%)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20.6%), 음식점 종업원(14.5%), 닥치는대로 일함(11.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를 중도탈락한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떠돌아 다니다 비행을 하게되는 경우임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생존해 있고 함께 살았다고 응답한 원생은 36.2%였고, 나머지 대다수의 원생들은 이혼, 별거, 편부모, 계부모 등 구조적으로 결손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 소년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과반수 정도에 해당하는 원생들이 ‘보통’이하로 응답하고 있어 원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가운데 소년원생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직업교육(35.3%)과 진학교육(21.6%)을 들고있다.
- 한편,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과 자신의 적성이 맞는다고** 응답한 원생(27.2%)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과반수가 그저 그렇다(49.8%)고 응답하고 있어 원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희망하는 직업훈련 종목**으로 남녀 모두 ‘인터넷 등 정보분야’(남:58.85, 여: 73.8%)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자는 ‘자동차 운전 수리’(22.3%), 여자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16.4%)에 선호도를 나타냈다.
- 그 외, 원생들은 자신이 문제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한 요구**(82.5%)가 매우 높았으며, 과반수 정도의 원생들이 소년원을 퇴원한 후에도 계속 돌봐주는 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전망

- 취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원생들은 **취업의 장애요소**로 ‘실력과 경력이 부족하다’(42.7%)와 ‘문제아라고 생각할 것이다’(31.3%)를 꼽고 있다. 원생들은 소년원의 직업 훈련만으로는 취직을 위한 기술과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 **퇴원 이후의 진로 방향**으로 원생들은 취업(40.8%)과 진학(37.2%)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의 경우 ‘취직하겠다’(42.1%)가 ‘공부하겠다’(36.9%)보다 높은데 반해, 여자의 경우 ‘공부하겠다’(42.6%)가 ‘취직하겠다’(21.3%)보다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희망

-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취업정보 제공(76.6%)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였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72.0%), 무료 건강검진(70.8%),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68.3%),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67.2%) 등도 희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도 및 요구사항은 청소년 수련시설(38.9%)과 청소년공부방(24.9%), 종합사회복지관(20.3%)을 제외한 시설의 이용도는 10% 내외로 매우 낮았고, 근로청소년회관(49.2%)이나 청소년회관(40.6%), 청소년공부방(23.3%) 등 소년원생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현존 지역사회의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이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한편, 원생들은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청소년 전용 휴게실’(31.2%)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21.9%)과 ‘야영 캠프장’(21.2%)을 들었는데, 이처럼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기성세대와 사회에 바라는 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42.2%가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24.5%의 원생들은 ‘문제아로 보지 않았으면’으로 응답하여 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희망하고 있었다.
-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전체 원생 중 21.1%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어딘가 질병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17.2%는 아플 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병원에 못 간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 경제적 자립 및 지원에 관한 욕구

- 전체 응답자의 44.7%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57.9%가 “마음 편하게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55.8%가 “혼자만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고 싶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자립 및 퇴원 후의 거처는 원생들이 퇴원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건으로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구체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가족에 대한 희망

- 부모 및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 분위기’(39.1%)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16.5%)이다.
- 소년원생의 대다수가 결손가정 출신으로 부모에 대한 동일시 정도(42.5%)는 비교적 낮고, 10명 가운데 2명은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원생 10명 중 1명 정도는 가족 간에 갈등(11.1%)을 경험하고 있고, 폭력·학대로부터 은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3명 정도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31.1%)을 호소하고 있었다.

○ 개인·심리적 욕구

- 원생들의 자아 만족도 낮은 편으로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감 때문에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는 원생(35.8%)이 전체의 1/3이 넘었다.
- 소년원생의 경우,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하게되는 주요 매개체로서 친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이들의 친구에 대한 동일시 정도는 비교적 높아 ‘나는 가장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원생이 전체의 3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비행 친구들로 인해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정도도 비교적 높아 ‘친구들로 인해 좋지 않은 일에 곧 잘 빠져든다’고 응답한 원생(45.6%)은 거의 과반수에 달하고, ‘비행 친구들만 없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고 응답한 원생(38.6%)도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 원생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희망은 높았다.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원생의 비율은 62.8%였으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하는 경우도 63.3%, 개인과 가정문제의 상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로 나타나 개인문제 해결을 위한 원생들의 지원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상담에 대한 희망정도는 비교적 높는데 비해 상담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상담교사와 상담경험이 있는 원생들은 24.5%에 불과해 소년원 상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원생들의 대다수는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68.3%가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원생(80.8%)들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돈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부모’(30.6%), ‘아르바이트’(28.2%), ‘친구’(16.6%)를 들었으며, ‘홈치거나 뺏는다’는 응답도 13.8%에 달해, 이들에게 있어 용돈부족은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 소년원생의 교정교육과 사후정착에 관한 면접조사 결과

○ 남녀 소년원생 각각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년원에서 받고 있는 교육과 소년원 내부의 생활에 관한 개선 욕구를 알아보고, 퇴원 후 직면하게 될 문제상황의 해결과 이루고 싶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측면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았다.

○ 소년원 교육에 대한 욕구

-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현재 받고 있는 소년원의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원생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 더 배우기를 희망하는 교육분야로는 컴퓨터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정보분야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여자의 경우 미용사 및 피부미용, 외국어 분야, 요리사 및 의상코디네이션 등 다양한 분야가 거론되었다.

- 또한,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이 단기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엑셀 등과 같은 고차원 교육에 대한 희망이 높았다.
- 교육방식의 문제로는 강요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다보니 교육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적 위주의 강압적인 교육방식보다 원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의지에 의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으며, 체육활동 및 각종 현장 학습과 문화예술활동 등 특별활동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기를 희망했다.

○ 소년원의 생활규칙과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

- 소년원 생활의 개선사항으로는 남녀 원생 모두 수면시간의 연장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고, 점호시간을 축소하고, 면회시간과 서신왕래의 기회를 늘려 주어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 보다 원활하게 접촉하기를 원했다.
- 그 외 여자청소년은 매점의 설치와, 잠자리의 협소함이나 목욕시설의 청결과 같은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퇴원 후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욕구

- 소년원을 퇴원 한 후,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로 재비행을 들었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고민도 컸다. 그 외, 가정내의 문제와 가족관계를 염려하거나 약물에 대한 유혹, 퇴원 후 거처 및 생활비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 퇴원 후의 계획으로는 학교 복학, 검정고시 등 진학과 관련 된 응답과 취업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을 배우겠다는 응답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으로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및 취업 알선, 그리고 학교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및 복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소 등을 들고 있다.
- 또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와 안정적인 주거공간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소년원에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현행의 교정교육에 대한 평가와 향후 효율적인 교정복지정책의 방향 모색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소년원 교육에 대한 평가

- 특성화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원 부족과 소년원생들의 열의 및 자질부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또한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심성교육과 인성교육에 소홀해지는 점이 언급되었다.
- 특별활동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현재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원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형식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한 스키캠프, 음악공연 관람, 연극공연 관람 등 원생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 현재, 원생들 개인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활동의 문제점으로 담임교사들의 각종 행정업무, 당직, 행사 등 잡무와 많은 학생수로 인하여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었다. 원생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않고, 감독자와 피 감독자의 위치에서 솔직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담기법에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 퇴원 후의 사후관리 및 지도의 문제점 역시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원생들의 거처 불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원생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후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이 지적되었다.

○ 효율적인 교정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

- 먼저,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취득 시까지의 직업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지원력이 없는 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장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하여 자격 취득시까지 국가차원에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학력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일시적인 비행으로 인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복학체제 마련, 대안학교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설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력 구제책 마련이 제안되었다.
- 한편,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소년원 퇴원 후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이 중요하다. 본인의 자립능력과 가정의 경제적 혹은 심리적 지원력이 없을 경우 재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을 고려하여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차원의 시설인 “중간 보호시설”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 또한, **소년원생의 퇴원 후 보호관찰**은 소년원에서 계속하는 것이 더욱 일관된 사후지도로써 취업이나 복학 등의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며, 소년원의 담당 교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것이 원생들의 신상과 개인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소년원생을 위한 효율적인 교정복지 정책 방향 모색

△ 정책의 방향

- **확일적 처우의 개선** : 죄를 범한 소년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직 성장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현재 다소 확일적이고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정교육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겠고, 처우의 강도 역시 개인에 따라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방향 수립** : 소년원 교육이 원생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년원생 개개인의 학력, 가정환경, 비행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 **교육참여의 자발성 촉진** :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집단적 처우 중심의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자발적 참여와 개별적 처우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혹은 검정고시 합격 등 실적위주의 강요에 의한 교육을 받다보니 개인의 관심과 흥미가 배제되어 열의를 잃게되고 교육내용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범죄소년의 교정·교화라는 궁극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처우 중심에서 개별적 처우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자원의 유기적 협조망 구축** : 소년원 교정교육 및 사후지도와 관련된 각종 교육기관 및 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상호 협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소년원생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과 취업과 관련한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정보센터, 학력취득과 관련된 대안학교, 직업훈련학교, 청소년회관, 청소년 공부방 등 교육관련기관 및 사후지도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이 상호 연계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 구체적 정책제언

-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대안**
 - **원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원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희망하는 교육을 열의와 노력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의 운영** : 취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의 내용과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

- **학력취득 기회의 강화** : 검정고시 준비, 원활한 복학체제 마련, 대안학교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력구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특별활동교육의 활성화** : 현재 수적으로 부족하고, 형식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늘리고, 원생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상담교사 전담제 도입** : 담임교사의 잡무와 많은 원생 수로 인하여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교사 전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소년원의 생활규칙 및 생활환경의 개선** : 수면시간의 연장과 점호시간의 축소 등 소년원 생활규칙을 완화하고 협소한 잠자리 개선 및 매점의 설치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대안

- **퇴원 후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의 무상 지원** : 퇴원 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퇴원생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학교진학 때까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및 검정고시를 위한 학과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 소년원 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자립능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 확대** : 경제적, 환경적으로 불우한 청소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활비 지원을 포함하여 무료건강검진 및 아플 때 치료비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소년원의 사후관리 체제 강화** : 퇴원생의 보호관찰과 사후지도는 원생들의 신상과 개인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년원의 담임교사가 일정기간 담당하여 퇴원 후 보호관찰위원의 개입으로 인한 퇴원생들의 심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일관성있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소년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 소년원생의 고용 촉진과 진학 및 복학의 장려를 통해 소년원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범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 **퇴원생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원화** : 현재 소년원, 갱생보호공단, 보호관찰위원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퇴원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 곳에서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일원화된 관리체제 구축을 통하여 퇴원생을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목 차

I. 서 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4. 연구의 기대효과	9
 II. 소외청소년과 사회복지대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1. 소외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의 개념 정의	13
1) 소외의 어원적 의미	13
2) 현대사회의 특성과 청소년 소외	15
3) 소외청소년의 개념 및 비행청소년의 법률적 개념 정의	17
2. 복지욕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1) 욕구의 유형 및 대표적 이론	21
2) 사회복지와 욕구	24
3.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5
1) 청소년복지의 성격과 특성	25
2) 소외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이념의 정립	27
 III. 소년원 보호소년에 대한 현행 복지정책	33
1. 소년원의 의의와 보호처분의 종류	33
1) 소년원이란	33
2) 보호처분의 종류와 실태	33
3) 소년원의 분류	35
2. 소년의 수용인원과 비행현황	36
1) 수용인원	36
2) 연령별 비행내용	37
3) 학력	40
4) 직업	40

3. 소년원의 교정교육	41
1) 교정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	41
2) 생활지도	43
3) 교과교육	44
4) 직업훈련교육	46
5)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문제점	51
4. 보호 소년의 사회복귀와 재화를 위한 정책 방향	52
1) 소년원 수용의 회피와 사회내처우의 도입	52
2) 소년원의 자리매김과 교육기관적 성격의 주지	53
3) 개별처우의 강화	54
4)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56
5) 계속적인 교육기회의 부여	57
6) 단기처우에 대한 교육방침의 정립	57
7) 자원봉사자의 활용	58
8) 외국인 소년의 처우과정의 신설 및 정비	59
5. 제언 · 소년사법과 복지사법	61
1) 사법과 사회복지	61
2) 규범적 해결과 실체적 해결	61
3) 사법복지에 대한 이해 필요	62
 IV. 소년원 보호 소년의 생활세계와 복지욕구	67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67
1) 조사설계 및 복구욕구 영역	67
2) 조사대상자의 개인심리적 배경	70
3) 교육·진로에 대한 욕구	77
4)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	91
5) 경제적 자립 욕구	99
6)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욕구	105
7) 개인·심리적 욕구	111
8) 소결 · 교정복지서비스의 대안 모색	127

2. 면접조사	134
1) 조사설계 및 조사영역	134
2) 욕구 분석	135
3) 시사점	151
3. 전문가 의견조사	153
1) 조사설계	154
2) 소년원 교육에 대한 평가	154
3) 교정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158
4) 시사점	162
V. 한국 교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169
1. 정책의 방향	169
1) 획일적 처우의 개선	169
2)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방향 수립	170
3) 교육참여의 자발성 촉진	171
4) 지역사회 자원의 유기적 협조망 구축	171
2. 정책제언 : 효율적인 교정복지서비스 방안	172
1)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대안	173
2) 안정적인 사후 정착을 위한 대안	177
VI. 요약 및 결론	185
1. 연구결과 요약	185
2. 결론	202
참 고 문 헌	205
<부록 1. 설문조사지>	211
<부록 2. 면접조사지>	221
<부록 3. 의견조사지>	224

표 목 차

<표 I-1> 연구방법 및 절차	9
<표 II-1> 비행소년의 법률적 정의	19
<표 III-1>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1995-1999년)	35
<표 III-2> 소년원의 분류와 특성	36
<표 III-3> 소년원의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1990-1999) .	37
<표 III-4> 보호소년의 연령층별 인원 (1990-1999)	38
<표 III-5> 소년보호사건의 주요 죄명별 접수인원 (1999년) ...	39
<표 III-6> 소년원생의 연령층별 비행내용 (1998-1999)	39
<표 III-7> 소년원생의 학력별 인원 (1990-1999)	40
<표 III-8> 소년원생의 직업별 인원 (1990-1999년)	41
<표 III-9> 소년원의 단계별 교육내용 .	42
<표 III-10> 소년원의 생활지도	44
<표 III-11> 전국소년원의 종류와 특징	45
<표 III-12> 소년원의 직업훈련과정 ...	47
<표 IV-1> 소년원별 조사대상 인원	68
<표 IV-2> 복지욕구 조사 영역 및 세부 설문영역	69
<표 IV-3>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71
<표 IV-4>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	71
<표 IV-5> 소년원 수용 기간 ..	71
<표 IV-6> 소년원 수용 전 직업	71
<표 IV-7> 소년원 수용 전 부모와의 관계 .	72
<표 IV-8> 소년원에 오게 된 이유	73
<표 IV-9> 현재의 처분에 대한 수용 정도	74
<표 IV-10> 법원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75
<표 IV-11> 소년원 수용에 대한 의견 .	76
<표 IV-12> 퇴원 후 재범 예측 .	77
<표 IV-13> 소년원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78
<표 IV-14>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	79

<표 IV-15> 현재 받고 있는 교육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	80
<표 IV-16> 교사에 대한 욕구	81
<표 IV-17> 소년원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	82
<표 IV-18> 직업훈련 교육은 소질에 맞습니까	83
<표 IV-19>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	84
<표 IV-20> 다양한 직업교육의 제공에 대한 희망	85
<표 IV-21> 향후 희망 직업훈련	86
<표 IV-22> 취업 가능성에 대한 예측	87
<표 IV-23> 취업이 어려운 이유	88
<표 IV-24> 퇴원 후 진로 의사	89
<표 IV-25> 퇴원 후 1년 이내의 목표와 희망	91
<표 IV-26>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고 싶은 서비스 영역	92
<표 IV-27>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	93
<표 IV-28> 여가생활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94
<표 IV-29>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분야	95
<표 IV-30> 어른들이나 사회에 바라는 점	96
<표 IV-31>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질병이 있는 것 같다 ...	97
<표 IV-32> 아플 때 진료비 및 입원경비 부담으로 병원에 못 간 적 있다 ..	98
<표 IV-33> 무료 건강검진에 대한 희망	99
<표 IV-34> 경제적 지원에 대한 희망	100
<표 IV-35> 생활비 보조 및 주택 지원에 대한 희망	100
<표 IV-36>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	101
<표 IV-37> 독립된 주거공간	102
<표 IV-38> 퇴원 후 거처에 대한 예측	103
<표 IV-39>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했을 경우 일한 장소	105
<표 IV-40> 부모,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것	107
<표 IV-41>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108
<표 IV-42> “부모가 다른 분이었음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적 있다 .	108
<표 IV-43> 가족 간에 말다툼이나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109
<표 IV-44> 경제적으로 어렵다	110
<표 IV-45> 가사일을 맡느라 힘들다	111
<표 IV-46> 자아만족도 및 변화욕구	111

<표 IV-47>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112
<표 IV-48>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113
<표 IV-49>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	113
<표 IV-50> 친구들의 유혹 때문에 좋지 않은 일에 곧 잘 빠져든다 ...	114
<표 IV-51> 비행친구들만 없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114
<표 IV-52>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115
<표 IV-53> 앞으로 상담을 하고 싶은 문제	116
<표 IV-54>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117
<표 IV-55> 상담한 결과	118
<표 IV-56> 주로 이용했던 여가시설	119
<표 IV-57>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20
<표 IV-58> 여가활동 비용 마련 방법	121
<표 IV-59>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할 경우 돈을 구하는 방법	122
<표 IV-60> 한달 용돈 액수	123
<표 IV-61> 현재 용돈 액수에 대한 만족 ..	124
<표 IV-62> 용돈 지출 내용	125
<표 IV-63> 현재 가장 갖고 싶은 물건	126
<표 IV-64> 면접대상자의 개인 배경	135
<표 IV-65> 소년원 교육의 만족도 및 희망 직업교육 분야	137
<표 IV-66> 소년원 교육이 향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138
<표 IV-67>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변화	139
<표 IV-68> 소년원에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점	140
<표 IV-69> 현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고민	141
<표 IV-70>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142
<표 IV-71> 퇴원 후 거처	143
<표 IV-72> 퇴원 후 계획	144
<표 IV-73> 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44
<표 IV-74> 퇴원 후 염려되는 문제	145

그림목차

<그림 VI-1> 소년원생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복지 정책 방안	201
---	-----